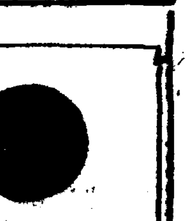


朝鮮日報
夕刊
四日(木)
本紙朝夕刊十二面

滿蘇滿蒙國境紛爭에 平和的處理機構創設

"大體로帝國政府提案을基礎"

外省情報部經緯發表

【東京電話同盟】帝國政府는 滿洲建國以來 滿蘇、滿蒙國境에서 頻發하는國境紛爭事件을根絶시키고저 滿蘇滿蒙國境에서의紛爭을 防止하고 또이것을 平和的으로處理할使命을가진 委員會를 設置하는것을 適當하다고認定하고 客年于先東京과 莫斯科에서 野村、스메타닌、東鄕、모로토프間에서 協議를進行하엿던바 大體帝國政府의 提案을基礎한 國境劃定과 紛爭防止及 處理委員會를 設置하기로 決定하엿다 委員會設置의具體的要項에對하여는 更히日蘇間에協議가進行될터인데 滿蘇滿蒙兩國境에서 새로 紛爭防止와 平和的處理의 機構가 創設된것은 我國交調整外交의 一躍進이라고 할수잇다 이에 關하여 外務省情報部는 三日午後四時 左와如히 發表하엿다

外務省情報部發表

帝國政府는 압서 滿洲國政府와 協議한다음 滿蘇滿蒙國境에서의 國境紛爭을 防止하고 또이것을 平和的으로 處理하려고 滿蘇滿蒙兩國境全般에 亘하여 國境劃定委員會를 設置하는데 對하여 蘇聯政府와 協議하엿던바 蘇聯政府도 이에 同意하엿스므로 이에關한 條約案을 客年十一月十五日 野村外務大臣으로부터 스메타닌 蘇聯大使에 提議하고 莫斯科에서도 東鄕大使로부터 모로토프 外務人民委員에 이를 傳達하여 두엇다 그런데 客年十二月三十日 로조프스키外務人民委員部次長은 東鄕大使에 對하여 蘇聯側의意向으로서 若干의 修正과 追加를 求하는同時에 大體에잇서 日本案에同意를表明하여왓다 그래서 更히 本問題에對하여折衝을 繼續하기로되엇다

社說

再開議會와 現內閣

一

昨年末 衆院各派有志代議士會가 反政府運動을開始한以來 現內閣은 이運動을克服하고 再開議會에 臨할것인가 또는 그들의 要望대로 辭職할것인가 政府의態度는 자못一般의注目을 끌러왓다 年末年始의 政局의 動向은 微妙하여 아직豫測을 不許하나 一日午前阿部首相이 宮中에서의 拜賀式終了後 各閣僚와 會見하고 衆院有志代議士會의 反政府運動을圍繞한 現下政局에對하여 『이와가튼 運動으로 政局이 左右됨은 將來에 惡例를 남기는것이즉 今後에 더욱 重大한 變化가 잇는限 이運動에拘碍받지말고 旣定方針대로 再開議會에 臨할생각이다』라고 決意를 披瀝하고 또議會再開前에 五黨首와도 懇談하여 局面打開에努力하기로되엇다고 傳하는바를보면 現內閣은 그간各政黨의 內情을살핀結果 어느程度까지 局面을 打開할自信이 섯다고볼수잇다.

二

그러나 首相의決意의一面을살펴볼진대 各派有志代議士會의 反政府運動은 비록그數는 二百五十餘名에達하엿다고하나 이는院議도 決定된것도아니고 또各政黨領袖도 아직이決議를 積極的으로 支持하지안코 模糊한態度를取하고잇스니즉 그間事變處理와 對外問題의 好轉을들어 各黨首와懇談하여 그들의支持를 어듬으로써 局面을打開하기에 努力하다가 萬若그것도 如意치못하여 再開議會에 不信任案이 正式으로 提出通過되면 그때에 正正堂堂히 退陣하던지 또는 解散을시키던지 하려는 魂膽이라고볼수도잇다 이와가치 局面을 打開할自信이잇는것이아니라 局面打開에 努力하다가 안되면 그때에態度를다시 定하게될것이라면 衆院各派有志代議士會의 反政府運動에對한 政府의態度는 再開議會에서의 政黨態度如何에依하여 左右決定될것으로 問題는 더욱深刻微妙化되고잇다고볼것이다.

三

組閣以來 現內閣은 여러가지 失政으로 말미암아 政府와 國民과를 遊離시켯다는것이 衆院有志代議士會의反政府決議案의基本理由로서 그들의말과가치 이것이衆議院의 要望이며 따라서 國民全體의 소리라고하면 再開議會劈頭에는 반드시 政府不信任案이 正式으로 上程될것으로 이案이 通過되든지 또는通過되지안튼지間에 政局의 將來에重大한波瀾을 일으킬것은 分明한일이다 不信任案이 通過되면政府는 先例로보아 解散을 命하든지 그러치안흐면 退陣을 하여야 할것이즉 左右間 政局은 重大變動을 免할수업고 또不信任案이 少數의 差로 不通過가 된다하더라도 豫算案其他法律案審議에 許多한 波瀾曲折을 豫想안할수업는바로 衆議院有志代議士會의 反政府運動의 影響은 어느곳에가 끄칠지 알수업는現狀이라 아니할수업다 더욱이政府는 五黨首와 會見하여 그들의 支持를 懇請할模樣이며 五黨首의 態度如何로는 政黨에까지 分裂離合運動이 일어날것도 豫測되는 情勢로 政界는 再開議會劈頭의 政局攻防戰으로 近來에드믄 緊張을 띄어올것으로豫測된다.

新政權成立機運濃厚

汪氏側과我現地側意見一致

【上海三日發同盟】汪精衛氏를中心으로한 新中央政權樹立의 機運은 新春과함께 毅然進行하여 멀지안허 具體化할模樣인데 新政權에對한 日本側의 好意的援助에關한 具體的事項에 對하여 일직부터 汪精衛氏側과 折衝中이던 日本側現地當局은 昨年末에 汪氏側과의 間에意見의一致를보게되엇스므로 四日飛行機로 現地側의 意向을 가지고 東京으로가서 政府에對하여 折衝經過를 詳細報告한後 諒承을求하기로되엇다

海軍航空隊活躍

【上海三日發同盟】艦隊報道部午後四時發表

一、昨二日 午後海軍航空隊는湖南省南部의 敵航空基地 寶慶衡陽을攻擊 飛行場中心部 及附屬建物을 爆破하엿다 그리고 衡陽에서는 敵地上機一機를 擊破하엿다 다른有力部隊는 陸軍部隊의 作戰에呼應하여 貴池(安慶省南方)水塘湖附近에서 敵陣地를爆擊 이에多大한 損害를주엇다

一、連日 멀리 雲南까지飛去하여 蒙自를中心으로 滇越鐵道沿線을 反復攻擊한海軍航空隊는 그戰果를 擴大하려고 昨日惡天候를 무릅쓰고 八佐森兩少佐指揮下에 大學滇越鐵路及 鐵橋數個所와隧道一個所를 爆破하여 多大한 戰果를 거두고 全機無事歸還하엿다

카駐支英大使 香港에到着

【香港二日發同盟】카駐支英大使는重慶訪問途中二日午前上海로부터香港에到着하엿다 一行은 近日中에 空路로 重慶에갈터이다

英、香港島閉鎖

戰時計畫의一手段

【香港二日發同盟】香港의 英海軍當局은 二日午後 聲明을發表하여 二日午前에 閉鎖할旨를 發表하엿다

英海軍當局은 香港戰時計畫의一手段으로서 香港島를 今朝閉鎖한것을 聲明한다 右措置는 海上哨戒艇으로부터 警報를바든 結果로서 右警報의原因에關하여는 目下探究中이다

翁源敵掃蕩完了

蒲尙에서遊擊隊와交戰

【廣東三日發同盟】지난二十九日 廣東省東北部의 敵據點翁源縣城에突入 城內의敵을掃蕩한 我中村、上田、原諸部隊는 其後附近一帶의殘敵을 掃蕩한結果 이제翁源周邊은 完全히 我軍掌中에歸하여 治安도確保되엇다

【○○三日發同盟】我○○部隊는 翁源、三華鎭附近의掃蕩을 完全히마치고 一日早朝一路南下하엿는데 同日午後一時頃 三華鎭西南方約二十키로 蒲尙附近에서 敵遊擊部隊와遭遇 交戰二時間後敵은 一千三百의死體를버리고 四散하엿다 이敵은 我神速한行動에 圈內에서 헤매고잇던百五十一師百五十三師로北方退路를要求하고잇다가 我軍과 遭遇한것으로서 敵은 最初我軍을 友軍으로잘못안모양으로 慘憺거의 殲滅되模樣이다

빨칸諸國外相會議

【伯林三日發同盟】聞스하건대 빨칸諸國外務大臣會議를 一月末或은二月上旬에열기로決定한 模樣이다 右會談期日은 後日發表되리라한다

來栖駐獨大使 大公使會議開催

【伯林三日發同盟】昨年末에 着任한 新任駐獨大使來栖三郞氏는 三日伯林發부다페스트로 向하엿다 來栖大使는 부다페스트에數日間 滯在하여 武富駐土耳其大

重慶、衡陽空襲

重要軍事施設에大損害

【○○基地三日發同盟】我海의荒鷲爆擊編隊는 湘潭의爆擊에繼續하여 二日에도 그勇姿를江南의 碧空에나타내어 寶慶衡陽及衡陽을爆擊하엿다 即衆野原少佐가指揮하는 我爆擊大編隊는 午後一時寶慶을爆擊하고 飛行場及軍事施設에 爆彈을퍼부어 이를潰滅시키고 更히同編隊로 날개를東쪽으로 向하여 衡陽을 爆擊하고飛行場及 軍事施設에 命中彈을퍼부어 이를爆碎 敵은 過去數日의 我連續爆擊에 全然戰意를 喪失하고 防禦砲火도업시 我荒鷲는 悠悠快晴의 冬空을遊飛하고 그目的을 貫徹赫赫한戰果를 거두고 全機無事歸還하엿다

【○○基地三日發同盟】我海軍航空隊大編隊는 三日다시 湖南省寶慶을 連續空襲하여 大戰果를 거두엇다 即島田少佐가 引率한 ○○機는早朝惡天候를 무릅쓰고 寶慶을襲擊 同飛行場에 待機中이던 大型機七機를發見 이에命中彈을퍼부어 其中三機를 炎燒케하고悠悠歸還하엿다 그리고午後一時松尾中尉가引率한一隊는 再次同飛行場을 空襲 爆彈의비를 퍼부어 徹底的으로 潰滅하여 全機無事歸還하엿다

英、揚子江砲艦 二隻을廢艦

【上海三日發同盟】在上海英國大使館二日發表에依하면 英國政府는 압서 揚子江艦隊所屬의 艦艇을 減少하여 이를 他方面의 軍事的要求에 應케할方針을 決定하엿는데 이에基하여 今番揚子江、漢口上流에잇던 砲艦三隻

幣帛御下賜 故南宮營氏의餘榮

中樞院參議 南宮營氏는 昨年十二月二十九日卒去하엿는데 葬儀는 五日午後二時 府內桂洞町一四二自宅에서 佛式으로 執行하다 王殿下께옵서는 幣帛을下賜하옵시엇다

明年度總督府豫算 八億三千八百萬圓

新規事業豫算은擧皆承認

十五年度 總督府豫算案은 大野政務總監과 水田財務局長이 渡東하여 舊臘十二月二十二日頃부터 大藏省當局과 本格的折衝을 하여 結果 十二月三十一日에 이르러 最後査定을 마치고 來九日閣議에 附議決定한다음 再開議會에 提出하기로되엇스므로 四日總督府로부터 如左히 要領을 發表하엿다

總額은 八億三千八百萬圓으로 當初要求額보다는 四千萬圓이削減되엇스나 十四年度成立豫算六億五千六百萬圓에 比하여 一億八千二百萬圓、二割八分增의 膨大豫算이며 新規事業은 物心兩面의 總動員體制强化、生產力擴充、地下資源開發、貿易振興、食糧確保、産金施設擴充 大陸經設의 前進兵站基地로서의 實力擴充이라는重點主義로 一貫된「建設豫算」인 特色이 잇는바인데 主要한新規豫算은 다음과갓다

昭和十五年度豫算槪算 八億三千八百萬圓
昭和十四年度豫算額 六億五千六百萬圓
比較增加 一億八千二百萬圓

▲歲出의主要한新規事項

一、鐵道建設改良(追加總額二二六一六萬圓)繼上額五八五萬圓을包含 六二五一萬圓
二、拓殖鐵道(追加總額四四八萬圓) 二四四
三、港灣修築(追加總額三、五五九萬圓)繼上額五〇萬圓을包含
四、國防道路修築(追加總額一、一一六萬圓) 五九七 一二五
五、增米計畫 六六四
六、產金施設 三、九三一
七、朝鮮鑛業振興會社補給金等 三〇
八、畜產施設 一四六
九、酒林施設 一四五
十、貿易振興 三六四
十一、敎育(初等、中等及專門學校) 三〇〇
十二、志願兵訓練施設及靑年訓練所擴充 一六三
十三、國民精神總動員 一一二
十四、國家總動員關係 一一二
十五、食糧配給調整 五九八
十六、技術者養成(大學理工學部、專門學校其他) 一四〇 二〇八
十七、稅制整備에伴하는 地方分與稅(分與稅七一七萬圓、敎育費補助二四九萬圓) 九八六

2、軍事費繰入 一、〇八四
3、徵兵費 六二
4、地方財政監督費 一二
十八、航空路整備 五六
十九、京城福岡間航空路 二二
二十、國勢調査(總額三三三萬圓) 五個年繼續 一四八
廿一、船舶運送補償 五
廿二、多獅島港航路標識整備 二六
廿三、防疫施設 二〇
廿四、三國機事業調整助成 七〇
廿五、其他

始政三十年記念施設、普通小包郵便制實施、電力資源調査、光州、釜山、淸津放送局新增設、氏制度實施、鐵道의機械擴充、地方土木補助等

備考 計數整理의 結果異動할수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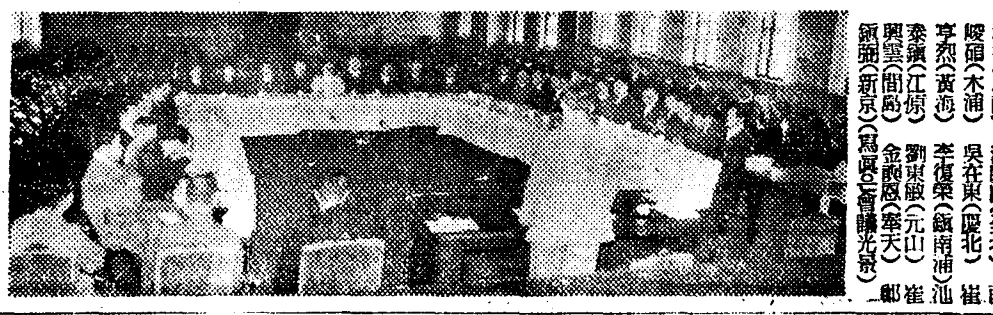
本社通信會議

三、四兩日開催

本社第一回地方特派員 駐在記者通信會議는 三日午後一時本社側으로 方社長 李主筆 咸編輯局長 崔營業局次長以下 編輯局各部長 營業局各部長出席하여 本社講堂에서 咸編輯局長 統裁下에 열리엇다 會議는 먼저社長訓示와 主筆人事가 잇고 이어서 咸編輯局長의 指示가잇슨다음 編輯局各部長의注意事項으로 第一日의 日程을 畢하고 第二日은 四日午前十一時부터 繼續하여 各特派員駐在記者의 管內狀況報告와 意見陳述이잇고 이어서 懇談에들어가 六時半만흔 收穫을엇고 閉會한後 一同社長招宴에臨하엿다 會議出席者는 二十名으로 氏名은다음과갓다

▲特派員 沈貞燮(平北) 吳俠一(咸北) 韓板德(平南) 卞龍中(慶南) 朱洛讀(咸南) 崔仁楨(全南)

▲駐在記者 玄東炎(開城) 李源昌(仁川) 柳鶴鉉(忠北) 柳漢植(忠南) 河駿鉉(全北) 許駿頭(木浦) 吳在東(慶北) 崔亨烈(黃海) 李復榮(鎭南浦) 池秉鎭(江原) 劉東敏(元山) 崔興雲(間島) 金炳恩(奉天) 鄭鍾弼(新京) 鄭



獨蘇通商條約 一個年間延長

【莫斯科三日發同盟】蘇聯政府는 一九三八年十二月十九日 締結된 一個年間의 獨蘇通商協定을更히 아로도 一個年間延長하기로 三日 公式으로 發表하엿다

大野政務總監 六日午後歸京

總督府明年度豫算折衝을 위하여 渡東中이든 大野政務總監은 豫算折衝을 마치고 四日午前九時東京驛發 歸途中大阪에 一泊하고 六日午後一時四十五分 京城驛着 「아까쓰기」로 歸京하게되엇다

今日의本紙附錄內容

"大陸在留同胞現地報告" (附錄其十五一面) 特輯
"入學試驗改正問題" (附錄其十五三面) 特輯
"내地方特產" (附錄其十五二面) 特輯
"아가씨座談會" (附錄其十六二面) 特輯

八面錄

所謂 冬季攻勢는 [illegible]

◇ 元來 [illegible] 안 너무도 우습구려

◇ 日蘇國境劃定委員會協定이 一日莫斯科에서 調印

◇ 「協定」이 「永久」로 「協定」이 「條約」으로되여야 滿足

◇ [illegible] 山西에는 和平開戰이 나더니

◇ [illegible] 비리고 再婚을 간 어머니에게 自殺로 抗拒한 十六歲의 少年이 잇다니 人倫의 悲劇

◇ 世運人心이 어려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여야 되겟구

今日本紙附錄 合十六面

米穀市場遂開場

食糧政策遂行에貢獻

四日開場式 總督告辭

朝鮮米穀市場株式會社米穀市場에서는 四日午前十一時同社에서 開場式을擧行한바 開場式에서의 朝鮮總督의 告辭는 如左하다

榮光에빗나는 皇紀二千六百年의 新春에 當하여 日本잇서 朝鮮米穀市場株式會社 京城米穀市場이 開設되어 所期의 一端을 맛함은 余가欣幸으로 하는바이다 생각컨대 米穀은 朝鮮에잇서서의 產業의大宗일뿐아니라 我國民의 主要食糧으로 그配給의 圓滑及 價格의 適正如何는 國民生活에 影響하는바 極히多大하다 特히現事變下에 잇서서는 國民이 主要食糧에 조곰도 不安이업시하고저 恒常充分한準備를 하여두어야한다 이로서 總督府에서는 政府의施策에呼應하여 內外地一貫의米穀政策을 期하고저 官民共同出資下에 朝鮮米穀市場株式會社를 設立하고 그準備를하여왓는데 本日로써 京城米穀市場의 開設을 보게된것은 邦家를爲하여 慶賀하여마지안는同時에 市場開設에關하여 여러가지盡瘁한關係各位에 對하여 感謝의意를表하는바이다 各位는 本機構의 運用에對하여 總督府의所存을 諒解하고 協力一致其堅實한 發達을圖하여 米穀統制의 圓滑適正을期하여 써 我國食糧政策의遂行에 貢獻하기를 期待하면서 一言告辭로한다

昭和十五年一月四日 朝鮮總督 南次郞

延取 歷史的開幕

初立會 京城延取市場은드디어 今朝歷史的開幕을 보앗는데 積極性이업는 祝賀賣買程度로 玄米一區一月限은不成 二月限은 四十二圓十五錢 一本이엇고 正租는一區一月限은不成 二月限이 十二圓五十九錢 一本이엇스며 其他는 全部不成이엇다

賣買石數 今朝初立會에잇서서의賣買石數及取組關係는如左하다

▲玄米 一千七百石 賣方 金太 九〇〇石 丸ウ 八〇〇 買方 吉村 [illegible] 桑野 [illegible] 丸玉 [illegible] 丸マ [illegible]

▲正租 千石 賣方 金太 一、〇〇〇石 買方 素丸 八〇〇石 丸玉 二〇〇

商況(四日)

株式 初立會 靜穩

初立會 事變第四年을 마지하는 昭和十五年의 初立會는人氣가 始初부터 冷靜하여 東新은 昨年大圖圓에잇서서의 大引價에比하면 六低인 百四十六圓八、鐘新七高인 百十九圓八、滿業六高인 八十一圓八、鐘紡一圓一高인 百八十一圓一、朝新一低인 三十二圓九、大新八低인 七十六圓一、商船新五低인 七十三圓五、郵船新二低인 八十六圓三에 區區寄付된後 鐘新、鐘紡等에는 纏綿賣物이잇서 鐘新은百

多額賣買者表彰

▲滿算之部
一等 一、六二三、八六〇株 東亞證券株式會社
二等 九八六、九六〇株 二田原秋三郞
三等 八二四、四七〇株 吉村榮左衛門
四等 八〇五、八〇〇株 內海洞藏
五等 七九四、一五〇株 金益證券株式會社

▲實物之部
一等 一六九、二〇二株 內海洞藏
二等 八九、七九五株 大原證券株式會社
三等 六六、九九五株 昭和證券株式會社

株式 (評價一株單位十錢)

◆朝取短期◆

	前寄	前引	高價	低價
朝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安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商船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新	―	―	―	―
小林新	―	―	―	―

◆東京短期◆

	前寄	前引	高價	低價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

	前寄	前引	高價	低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滿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帝人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鋼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魯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長期◆

	前寄	前引		前寄	前引
鐘紡	[illegible]	[illegible]	滿業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日產	[illegible]	[illegible]
大株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郵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延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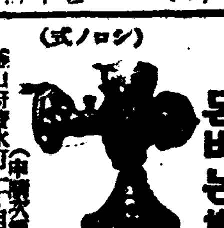
	寄付	大引	高價	低價
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區先	[illegible]	―	[illegible]	[illegible]
二區先	―	―	―	―
三區先	―	―	―	―
正米	―	―	―	―
一區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區先	―	―	―	―
三區先	―	―	―	―

棉花 (評價百斤單位圓)

	前寄	前引		前寄	前引
大阪一月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綿布 (評價百斤單位圓)

	前寄	前引		前寄	前引
大阪一月	[illegible]	[illegible]	五月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六月	[illegible]	[illegible]
三月	[illegible]	[illegible]	七月	[illegible]	[illegible]
四月	[illegible]	[illegible]			



朝報案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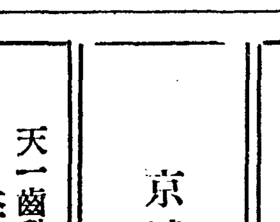
十二指腸丸
京城本町三丁目

タイプライタ アジアタイプ社
京城鍾路二丁目 電光四二六四番

洋服 國民服、紳士、婦人服
京城府黃金町三丁目 馬渡洋服店

仁川松嶋 潮湯ホテル
年末年始の御靜養には是非松島を… 空海一碧ノ保險鄕 年中無休 暖房完備
▲京城―上仁川汽車賃〇、五八 ▲上仁川―松島バス 〇、一五
仁川府松島町五〇五 松嶋觀光株式會社 電話四七七番

強精補腎! 呼吸 世界的強壯劑
トンネオ
全國有名藥房販賣



京城府岡崎町 製造發賣元 京工社 振替京城二八六一八番

外科 X光線
京城府鍾路三丁目十六 (入院室完備)
醫學博士 鄭求忠
電話光化門六八五番

勿驚勿疑!! 單方藥으로 濟世活人!
書面問症 天龍藥房診療所
滿洲安東市場通九ノ一 振替三二〇六三番

三日封切

江戸文學の雄篇【里見八犬傳】映畫化 新興京都のオールスタア陣を總動員して描く一大傳奇物語
里見八犬傳
本町三 京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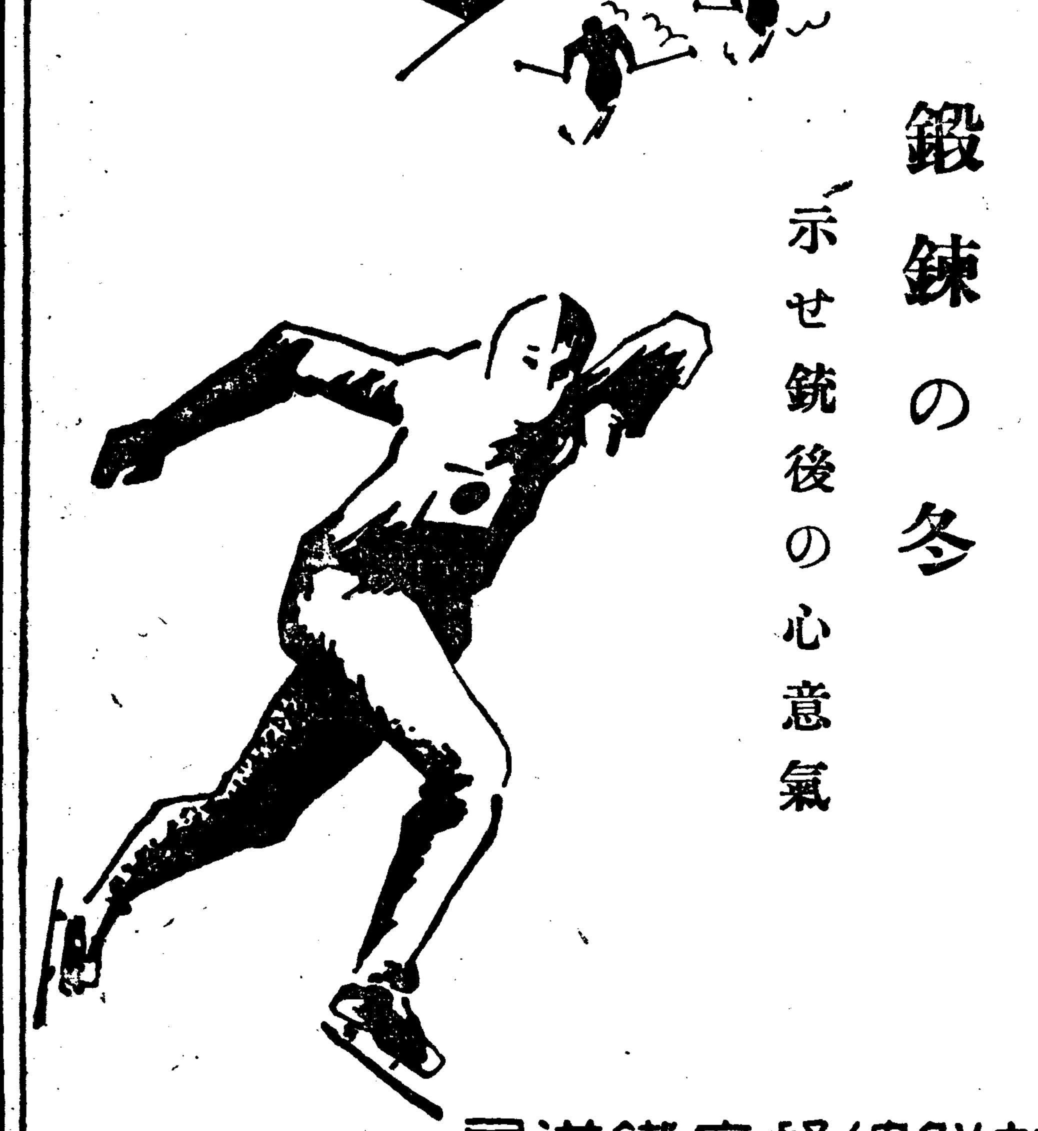
間島梅吉 京城府本町一丁目三八

京城酒類卸商組合

天一齒科商會 李應顥 京城府舟橋町一二

회충구제량약 岩崎大海堂 セメン菓子 (珊篤尼涅菓子)
무서운蛔虫卵을 驅除합시다! 蛔虫卵은 每日食用하는 野菜 김치等에附着하야 人體內에 드러가서 體內에生長하면서 發熱腹痛嘔吐貧血夜泣等其他 各種病의 原因이됩니다 特히 小兒는 蛔虫에 걸리기쉬운故로 每週日曜日에는 예전부터 信用잇고 잘듯는 印岩崎大海堂세멘菓子를 服用시켜서 이무서운 蛔虫을 驅除하고 애기네를 健康하게 길러주십시요
本舖 大阪天王寺 合名會社 岩崎大海堂
類似品 잇스니 商印에 注意

モートル 礦山用機械 附屬品
電氣熔接棒 熔接機瓦斯棒附屬品
ニッサンペイント ラッカー外塗料一式
京城府南大門通二ノ一 日本生命ビル三階三〇五
辰巳物產株式會社
電本二八〇一番 四四九〇番 三九〇番



"被害面積三千町步나 靈峰景勝損害없다"

重石盜掘黨殲滅方針

천하절승 금강산이 작년도다간 삼십일오전세시부터 외금강창대리(倉垈里)서쪽 방면에서부터 불이붓기 시작하엿다는 소식은 천하의시청을 집중시켯는데 총독부농림국에서는 관계자를 현지에 파견하여 피해상황을상세히 조사중이다 이때까지에 판명된바를 보면 불탄면적은 국유, 민유림합처서 삼천정보에 지나지안코 도바람이세엇기때문에 대부분은 불이우로 퍼지못하고 땅으로 기어낙엽이 탄정도로서 금강산풍치에는 그다지 큰영향이업는것이 판명되엿스므로 탕촌농림국장(湯村林局長)은 사일당국의 발표하여 일반에게 안심을주엇다

湯村農林局長 談

키난삼십일 삼십일 오전세시에 고성군 외금강면창대리(倉垈里) 외금강(外金剛)역서쪽으로부터 불이나서 그때마침 이십미터이나되는 속력의 큰바람이 서남편으로부터 불어왓기때문에 곳 관목림(灌木林)을 동으로 번저나갓다 그리하여 저녁때에는 드디어 신계사(神溪寺) 및 온정리로에 가차워지고 다시 하갈때는 동북으로 장전(長箭) 녹리(鹿里)방면으로 하갈때는 동남 서면화우리(花雨里)방면에 향하여 번저갓다 한때는 금강산보승구역의 북뫼산악림과 이에근접한 온정리 장전읍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럿스나 빨리 경찰관과 경방단이하의 활동하엿기때문에 험을 면하게되엿다 서면화우리방면에서도 이날 오전세시에는 불이진정되고 최후까지 타고잇던 문수봉(文殊峰) 천불동(千佛洞)방면도 일일 오후세시에이르러 완전히 불이지식되엿다 순피해면적은 상황은 방금조사중이나 국유림(國有林)과 민유림(民有林)을 합하여서 삼천정보를 넘지안홀듯하다 그리고다행히 세바람이엇기때문에 대부분은 땅바닥에불이 지나간것이어서 나무사이에잇는 하초와낙엽파 그리고땅에서 한두자가량되는 아래가지를 태워버린 정도의것이만허 금강산의 보승(保勝)상으로보아서 롭시 경치를손상시킨것은 업는것이 참으로 다행이다 하기는 이번산불때문에 신계사(神溪寺)의 일부 부속건물과 보광암(普光庵)이 타버리엇고 또 창대리(倉垈里) 화우리(花雨里)등지에서 상당수의 인가가 타버린것이라든지 특히 화우리에서는 죽은 사람과 행방불명된사람을 다섯사람이나내인것은 참으로 동정의눈물을 금할수업는바이다 불이난원인으로 추측되는주석도굴방지에 대해서는 금강산의 경승보존상 전부터 경무관헌과 협력하여 극력취체를 하여 오든중이나 장래일층 관계방면과연락을 긴밀히하여 이런사태의절멸을기할터이다 여러가지로 걱정을끼처 다행히 피해를 최소한도로 멋게할수잇게된데 대해서는 기피 감사의뜻을 표하는바이다 용감한 활동에 대하여는 치하하지안할수 업섯다 일부어면신문에서는 화재상황을 과대하게 보도하엿기때문에 일반에게 더러 오해되는일도 잇겟스므로 철도국에서는 각주요정거장에 탐승지역은 아모런손해가 업섯다는 뜻을 써서 게시하여 일반의오해를풀고자한다

探勝地域無事
各驛에揭示할豫定
小林金剛山協會幹事 談

외금강에 산불이 나던즉일로 곳 현장에 출장하엿던 금강산협회간사인 철도국 소림서기(小林書記)는 그동안 화재상황을 자세히답사하고서 사일아침에 경성에 돌아왓다 그의조사한바를 드러태도 탐승지역은 대체로 무사하고 다만 신계사(神溪寺)어구의 송림일부분이 몹시 탓것은 풍치에 조금 손상된다고 할수잇겟스나 다른곳에는 길을가리워잇든 잡목들이라 버려서 도리어 길이터저서 전망에 편리하게된 곳도 적지안핫다 이번 화재에 경방단원의

神佛山에도 山火
三百町步燒失

【울산】 경남울산군하의 유일의 명승지인 영축산(靈鷲山)단조성(丹照城) 금강폭포(金剛瀑布)등지 명승지를 차고잇는 삼남면신불산(神佛山)에서는 지난이일오후두시경부터 대산화가일어나서 양산통도사영축산(梁山通度寺靈鷲山)과 상북면간월산(上北面肝月山)방면으로 매진중이며 손해는 사일까지 폭풍관계로 수천여정보에 연소중에잇스며 화새는 이미삼백정보는 전소되엿고 전기명승지도 화염속에 빠저잇스며 도여간크지를안타

國民思想統一에 拍車
豫防拘禁令遂實施
內地에압서四月부터·廿萬圓豫算通過

비상시를 극복하여 나아가는데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사상을 통일하여 일본정신을 고조할필요가잇다 이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조선에서는 내지와가치 소화십일년십이월부터 사상범보호관찰제도(思想犯保護觀察制度)를 실시하고 사상사건전과자를 대상자로 보호선도에 힘써온결과 전향자 가속출하는등 큰효과를 나타내고잇거니와 이와병행하여 한층더 강화한대책을 세워만전을 기할필요가 잇스므로 이번에예방구금제도(豫防拘禁制度)를 새로단 들기로되어 소요예산 삼십만원을 요구중이던바 이삼십만원이승인되엇다 예방구금은 재령(制令)인 조선예방구금령(朝鮮豫防拘禁令)에 의하여예방적으로 구금할수잇는 것으로법령은 법무국행형과(法務局行刑課)가 중심이되어 입안중이데 오는사월부터 실시하고저모든 준비를하고잇는터이다 내지에서도 가치실시하고저 예산을요구중이던바 전부삭제되엇스므로 조선이 하거름압서 실시하게되는세음이다

學士는 됏스나……
쓰이는곳업서自殺

적동중리(平北義州郡州內面 於赤洞中里)출생의 이병순(李炳淳)군은 면도로 자기목을찌르고자살한것을 주인이 발견하고 곳경찰서에 알렷다 그는 일직이 일본대학연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연구부에 재학중이 엇는데 최근생활이 곤란하여 각방면으로 취직을 운동하며 그달이십구일 서울로올라와서 아는사람을 차저다니며 일사리를 구해스나 여의치못하여 세상을비관코 자살한것이다 그리고 사체는 경성부에서 매장하엿다한다

朝鮮映畵令 今日公布

조선최초의 문화입법으로서 일반에게 대망되어잇든 조선영화령(朝鮮映畵令)은 시무식(始務式)이잇슨 금사일 재령제일호로써 아래와가치 공포되엇다 내용은 내지의 영화법에 준하는것으로 두령의 시행세측이 섬안을엇든 대로 느저도 이월중에는 시행할예정이다

朝鮮映畵令

영화의제작, 배급과 상영기타 영화에관해서는 영화법제십구조의 규정을제한외에는 두법에의한다 또 법중에 칙령이라고하는것은 조선총독부령 주무대신이라고하는것은 조선총독을 이름이다

附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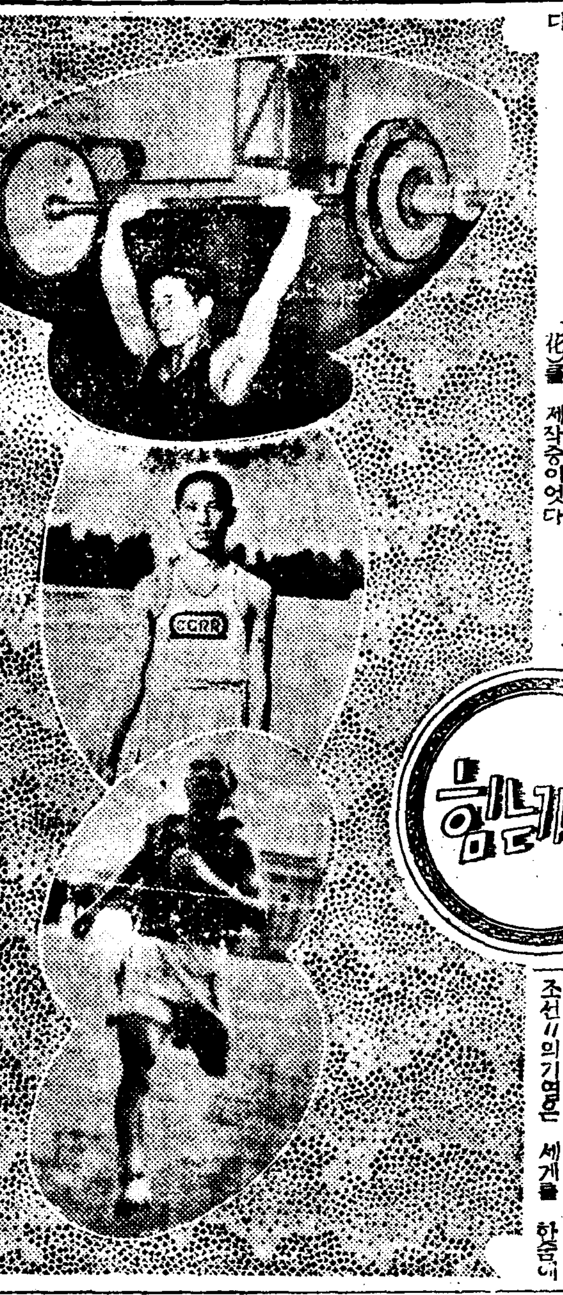
본령을 시행하는기일은 조선총독이 이를결정한다

본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규정은 조선총독이 이를결정한다

金幽影氏永眠

신장염(腎臟炎)으로인하여 그동안『세브란스』병원에 입원치료중이던 영화감독김유영(金幽影)씨는 사일오전여섯시반에 세상을떠낫다

씨는얼마전에 애련송(愛戀頌)을 제작하엿고 최근에는 조영선영화회사의 신작 수선화(水仙花)를 제작중이엇다



힘내는가나다 ④

超人的인力道朝鮮
마라손도 如前히朝鮮사람이라야!
"三段跳 金源權"歐洲를行脚

힘차게뻐더나가는 "스포ー츠·조선"의기염은 세계를 한숨에 집어삼킬뜻 신흥 "스포ー츠·조선"의등장은 벌써경이를 떠나 세계"스포ー츠"게에 한개의압도적 존재가되고말앗다 우리선수가 가는곳 거기에는 반다시 승리와함께 위대한발자취를 남기고야만다 여기에 지나간일년동안의 우리운동게를 돌아보기로하자

……

마라손—손기정(孫基禎)군이 세게"마라손"게를정복한이후 오랫동안 조선의그것은 물론전일본, 전세계적으로 "마라손"의부진(不振)으로 침체되어 왓섯다 그러던것이 제십회명치신궁대회의 최종마에잇서 이대회에 잇서 가장주목한마라손으로 일반의 주목을끌던 "마라손"경기에서 우리선수오룡우(吳龍祐)군이 이시간삼십일분이십육초라는 작년도일본최고기록으로서명예의 "테푸"를 끈헛다 뒤니어 삽착으로달려들어간것이 올림픽마라손선수 남승룡(南昇龍)군이엇다 비록 오군이 지은기록이 세계에 올림픽할 경이적의 그것은 아니엇다하더라도 부신을 하랴던『마라손』게에 이것이 어찌 통쾌한사실이아닐수잇스랴! 이리하여『마라손』부신의 피로운 고함소리는 솟틀어 가고『"마라손"은 역시 조선사람이라야』라는 느낌을 일반의머리에 기과 기과 심어노핫다

……

역도(力道)—세계의 역도조선 에 부끄럽지는 벌써오랫다 남수일(南壽逸)군이 제십회명치신궁대회에서지은 추상(推上)에서의 백오"키로"(一〇五瓩)는 자기가 가지고 잇던 세계공인 최고기록인 구십칠"킬로"을 갱신(更新)햇슬뿐더러 이때까지 어느누가 생각조차하여보지 못하엿던 글짜그대로의 초인적 기록이다 세계의 역도게에는조선의무대도지어저세인의 눈은 다만 초인적으로 빼너나 가는 "역도조선"의 구실발거를을 하염업시 바라보고잇슬뿐이다

……

삼단도(三段跳)——김원권(金源權)군의 존재는"스포ー츠조선"이 세계에 자랑하고도 남음이잇다 작년독일에 건너가 제이차 대전이터지기전까지의 약오개월동안 그가남겨노코온 전적은 실로 위대한바가잇다

십오메ー터시절이란 구라파에서지은 기록이 비록그가지고잇는 십오메ー터팔십사란기록에거리가 잇기는하지만 그에대한 세계의눈은 번적떠젓다 따라 약진『스포ー츠조선』에 대한 세계의경이는 새로워젓다

경진(庚辰)의 신록, 약진하는『스포ー츠조선』에대한 세인의기대는큰것이다

(사진은 우로부터 남수일, 김원권, 오룡우군)

曆 一月五日(金曜日)陰十一月二十六日▲干支 丁未▲日出 午前七時四十八分▲日南中 午後零時三十八分▲日入 午後五時二十九分▲晝間 九時四〇分▲月出 午前三時二十五分▲滿潮 午前四時四十分 午後二時五分▲干潮 午後一時四〇分

總督府始務式

사일총독부 시무식은 오전열시제일회의실에서 열렷는데 먼저남총독으로부터 다사다난한기원이천육백년을 당하여 관리는 일층분발해신 봉공의 지성을다하지안흐면 안되겟다는 인사를하엿다 이에수전(水田)식산국장이 대표로 답사를하고 열시반에끗마첫다(사진은 시무식)

京城延取市場
今日午前、開場式擧行

경성연취(延取)시장은 사일오정(立會場)에서개장식을 거행하엿다 전시식량문제가 긴박해짐을따라 미곡취인소는폐쇄되고 미곡배급의 원활을도모하기위하여 새로생긴 조선미곡시장회사에서 경영하는지정으로서 이날명동(明村)농림국장(甘蔗)경기도지사등 다수한내빈이 참석한가운데 성대하게거식을마치고 역사적처음 입회를하아 현미이월한(二月限) 사십이원칠십오전, 정조이월한 삼십이원오십구전에 매매가 시작되엇다 (사진은 경성연취시장 개장식광경)

스포ー츠
淑明快勝
對靜岡籠球

【東京支社發電】全日本女子籠球大會第一日의 第一回戰 淑明商女對靜岡精華俱樂部의 게임은四日午後三時十分부터 神田一橋講堂體育館에서 擧行한바 結局二十八對二十七로 淑明이 辛勝히이겨서 第二回戰에들어갓다

淑明28(13:15 15:12)27靜岡

三重高農에게 普專惜敗
全國高農럭비二日

【大阪文社發電】第十五回全日本蹴球럭비ー大會第二日의 第二回戰·普成專門對 三重高農의 백게임은 五日午前十時三十分부터 花園球場에서 普專킥어프로 開始된바 普專軍부터 攻戰을 展開하더니 七分에三重第一트래이로 三點을 리ー드한後 또다시 二十九分에 三重一트라이를 어더 六對零으로 三重優勢裡에 前半을마치고 後半에들어가자 二十分에 三重三點을어더 九對零으로 普專焦燥하비이떠틀더니 二十三分에 普專一트라이로 三點을挽回하엿슴은 普專의雄圖는 또다시水泡에돌아가고마럿다 普專一行은四日밤車로 歸途에오를터이라한다

三重高農 9(6:0 3:3)3 普專

高專럭비ー와 中等럭비ー戰績

全國高專과 全國中等의럭비ー大會第一日파 第二日의 成績은 다음과갓다

台大豫學 11—6 甲南高校
哈爾濱學院 43—3 北大豫科
福岡商 25—13 秋田鑛專
慶大豫 13—3 早專

第一日의成績

北野中學 17(9:0 8:0)0 松山中學
保善商業 23(14:0 9:0)0 關西商業
福岡商業 13(5:0 8:0)0 台北工業
撫順中學 31(19:3 12:3)6 神戶一中

養正中學 18(13:0 5:0)0 崇德中學
秋田工業 91(16:0 3:0)0 同志社中
北野中學 17(11:0 6:0)0 福岡商業
撫順中學 21(16:0 5:5)5 保善商業

運動界人事·集會

▲新義州氷上第一行九名은 都市對抗氷上에參戰코자 四日朝入京 人事次來社 實嶺町漢陽旅舘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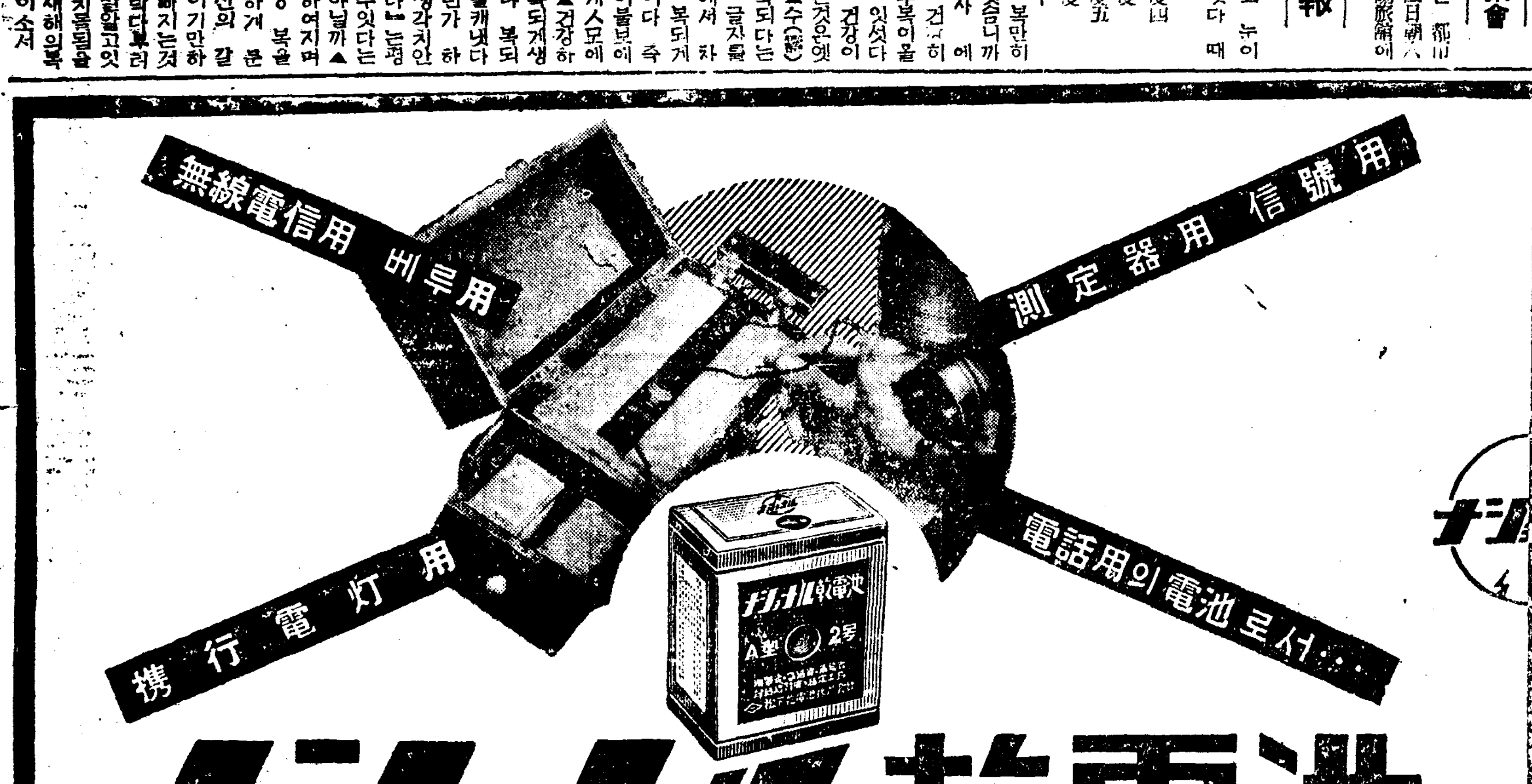
天氣豫報

豫報 오늘밤은흐리고 눈이 올터이며 내일은 개엿다 때때로흐릴터이다

昨日最高 零下 一度四
〃 最低 〃 七度
今朝最低 〃 八度五
同 正午 二度

色鉛筆

새해에 복만히 바드섯슴니까 하는인사 에 이러케 건강히 단념수잇는것 이것이모든복이올시다고 대답하는 분이 잇섯다 ▲사실 사람의복가운데 건강이상으로 더큰복이 업다는것은옛날부터 일러오는말이다 ▲수(壽)를만히하고 건강하니 복되다는『수복강령(壽福康寧)』이란 글자를우리가정에서는 여러곳에서 차저볼수 잇는것도 건강을 복되게일러온 가장 큰 증거이다 즉 왕쌍에도 수저집에도 이불보에도 애기네올떼에도 벼개스모에도 흐히 볼수 잇다 ▲건강하고 수만히 하는것을 복되게생각하든것은 말할것도업스나 복되다는것을 바로이 금광을캐냇다던가, 노름지에올랏다던가 하는듯바개어든 행운을 생각치안코『이러케 건강할수잇다』는평범한 사실에 복을느낄수잇다는그것이 더머롭다한 복이아닐까▲근래 세상의변화가 복잡하여지며 인심은 하여서 초조하여 복을찻는것도 너무나 허황하게 큰 수에넘치어 의외려 자신의 갈바를 바로못찻고 헤매이기만하다가 실망의 구렁에 빠지는것이만타 ▲이출발을 다시다부러 지을수업슴은 누구나 잘알고잇스나 건강이 만복의 지치음됨을 아는이는적다▲비노니 새해의복은 건강부터 갑시히여이소서



謹賀新年 阿娘一同

劇團 阿娘新春大公演

滿員謝禮

—藝題— 林仙圭作 北斗七星 二幕五場
林仙圭作 寡婦 三幕八場
兩大藝題 同時上演
入場料 五十錢(三階) 一圓(一、二階)
五日밤까저 每夜六時開幕 府民舘

—豫告— 一月十一日부터 第一劇場에서 公演

若劇 1月3日より7日まで上映時間表
御存知東男 10·00
ニュース 11·05 1·45 4·25 7·10
ロッパの新婚旅行 11·15 1·55 4·35 7·20
ニュース スエズ豫告篇 12·20 3·00 5·40 8·30
御存知東男 12·35 3·15 5·55 8·45

大陸劇場 自至5日より9日マデ上映時間表
ニュース 10·00—10·22
ボルカの歌姬 10·25—11·53
娘の問題 11·58—1·08 3·16—4·26 6·45—7·55
ニュース 1·18—1·40 4·36—4·58 8·00—8·22
ボルカの歌姬 1·43—3·11 5·01—6·29 8·27—9·55
次週 踊るロマンス 純情夫人

京劇 新春豪華番組 五日ヨリ封切 新興京都總動員映畵 里見八犬傳 新興東京特作 街の花賣娘 美鳩まり 草島競子 新興京都花形スター 第一回十時 第二回一時 第三回四時 第四回七時 實演と御挨拶 六日限

明治座 4日より上映時間表
暖流 10·15—11·37
ニュース 11·40—11·55 3·00—3·15 6·30—6·45
群衆の歡呼 11·58—1·24 3·18—4·44 6·48—8·14
暖流 1·35—2·57 4·49—6·11 8·19—9·41
次週 母は强し 封切

黃金座 日活映畵 七日四日ヨリ
お姬樣大行進 10·00 2·00 6·10
今日の船出 11·35 3·35 7·45
ニュース 12·35 4·35 8·45
後篇鏘鳴浪人 12·45 4·45 8·55

桃花劇場 一月四日—六日限 夜二回 一時七時開映 料金 下上 三十錢 二十錢 松竹現代劇 美人床 監督 宗方英 主演 東山光子 ユニヴァザル社超特作 火星地球を攻撃す 主演 フォトリー·バスタークラップ 松竹大船特作 美枝子の兄 監督 原研吉 主演 河村黎吉 水戶光子 大映、殺寶ニュース

東洋劇場 劇團 司春座新春特別大公演 正月一日부터 方仁根先生原作 李雲芳 脚色 魔都의香불 四幕七場 次週上演豫告 李雲芳 作 눈물의 天使 三幕七場 新聞小說 近日上演 金永久 作 情火 四幕七場 南宮雲作 人生大學 四幕五場 金 健作 愛憎의花園 四幕五場 새해에福만히바드십시요 금년에도한이업는愛護를바랍니다 電話光 二五四番 四四九五番

第一劇場 ワーナーナショナル映畵會社提供 ワーナーブラーザース超特作 夜は巴里で レイ·エンライト監督 ジエリイウオルド原作 リチヤードコーレイ モトリス·レオ 京城映畵社作 林仙圭原作 高麗映畵社 話 杏花紅蓮傳 新作 아리랑고개 午後七時ヨリ 開映 近日上映 米國ニュース 日ヨリ 阿娘劇團 大公演

優美舘 一月五日ヨリ公開 大衆料金 二十錢均一 ユナイテット超特作 日本版 赤陽の斷崖 ランドルフスコット 主演 ビニイバンス 助演 米國アペック提供 日本版 アンガ ジエオMメールリック 監督 新興キネマ京都大作 女自雷也 鈴木澄子 主演 大友柳太郎 助演 事變ニュース

新富座 一月四日—六日マデ 夜二回 一時七時始映 特別料金 階上 三十錢 階下 二十錢 朝鮮映畵株式會社特作 全發聲日本版 新しき出發 監督 李圭煥 主演 文藝峰 金一海 徐月影 獨銀麒 新興映畵社特作 新婚お家騷動 監督 沼波功雄 主演 井上浦 美鳩まり 歐米映畵社特別提供 ハルトロイト氏大活躍 ロイトの冒險塔 次週 近日公開大會篇 友情を盜む勿れ

…一 다음은 동래(東萊)김범규씨에서 말슴하여 주십시요

金乘圭 금년의 한해에대한대책파 미래에대한것은 항구적으로한해를 피하고 실지에즉하여 몃마듸 말하겟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세운 한해구복대책파 나의생각파는일치하엿습니다.

첫째 노임을 산포할것 이에는 각종공사를 시작할것

둘째 적당이 이재민을이주시킬것

셋째 부업을 장려할것

넷째 소요식량을확보히 배급할것

다섯째 지주대하여소작료를감면하여 달라는것

여섯째 내년의 농경준비

이것이한해구제의근본입니다 방법을 이러케정하노 구제를받는농민이 구제바드려는 정신만으로는 안됩니다 농민이자분자려해야됩니다 방법은이러하나어떤기관 추진엥이필요한가하면 첫째 도, 군, 읍, 면, 경찰서 주관공서와 둘째 금조, 금농회, 산조(産組)의 단체와 셋째 부락진흥회의각기관이 일치협력하여 지도해야되겟다고 생각합니다.

노임산포, 이재민의당한이주 소작료감면등의일은 도, 군, 읍 면, 경찰서가 주가되어 당하여야되겟고 부업장려, 소요식량의배급확보, 내년농경준비, 이재민의자분자려는 면민이협력지도해야 되겟다고 나는지방에서 생각하엿습니다. 그리하여 지금은 그러케 실행하고잇습니다.

첫째 노임산포에 대하여당국에허명할것은 목적이노임산포라면 공사의성질여하에 불구하고 공사장을 선택하여야되겟다는것입니다 종래의예를보면 노임산포보다 토목행정을 그기회에 해결하려는경향이만코 이재민보다 청부업자구제를하는것파가튼것을 보앗습니다 금번은 그런것은잇니나 그중에는 설계서를 보면 각종공작물(工作物)에 돈이더만히 계상되고 노임은사람이하인것을 더러보앗습니다 노임은금번보리가을할때까지 산포하여주기를바랍니다 명인지료대시기를어먼도하는것파가치 구제사업도시기를 이러서는 안될것입니다 다음은 공사는부면적으로 해야되겟습니다 예컨대여한곳에 일하려가는 일이엇거하여 달라는것입니다.

둘째 이주민은당청에서저당히할것이므로 이곳에서 약암니다

셋째 자분자려에대하여 우리지방에서는 모두여예하고잇습니다 전연 실패한것은 소작료의감면입니다 우리는 또당국의 지시에의하여 간담회를열고 그감면을 실행하도록하엿습니다 그러나 실적을보면 동래군에는 그대로 실행한지주은 논열마지기에 지주가와서 열다섯섬을 바덧다 하사람이 한속 다른사람도 따라간다 거절할수업스니까…

소요식량을확보히배급하는문제는 드른즉 도에곡물배급통제조합을 설치하고 각부군에도 조직한다고 드럿습니다 그조직분자는 상인이중심이 되어잇습니다.

小作料減免不徹底
勞賃撒布의均衡도必要

사변이래 통제경제를 하고잇스나 잡안되는것은 상인들때문입니다.

상인의 대부분은 공정가격을무시하고잇습니다 그중에 공정가격대로 파는자는 상업이내이고 최말은 비밀거래을하고잇다합니다 이러한 상인이통제조합의 중추가된다면 식량배급에 실패가잇지안흘까근심됩니다 식량배급은 농회, 산조, 금조등을 통해서 하여야 원활이 될줄압니다.

물가정책 가격통제를 정한이상 배급기구를 어떠케할리회하는가 배급기구의 중요호는 그운영에 지대한관계가 잇는것입니다.

아까 김장태씨는 농촌에공업을 이르켜야 되겟다하나 그공업이라는것은 농업을 중심으로한 공업이어야된다합니다 중공업 경공업은 농촌에는적당하지 안흔것입니다 농촌에는 집가공업(農加工業)이 제일적당한 부업인가합니다 당국에서 부업장려로 가마니짜기를 장려하는것은 적당하고 생각합니다.

이리한것이 식량을 엇는길입니다 동래에서는 지난섯달하순경에 군농회, 경찰서, 금조, 산조(産組)가 모여 진가공품을 어떠케 할것인가에대하여 협의한바잇섯습니다 가마니의 판매를 일개통제회사에 의탁한다면 몃사람의 배만엿게할뿐이 주가되게하기를 바랍니다 금번파가튼해에는 원료부닥이 금하므로 동래에서는 집웅잇기를 중지하고 다음은 연료(燃料)는 나무칠흠장도등을모두 가마니를 짜기로하고 집의군사배급을 금지하는일없 원료배급을 위하여각부락마다 집의수요량조사를하엿습니다 그리하여 부족량을 보충하고저 약 삼수러조합구내에가서 구입계약을 하엿는데 이러케지지해서하자 그곳주립지역으로 우리가 위하여 악대한예산을 계상하여 집배급을 하여왓습니다.

식량배급을 위하여는 한날이 십배가는것을보자 동래산업조합에서는 금년여름에 나맥(裸麥)삼천가마니를 계약하엿스나 일선에서가마니만 빗고나머지는 공정가격이 결정되면 조합에서 손해가된다고 일부의권고에의하여 해약하엿습니다만은 일선가마니가마니는 원리치거래랄아도 손해는 업스므로 그러케해랄고잇습니다 이러케잇을하여 일처잔포드어의 선인에의하여 배급을 하엿습니다 이러케 서두르는파-동태이재민은 큰고생은 업게되엇습니다.

―(계속)―

日時 昭和十四年十二月十八日午後六時半

場所 釜山[illegible]

出席者

官廳側=金泰錫氏(慶南內務部長) [illegible]氏

民間側=金乘圭氏(道會議員、東萊產業組合長) 金璟泰氏(釜山商議會頭) 尹炳浩氏(釜山府會議員)

本社側=吳敬一(慶南支社長) [illegible](慶南支社總務) 卞龍甲(本社慶南特派員)

七億三千萬圓!
比前年一億九千六百萬圓增
釜山港의貿易大膨脹

【慶南支社發】 대륙의현관인 부산항무역액은 원래일파 제상국에가는 수출의약진과 국내적으로는 사변하 물자수송로의 중심지로서의 이출액의 대팽창을이르켜 십사년중에는 실상엔의 최고기록인 오억원을 훨신돌파하여 칠억삼천만원을 넘는신기록을 지엇다 이것은 전년도무역액에비하면 일억구천륙백만원의 격증으로 부산항의 경제적지위를 여실히 말하고잇다

이제 그수출액의 큰것을추어보면 수출에 이천사백칠십오만원중 철도화차의 유배만원을필두로 면직물 백팔십만원 기계류 백이십오만원 인견직물에십칠만원 곰 배만원등이 크고 수입액은 일천만원중 조면(繰綿) 배칠십팔만원을 머리로 생고무 단닌, 전일년 대두등 각오십만원이상을 보여다

이리하여 대외무역액은 삼천오백만원에 달하엿다 이출액은 이억육천만원 그중 큰것은 합금오조동(合金製銅)의 오천만원을 필두로 미곡사천사백육십만원 생사 이천이백팔십만원 중석광 칠백팔십팔만원 생선 육배칠십만원 생우 오백오십만원 임금(林檎)사배만원 해조(海藻)이백팔십만원, 비료삼백사십만원 대두 삼백사십만원 건해태(乾海苔)이백팔십만원 면이백만원, 철 백팔십만원 조면(繰綿)백칠십사만원이고 이입은 사억삼천칠백만원 그중 기계류 유전이백만원 내의(肌衣) 일천칠백만원 철 재목, 일천칠백만원, 인견직물 팔백만원, 곡물 오백구십만원 벡구십만원 석탄 오배만원 고무신 사배이십만원, 소채류 백칠십만원, 밀가루 백구십만원이 크다

蔚山郡蔚山面	三、五〇	四、七〇
瑞山郡瑞山面	一	四、三〇
唐津郡唐津面	一	四、四〇
牙山郡溫陽面	一	四、三〇

一、籾及玄米의銘柄間及等級間의格差는別表와如함

二、朝鮮穀物檢査令의依한 等外籾(等外下兩除함)의 販賣價格은 各銘柄에付三等의 販賣價格에서 一斤當一厘를控除한額임

三、五分搗白米의 小賣價格은 七分搗白米의價格에서 一石當四十錢을控除한額임

四、七分搗白米小賣價格又는五分搗白米小賣價格은 各各朝鮮總督府穀物檢査所又는 府郡島、邑面、農會等等에附한 七分搗白米標準品又는 七分搗白米標準品以上의것의價格임

五、朝鮮穀物檢査令에 依한一等品과同等品以上의格差

六、重量으로써 販賣할때는 七分搗白米及五分搗白米에 잇서서는 一石을 百四十四瓩 朝鮮穀物檢査令에 依하고 一等白米에잇서서는 一石을 百四十七瓩으로함

米의 小賣價格은 七分搗白米의 價格에一石當貳圓十錢을 加算한額임

△籾銘柄間格差 (一斤當)

銘柄	等級	格差	摘要
銀坊主	三等	(十)〇、五錢	
穀良都	三	(十)〇、〇五	
銀	三	(十)〇、〇五	
豐玉	三	(十)〇、一五	
多摩錦	三	(十)〇、〇五	
銀坊主	三	基準	
瑞光	三	(十)〇、〇七	
穀良都	三	(十)〇、〇七	
錦	三	(十)〇、一〇	

○籾等級間의格差(一斤當)

一等	二等	三等
(十)〇錢二〇	(十)〇錢一五	基準

○玄米銘柄間의格差(一石當)

銘柄	等級	格差	摘要
銀坊主	四	(一)一五錢	
銀坊主	四	基準	七〇錢格上
穀良都	四	(十)二圓五	一月一日부터十月末日까지는(十)
錦	四	(十)二、一五	
豐玉	四	(十)、五〇	五〇錢格上
多摩錦	四	(十)、五〇	
銀坊主	四	基準	一〇〇錢格上
瑞光	四	(十)、二四	
穀良都	四	(十)、七〇	
錦	四	(十)二、四六	
	四	(十)二、一六	一月一日부터十月末日까지는(十)

○玄米等級間의格差(一石當)

一等	二等	三等	四等	五等
(十)三〇錢	(十)四〇錢	(十)一三〇錢	基準	(一)三〇錢

손수건팔어서 災民에同情
永興長老會女傳道會

【永興】 함남영흥(永興)야소교장로회 청년여전도회에서는 남조선한재리재민들이 어려지에 멸고잇슴을 눈물흘려 동정한남어지 회원들의정성으로 지난『크리쓰마스』를전후하여『손수건』을 만히만들어 그것을 일반유지를 방문하여팔엇다는데 그들의 취지에 동정하여마지안는 일반은 감격하여 마지안는다고한다

遊仙金日龍氏獻金

【遊仙】 함북회령군보을면유선시(會寧郡甫乙面遊仙市)에서 면포상을 경영하는 김일룡(金日龍)씨는 비상시국에 처한 총후국민으로써 연말연시 향응을 절약하여 일금 십원을 국방헌금으로 지난연말에 동회대표 김국원(金國元)씨의 손을 거쳐 본보영흥지국을 통하여 수속하엿다는데 일반은 그의정성에 감사한다고한다

船車馬

택시의 승객거절로 상도의가두에 조치못한 문제가빈발하므로 이문제를 업새기 위하여 대판부교통과에서는 일월일일부터 가는방향을분명히한 입고표시판(入庫標示板)을 각택시에 부치기로되엇는바 ▲표시판은 푸른바탕에 흰글자로 갈방향을쓰고 입고(入庫)는 빨간글짜로쓰게되엇다는바 그파에서지시한방면 지명은다음파가트며 입고시간삼십분전에 표시판을반드시걸기로 되엇는바 ▲만일주차장에서 무표시차로 승객을거절할때는 사업주의 영업정지나 또는운전수의 취업정지를 시키기로되엇다 ▲標示方面 築港 市岡 九條 新町 泉尾 難波 芹原 今宮 戎 天王寺 阿部野 平野 鶴橋 今里(中本) 玉造 天滿 住吉 今福 網島 島之內 曾根崎 中津 十三橋 長柄(柴島) 春日出(朝日橋) 大和田 福島 新世界 玉出 東野田 北野 梅田 森宮 千日前 日本一 大槻 櫻島 赤川 北島(大阪)

米穀販賣公定價
忠南道서告示로發表

【忠南支社發】 미곡판매가격을통제키위한 조선미곡배급통제조령의 제정에따른 충남도내의미곡판매가격은 지난연말에 충청남도고시 제백육십일호로써 다음과가치 공정가격을 정하고각군수, 경찰서장에게 통첩을 발부하여 금번에 제정한가격을시행치안는자를 철저히 취체해서 적정을 기하기로되엇다

米穀價格

場所別	籾販賣價格(一斤當)	七分搗白米小賣價格(一石當)
大田府	三錢三五	圓
公州郡公州邑	三、[illegible]	四、[illegible]
扶餘郡扶餘面		四、[illegible]
保寧郡大川面	三、[illegible]	四、[illegible]
靑陽郡靑陽面	三、一	四、[illegible]
洪城郡洪州面	三、〇	四、[illegible]

라디오

四日(木)

▲午後六時 兒童劇『어린이의四時』 梅香童謠團 作·[illegible] 演·[illegible]

▲同六時三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五分 講演 新年展望 (一)滿洲國名勝紹介 金鍾洙

▲同六時四五分 講演 新年展望 (二)朝鮮文化社長 徐椿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大衆演藝의밤

▲同七時二〇分 新作才談『이시렴』…金元浩 [illegible]

▲同七時五〇分 新民謠 一、天…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童話劇 ▲同七…

五日(金)

▲午前七時五〇分 宮城遙拜

▲同 (東)라디오體操

▲同一一時五〇分 氣象通報

▲正午 (東)時報 오늘아츰뉴-스

▲午後零時五分 고사곳 … 鋼 龍 …

▲同零時三〇分 뉴-스

▲同一時 레코-드·콘서-트

▲同四時 뉴-스

▲同六時 장으音樂會 一、피아노獨奏 1、軍隊行進曲 …

▲同六時三〇分 講演 新年展望 (四) 徐廷稙

▲同七時三〇分 소프라노獨唱 一、勿忘草 …

▲同七時五〇分 玄琴散調와併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入道遊戲歌 나、唱 李慶熙

▲同八時三〇分 라디오小說『서울』—方仁根作—李慶熙(?)

▲同九時 管絃樂 未完成交響曲 …

▲同九時三〇分 뉴-스解說

▲同九時四〇分(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一〇分 레코-드音樂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城)時報 ▲同一時(東)新年兒童大會 ▲同六時(大)스켓지 ▲同六時二五分(東)講演 ▲同七時三〇分(東)鄕臺中 ▲同八時四〇分(大)竹本大夫

三國志 【58】
韓龍雲 譯 熊超 畵

曹操의復讐戰(八)

현덕이 말하되

『원소는 지체가 高貴하고 천하가 부맛는바라 근래에 수춘(壽春)에 잇스니 어찌원소에게 사양하지 안느뇨』

공융이 말하되

『원소는 무덤가온데 마른 뼈다귀라 족키 말할것이 업고 오늘의일은 하늘이 주는것이니 밧지아니하면 뒤에 뉘우칠이 잇스리란』

현덕이 구지 사양하여 허락지 아니하니 도겸이 울면서 고하되

『그대가 나를바리고 가면 나는 죽어도 눈을감지 못하리로다』

운장이 나서며

『도공이 이대지 사양하니 형은 아직 권도로 서주를 마트소서』

하여 현덕을 권하고 장비가 또 권하되

『우리가 억지로 서주를 마트려는것이 아니오 저편에서 조호으로 사양함이어늘 어찌 반드시 괴롭게 사양하리오』

현덕은 『너의가 나를 의아닌곳에 빠치고자 하느냐』

공융이오 도겸이가 어떠번사양하되 마침내 밧지안는지라 도겸이 말하되

『현덕이 반드시 좃지아니할진데 여기서 가까운곳에 소패(小沛)라는 고을이 잇서서 족키군사를 주둔할만하니 청컨데 현덕은 잠깐 군사를 그곳에 머물러서 서주를 보호하여 어떠하뇨』

여러사람이 또한 현덕을권하여 소패에 머물르게하여 현덕이 마지못하여 조차섯다.

도겸이 호군을 마치매 조자룡이 사례하고갈새 현덕이 손을잡고 눈물을흘리며 이별하엿다 공융파 전해도 각각 이별하고군사를 거느려 돌아갓다

현덕은 관장으로 더부러 본부인마를 거느리고 소패에 이르러 성파집을 수리하고 백성들을 잘 일께엇다.

조조가 군사를거느려 돌아오매 조인이 여포의 형세가 크고 다시 진궁이잇서서 도으므로, 연주를 이미일코 견성 동아 범현 세곳은 순욱파 정욱의 계교로 아직 지탱함을 알하니 조조가 말하되

『내가 생각건대 여포는 용맹은 잇스나 꾀가업스니 족키 염려할것이 업는지라 진치기를 마치고 다시 상의하리라』

여포가 조조가 군사를 도리켜 이미 등현(藤縣)을 지나믈 듯고 부장 설란(薛蘭)과 이봉(李封)을불러 말하되

『내가 너의 두사람을 쓰고자한지가 오랜지라 너의는 군사일만을 거느리고 연주를굿게지키라 나는 스스로 군사를거느리고 조조를 파하리란』

두사람이 응락하더니 진궁이 급피들어와 여포에게 말하되

『장군이 연주를 바리고 어디로가라 하느뇨』

『나는 밧양에 둔치고서 솟발가튼 형세를 짓고자 하노라』

『그러치 아니하니 설란이 반드시 연주를 지키지 못할지라 여기서 정남으로 일백팔십리를가면 태산의 길이 험하니 가히 정병일만을 매복할지라 조조의군사가 연주를일흠을 듯고 반드시 길을 배나겁어서 나올지니 그곳에 바쯤지날때에 치면 대번에 사로잡으리란』

여포가 진궁의말을 듯지안코

『내가 밧양에 둔치면 별로 조흔피가 잇슬지니 네가 어찌알리오』

설란으로 연주를 지키게하고 떠낫다.

조조의 군사가 행하여 태산의 험한곳에 이르매 곽가가말하되

『이곳에 복병이잇슬까 두려우니 아직 나가지마소서』

조조가 우스며

『여포는 꾀가업는 무리라 설란으로 연주를 지키게하고 스스로 밧양에가니 어찌 이곳에 복병이 잇스리오 조인으로 군사를 거느려 연주를 에우게하고 나는 군사를 밧양으로 나아가 속키 여포를 치리라』

진궁이 조조의군사가 가까이오믈 듯고 여포에게 계교를 들이되

『이제 조조의군사가 멀리와서 피곤할지니 속키 싸우는것이 이로울것이오 느추어서 기력을 기르게함이 올치못하리란』

『내가 한필말로 천하를 주름잡거늘 어찌 조조를 근심하리오 진치기를 기다려서 내가스스로 사로잡으리란』

조조가 밧양에 가까이오매 진을치고 이튼날에 여러장수로 더부러 군사를 들에 진치고 조조가 문에 나서서 멀리 여포의 군사가 오는것을 바라본즉 진이 둥근곳에 여포가 압서나오고 양편에 여덟장수가 버렷스니 첫째는 안문마읍(雁門馬邑)사람장요(張遼)자는 문원(文遠)이오 둘째는태산화음 사람장패(臧霸)자는 선고(宣高)라 두장수가 또한 여섯장수를 거느렷스니 여섯장수는 학맹(郝萌) 조성(曹性) 성염(成廉) 위속(魏續) 송헌(宋憲) 후성(侯成)이니 군사 오만을 펴고 북소리를크게울리엇다.

◎創立三十八週年 新學期開講48回

名實共히 日本一의 本會講義錄으로 데우라!!

明治神宮神域近處通信教育의 大殿堂本會新事務所落成함

大日本國民中學會

監督官廳表彰拜受

大特典提供

中學講義錄 女學講義錄

講義見本進呈

東京·代々木(明治神宮新參道) 大日本國民中學會 電話四谷(35)

滿洲開拓民小說

大地의아들 (58)

李箕永 作
崔木朗 畫

穀心（十一）

왜『그럼 이러니?』
덕성이는 하다몰에 쫓겨가서 가쁜숨을 헐덕이다가 간신히숨을돌리고 물어보든 말이엇다。
그들은 덕성이가 오는줄도 머르고 정신없이 도잡이를하는판이다 먼저 복술이가 덕성이를 알아보고 엉큼엉큼 치든다 그는덕성이를 보자 마치사지에 서구원의길을 어든사람처럼 반갑게 아른체를 한다。
『이자식이 엉청하게 남을속이고 돈을 떼먹엇단다。 어서돈내놔라 늬아버지 한테일느기전에……』
황식이는 독바게 덕성이가 선것을보자가 승이 또등햇다。그는반지사건이 드러나면 제모양부러 수둥하것이 창피해서 얼는 이러케 입기웅변으로 둘러대엿다。
그러나 복술이은 황식의 이런 꾀에 너머가지는안햇다。
『속이긴 누가 속어?그러키로 말노면 네가 먼저 누구를꾀이라드나?』
하고 그도 마주 역습을하며대든다。
『이자식아 꾀이긴 누가 꾈꾀엿서? 그러면 누가고지듯을솔일꾸』
『니가 그래 절대 안꾀엿서? 내가 저녁먹구 나오니까 늬집 담모퉁이로 불러가지고 정탐해달라구 날꾀이지 안헛서!그래두 안꾀엿대?』
복술이는 새기운이나서 이러케서둘며 종주먹을댄다。
『이자식아 정탐은 무슨정탐이야! 그자식참 인제보니께 사람구치겟네』
『네야말로 사람구치겟다ㅡ제입으로 그러구서 안그랫다는것만보아! 네말을 들어주면 돈두주구 담배두 사준다구 한건 그럼어떤개자식이한소립데?』
『뭐시어째?! 이자식아 돈을 언제주댓서?』
『안주댓서?』
황식이는 복술이를 그냥두엇다가는 점점제밋구멍이 드러날것가태서 주둥이를 못놀리도록 주먹다짐을 시작햇다 그러나 그것은마치 소리나는북을 친는것가치 복술이 입에서는 그대로 말이나오는다。
『이자식아! 왜때려! 그럼 그게그짓말뭐이갑!』
『그짓말이지뭐냐 너처럼 누가 그짓말 하는줄안다드냐』
『아따 고만둬…왜때려! 이자식아ㅡ!』
그들이마주부러서 다시 손찌검을하는것을 덕성이가 대듬어서 뜨더말렷다。그는 벌써 귀순이한테 앞일말을 다들으만큼 황식이가 가증스럽워서 한대 갈기고 사윗스나、아직참고 동정을 보앗다。
『애들아 이러케 순진한게아니라 잘된것을 떼저보면 되지안니? 복술이、넌 그래 무엇속여다는거냐?』
『그까진 자식 한 … 면 바른대로 말할을 알구 밧낫그지일을이데』
황식이는 성이나서 식식하며 복술이에게 눈을 흘긴다。그것은 네가 비밀을 말햇다가는 이담에 경칠테니 알아 차리라는 경고가엇다。그러나 복술이는그런줄 알고도 마수 눈을 흘기며 힘써 독특한 발음을한다。
『난 저애를 속인건 반지 사온다구 돈주것밧게 업다』
『이자식아、반지를 누가 사오랫서? 네입으로 사잔게진』
황식이는 열이치바처서 다시 주먹을 쥐고 대드는것을 덕성이가 떠다밀엇다。
『니가 먼저 나를 꾀송꾀송하길네 나는 돈을 준다는바람에 그런것안야ㅡ반지를 사다주면 귀순이ㅏ 조하할께라구……』
『아……그말을 누가그랫서ㅡ네가먼저햇지 여러말말구 이자식아! 당장 돈내놔』
『글세 그말은내가 햇지만 네가 먼저 꾀엿스니까 햇지 내가뭐、공연이 먼저 그말을햇서?ㅡ돈삼원 그까진거 가푸면 고만이지』
『어째 이자식아 삼원야!삼원오십전이지』
『오십전은 너 심부름짓으로 거저 주거안야!』
『저런…엉청한 도적놈의 자식!』
황식이는 분한대로하면 그를 늘신하게 패주고 시프나 덕성이가 여페잇슬뿐아니라 제죄도 드러나기때문에 켱겨서 못하엿다 덕성이는 그들의 대화를듯고보니 실그머니 부아가 나는것이엇다。그들의 충동은 까닭업시 자기와귀순이를 결국끼워노코 하지안는가。
『에기 드러운 색기들 할일이 업거든가서낫잠이나 자라구』
덕성이는 두사람을 양쪽손으로 휘여잡고 저만침 떠다 끈젓다。
『뭐시 어째?ㅡ네가 무슨상판이냐?』
황식이는 덕성이한테 겸모를 당한것이 분하엿다。그는 얼굴이 새빨애서 달려든당 그러는것을 덕성이는 고만보기조케 귀쌈을 한대 갈기엇다。
『이새끼야 어째 상관안니냐ㅡ늬들이 지금 뭐때문에 싸우는데!』
황식이는 한샘을 더먹엇스나 힘으로는 덕성이를 못당한다。그러나 그보다도 그는 자기깐에 기가 눌려서 다시 덤빌용기가 업섯다。

求禮

求禮弘濟院長 金澤均

求禮郵便所長 鹽足英

求禮 千代田生命保險會社外交員 韓宗述

求禮邑內 安一善

求禮邑內 求禮酒造合名會社 代表社員 金鍾弼 支配人 金成均 電話七番

求禮郡廳 電話四番

全南求禮邑 求禮百貨店 電話二一番 振替釜山三三二〇番 吳約瑟 金亨柱

求禮邑內 三和屋 和信連鎖店 安寅吉 電話八番

求禮警察署 電話一八番

求禮郡光義面 金奉完

全羅線求禮口驛前 鐵道貨物取扱 (明)日月運送店 電話求禮三三番 鮮松丸太、角材、薪炭 木材部

求禮郡土旨面 朴炳現

求禮邑內 安在鉷

求禮產業組合 電話一七番

每日新報社求禮支局長 高在涓 電話六番

求禮郡 初等學校職員一同

智異山 大本山 華嚴寺

智異山 泉隱寺

山洞山茱萸出荷組合

求禮邑內 有隣醫院長 金安植 電話一六番

求禮面 朴仍圭

院村市 山洞酒造場 尹昌舜

求禮邑內 明月館 郭永九

全羅線求禮口驛前 宣東基材木店

求禮郡光義面 放光堤工事場 坂本吉三郎

光州竹內組求禮出張所 足利智壽

求禮邑內 安芳善

求禮郡光義面 金龍國

大陸自動車求禮營業所 藤原榮二 電話十八番

求禮邑內 求禮醫院長 申鎭雨

玄米、白米、精麥、製粉 光義精米所 金貴善

求禮郡山洞面 李丞浩

賀正

求禮邑 金哲洋服店 金相喆

求禮郡光義面 漢醫 [illegible]文玉

無名氏

光義面職員一同

院村市 共信堂藥房 中央旅館 朴準成

求禮邑內 吉永製材所

求禮邑內 弘濟藥院 高吉泰

求禮郡艮文面 金澤瑾

求禮邑內 廣信商會 朴正來

求禮郡艮文面 高炯龍

求禮邑內 金光寫眞館 咸泰柱

求禮郡艮文面 韓東錫

求禮邑內 麗水菓子店 郭淇鎭

求禮 無名氏

求禮郡土旨面 朴萬祚

求禮郡土旨面 燕谷寺 主持 蘇東善

求禮郡土旨面 協議員 李判文

求禮郡土旨面 協議員 林再烈

求禮郡馬山面 許煥

求禮郡光義面 金完斗

求禮郡光義面 李康燕

全南求禮邑 米穀、肥料、海產物、委託販賣 金垠成商店

求禮邑內三神堂藥房 趙宗烈

智異山華嚴寺境內 大華漆器製作所 金守日

求禮華嚴寺境內 材木商 朴炯勤

求禮邑內 芝圃醫院 朴洙彬

南鮮合同電氣會社 求禮出張所 藤田傳市

求禮製材所 鞠梧鉉

求禮邑內 有隣堂藥房 金元吉

求禮邑 樂園莊 金度文

求禮邑內 金英淵

求禮邑內 柳子儀

求禮邑內 金英澈

求禮邑內 三明商會 東興木工場

求禮邑內 日中商會 姜大寅

求禮邑內 食料品、雜貨 우리商店 李鍾泰 電話三五番

求禮邑內 成功堂時計舖 姜永豐

求禮面職員一同

艮文面職員一同

土旨面職員一同

馬山面職員一同

龍方面職員一同

山洞面職員一同

求禮金融組合

求禮郡山洞面 朴炳一

求禮郡山洞面 韓福洙

大本山華嚴本末 求禮邑布敎所 吳炅昊

求禮金組院村支所 職員一同

全羅線求禮口驛 職員一同

全羅線求禮口驛前 新月蔬菜組合

求禮齒科醫院長 金東垠

全南求禮邑內 求禮共信酒造場 安寶寅

求禮邑內 新興自轉車舖 黃三奉

全羅線求禮口驛前 朝鮮運送代行營業所 代表者 林奉實

全羅線求禮口驛前 (リ)運送店

全羅線求禮口驛前 鮮松原木及角材一式 井上商店

求禮印刷所 應世堂印舖 鄭路錫 電話三三番 私書函五號

求禮郡山洞面 金正基

求禮郡山洞面 姜太模

求禮郡山洞面 李起永

求禮郡山洞面 材木商 金重赫

求禮郡山洞面 梁一梓

求禮邑內 鳳城洋服店 鄭大模

求禮邑內 古物商 卞參鳳

無名氏

無名氏

求禮郡光義面 林宗來

求禮邑內 東京洋服店 金錦九

求禮郡馬山面 韓埛錫

新高山

京元線高山驛前 新高山和信連鎖店

京元線高山驛前 三菱鐵嶺鑛山 劉鍾賢

朝鮮京元線高山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高山代行營業所 高山運送合同株式會社

京元線高山驛前 高級洋服 東亞洋服店

新高山 天主敎神父 俞順和

京元線高山驛前 衛一旅館

京元線新高山驛前 和洋雜貨酒類問屋 高興商店 主 具增談 具采談

京元線新高山 農業 姜興齊

京元線高山驛前 新高山釀造所

京元線高山驛前 穀物貿易精米肥料 新豐商會 北鮮米油株式會社代理店

京元線高山驛前 金山商會

京元線高山驛前 平和商店 主 金義龍

京元線高山驛前 同昌精米所

京元線高山驛前 崔昌稙商店

京元線高山驛前 新高山木材店 主 崔聖浩

京元線高山驛前 穀物貿易商 大成商會 李承熙

京元線高山驛前 大陸木材商會 李哉朝 石道敬

京元線高山驛前 農業 魏楨龍

安邊郡衛益面 職員一同

京釜線高山驛前 一色寫眞館 主 金昶善

京元線高山驛前 公醫 道醫 林炳日 齒科醫 金彩鳳

京元線高山驛前 和洋雜貨 新益商店 主 崔[illegible]鉉

京元線新高山 料理 [illegible]江春 主 嚴[illegible]順

咸南新高山 料理 松興樓

京元線高山驛前 海月食堂 主 金海植

新高山郵便所 所長 山崎保衛

新高山山里 [illegible] 金鳳舜

京元線高山驛前 和洋菓子製造商 秋東燁

京元線新高山 司法書士 金在祺

京元線高山驛前 金昇玉商店

京元線高山驛前 順必昌鑄物工場

京元線高山驛前 牛島商店 主 康炳植

京元線高山驛前 朴光鎭商店

京元線高山驛前 和洋菓子製造商 興仁菓子店 主 張祥來

京元線高山驛前 興盛木材店 主 崔秉煥

京元線高山驛前 食料品問屋 中光商店

京元線高山驛前 明心旅館 主 全應祚

京元線高山驛前 東逸時計店 主 金景昊

京元線高山驛前 百貨食料品 藥種代理店 德興商店 主 金應善

京元線高山驛前 乾材藥局 杏林局 主 南炳烈

京元線高山驛前 和洋雜貨 三和商店 主 金晉淑

京元線高山驛前 荷主本位 (玉)高山運輸組

京元線高山驛前 (興)荷主運送株式會社

新高山印刷所 鄭道洽

咸南新高山 料理 平壤館

京元線高山驛前 料理 榮華樓 主 田立[illegible]

京元線高山驛前 大星時計店 主 朴[illegible]

新高山 益元商會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五

強力的輔導機關과 金融機關施設이 急先務

② 上海 金環載

그들은 支那事變後에 滿洲에서 或은 朝鮮안에서 겨우 旅費만 갓고 勇敢히 投身한사람이다。그들의 생각은 戰爭으로하여 秩序가 紊亂된 機會를利用하여 돈버리하겟다는것이니 거기에 義理가 잇슬理업고, 廉恥나 禮節이 잇슬까닭이 업다。그러한 무리가 多數羣자지하고 잇스니 집을얻어도 세를 내지 안코, 旅舘에서는 外上밥 먹고, 飮食집에서는 外上술먹고, 남의것빼기, 詐欺狹雜이 일수이니 여기에서 問題가 頻多해지고 警察署의 留置場에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朝鮮人이滿員이된다。이것이 어찌 朝鮮人뿐이리요 內地人에도 그러類가 업지안흐나 사람의 數에比하여 朝鮮人은 엄청나게만흐니 痛嘆하게된다。셋째는 極少數의人이건만 中國에와서 오래된사람中에 形勢觀望派가잇스니 自己는 勇氣가업서 奧地에가서 行動하지는못하면서 過去의 殘滓는그대로남어잇서 이제나 時局의變換이올까, 저제나 大動亂이일까 그때까지 袖手傍觀하자는 一群이잇스니 自己는 가장 怜悧한체하나 그實은 左나右間에 勇氣가업는 生活鬪爭力도차자볼수가장 可憐하고 알미운存在다。卑劣하고 暴慢한性格의 所有者이며 個人生活을 分析하면 經濟的으로는 赤貧이요 社會的으로는孤立이기에 구차하게 싸움이만코 明朗하지못한人間에 妄覺과疑心만만허서 서로헐고 (中傷)드키에 結束이못되고 그우에 日本當局者에게도 秋波를 보내고中國當局者에게도 아첨하게되니그들은二重, 明暗의生活을 하게되어서妖婦의態를免치못한다。이러케 세가지로區分하고볼때에·그어느것이나 大勢를沒却한 까닭이다。支那事變이 侵略戰이아니요 東亞에新秩序를 創造하러는데에 王道義가 잇는것이요 따라서 道義世界를創建하여서人類를 苦亂의구렁에서 救援하자는것이니 滿洲建國은 그의第一階段이요 支那事變은 그의第二階段이다。그리하여 東亞에 理想世界가 漸次로完成될따라서 다시 近隣에그光輝가빠치어 드디어는世界에 波及하고야말것이어다。그러므로 滿洲事變에서 支那事變에 또는將來에이르는 日本을 盟主로하는 東亞聯邦에이르기까지 그는決코 資本主義的侵略이아니요 權利와義務를 人間生活의基調로하는 自由主義的國家關係도아니다。道義社會, 理想國家, 王道樂土의實現은 歷史가 命令하는 最高의理想이요 人類가 오래동안 渴望하든 樂園이다。

輔導機關設置急務

이러케 亂雜하고 無秩序 無組織의 狀態下에잇는 半島同胞를 어떠케輔導할것인가 그들의 時急한 要望이무엇일가。그들은 구차하여 生活戰에쫏기여서 中南支에 流浪하는 群衆이라 그들에게는 統制와組織이업스며 社會的制裁가 업스니 그들의思想的 傾向은 極端의個人主義的이요 利己主義이며 그들의個人的行爲는 極端의 墮落者이다。그들에게 社會的訓練을 주며 生活에 定着케하려면 强力的인 統制機關의 存在가必要하며 金融機關의 施設이 急先務이다。집씨生活과 다름업는우리는 物質的生活에는 그리조율니지안는다드래도 精神的方面에 이르러서는 全然히 零이다。여기에서 信仰問題와함께 職業的輔導乃至 精神生活에의 誘導問題가 큰問題이다。

첫째는 敎育機關의 設置이니 子女의 敎育問題와함께 成人敎育問題도크다。우리가 植民地의 搾取를 目標로하고 나오는 資本主義의 前衛隊의 氣質로써 掠奪生活을 夢想한다는것은 聖戰의 意義를 沒却하는 者이요 創建되고 잇는 東亞新秩序建設에 害毒을끼치게된다。그러므로 北支나 中南支를 비롯하여 滿洲에서살려면 地勵의 벼치 要하고 政權者가새사람이라는것만을 아러야할것이아니고 눈으로되이지안는 立國의基本精神이 道義國이라는것을 確實히認識하여야하며 따라서 國家의諸型態우에 顯現되고잇는 諸事實、諸現狀에도 그基本精神에 立脚하여잇다는것을 이제부터라도 배워야한다。하마리의고기가 湖水를 흐리(濁)게하거든 하물며 大部分의同胞가 그릇된 意圖下에서 行動하고잇스니 少數의 正當한 사람이잇다기로니 現在支那에서 印像되여진 不名譽를 씻(洒洗)기가困難하다。어찌그뿐이랴 子女의敎育機關이란 우리를相對로한것은 一個校도업스니 或은內地兒童과 共學하고、또는 中國人이나 西洋人學校에 在學하는者도잇다。그러므로 그들의子女는「朝鮮」이나 朝鮮文을모르며 中語나 英語는 對話도하고 읽기도하며 쓰기도한다。家庭에드러가보면 傳統이나 統一된文化의 벼치보이지안코 各國에서 모여든 鑛山地帶의村落을 보는感이잇다 國民敎育上 決코재然히볼問題가아니요 成人層에잇서서도 無組織、無秩序한生活로 時代意識에 沒理解하여 墮落者의生活에 侵略者의氣分만으로 善隣을害치는 旣成國民을 언제나 放任할수업을것이다。

둘째 그들은 阿片장사를한다는지 그들로하여금 正當한職業을 求케하고 正當한生活을하도록길을여러주어야겟다。그리하려면무엇보다 急한것은 金融機關의施設이다。滿洲國에 이미設置되어잇는 金融會를 여기에도 設置하되 都市金融組合에準하고 運用에잇서서는 [illegible]이업스니 二十人이나 十數人에게 共同責任을지우고 [illegible]하도록할것이다。이點에잇서 特히 朝鮮總督府의 考慮를促한다。

셋째는 그들의[illegible]이니 各[illegible]市에 朝鮮[illegible]府의 [illegible]員이잇고 居留民會가잇서 그役割을하고잇스나 現地에 旣存한 [illegible]의 關係커든 [illegible]關係等으로하여 그가 活潑히 展開되지못한다。[illegible]不正業者[illegible]을보드라도 어떠가지의 [illegible]이잇다。取[illegible]하기는 比較的容易할지나 그代身에 그들에게 다른職業을갓도록 現實어나 周旋을주어야한다。만일에 그도 저도아무것도아니되는때에는 生活의威脅은 오고 生活의길은 업스니보다 더큰犯罪를犯하게되나니 그는 社會政策으로보아도 取할바가아니다。滿洲에서는 各種協和會으로 不正業者[illegible]委員會를 設하고 滿鮮拓殖會社가 出資하여 [illegible]의便宜를 주어거니와 中南支에서 [illegible]不可能한일이니 여기에 難關이잇다。

그러니 當局者로서는 善良한사람을 붓드러 이르키여서 그에게 指導力을주고 自治形態에서나오는 自肅自戒運動을 이르키고 正當한職業을 가질수잇도록 職業의門戶도 開放하여야겟다。從來에잇서 우리에게는 資本도업고 技術이나 經驗이업섯슴도 否認못할事實이나 어느程度까지는 職業의門戶가 均等하게 開放되여잇지안흠도 또한事實이다。國內의同胞는 一層支那方面에 流浪하는同胞와 아울러 支那의經濟的活動에 關心을가저야겟고 當局者로서는 一層輔導[illegible]을 아끼지안해야겟다。

新中央政權樹立과 朝鮮人에對한影響

누가 中央政權의首班이될가。汪精衛일가。그것은 別問題로하고 멀지안어서 中央政權이 樹立될것만은 確實한事實이니 그後에 同胞의 生活에 波及하는 影響은 어떨가

새로이일우워지는 中國의中央政權은 滿洲國과는 [illegible]를 달리할것이다 왜그러나하면 滿洲國은 民族協和의 國家이기에 滿洲國領土안에 居住하는者는 民族의如何를不問하고 滿洲國의 國民으로써 平等한權利와 義務의行使를하게된다 그러므로 滿洲에서는 日本國民 (內地人이나 朝鮮人)은 官吏도될수잇고 協和會의會員으로 全國聯合協議會에 代表로選出되여서 國政을 論議할수가잇다 그러나 中國의 新中央政權은 漢民族이란 單一民族으로 構成될것이요 따라서 日本國民(內鮮人)은 最好의友誼國民은될지언정 中國의構成民族은안될것이다 여기에 滿洲國과 中國의新中央政權하고는 스사로 差異가잇나니 滿洲國은 混合民族으로構成된 民族協和의國家이므로 우리가 滿洲에사는때에는 우리의나라이요 우리의政府이건만 中國의新形態는 單數民族의 國家이니 따라서 가장 善隣인 日本國民은 政治나 技術方面에잇서 招聘은바들지언정 正規의 官吏가된다거나 또는 政治에干與하여 國民的主張을갓게는되지안흘것이다

여기에서 日本國民인 朝鮮人은 中國의 健全한 發展을 爲하여 十分의援助와 協力을 하여야할지나 亦是中國의 國民的權利나 義務는 아니다 [illegible] 支那에서 活動하는 [illegible] 十二分의 [illegible]가必要하게된다。그러면 新中國의 政治形態는 어떠한것이가하면 일찌기 近衛首相이 明示하엿는바이니 여기에 擧論이 必要치안흘것이며 上海[illegible] 一角에서 [illegible]하고잇는 汪精衛派와 그의[illegible]와 將來하려는 新中國의[illegible] 主人公이될가 여기에는 [illegible] 內外的條件이잇서 누구나 明言키 困難할것이다。그러나 여기에서 確實히明言할수잇는것은 汪兆銘이 偉人이라는것이다。蔣介石이는 [illegible]이요 [illegible]이고 小刀細工에 能하고 反復無常하다고보면 그는[illegible]이다。蔣介石보다 單한點이라도, 더치고시픈것이 汪兆銘의 人格이니 그는 眞心으로 中國을사랑하고 中國民族을 근심하며 그러고 政治[illegible]려는者이다 어것은 最近의汪兆銘을아는者는 그의苦衷을알것어요 그어려운 環境과 現實에서能히 自己의信念을굽히고 自己의觀點은 明白히하여 明暗을 區別하고 갈길을 찾는다。길일흔 羊에게 善한 牧者의 存在는 眞實로 貴하고 거룩하다할것이다。現在의中國에잇서서 만일에 汪兆銘과가튼 大담한政治家어요 眞實한人格者가 업섯다면 中國의 混迷한狀態는 더욱收拾키 困難햇슬것이요 不幸은 東洋의 各民族에 共通하다할지라도 輕重의差에잇서 四億의中國大衆이 一層苦痛에서버서나는길이업섯슬것이다。—(完)—

大陸在留現地同胞의絶叫

焦眉의緊急問題

中等學校의設置

新京 鄭鎭弼

오늘날우리들이 따로이것을提起하여 그實情을 論하고 當面한바, 緊急解決을 要하는 在滿朝鮮人教育問題라는것은 在滿朝鮮人子弟의 學校敎育에關한問題인것을 미리鮮明히하고 들어갈必要가잇다

지금생각하면 좀異常도하지만 合倂直後에는〃朝鮮人을 敎育할것인가 안할것인가〃가 當時朝鮮敎育論의繁爭點이던때도잇섯다 그러나時代는바뀌어 今日에는 우리들에게 가장常識化하고 異議업는것이 卽學校敎育의 絶對必要라는것쯤되어잇다

그리하여 在滿百餘萬 同胞들間에도 在滿朝鮮人敎育問題가熱烈히 討議되고 支持되고 實行에 옮겨지고잇는것이다

政治의基底는敎育

滿洲國은 新東亞建設의 先達國인同時에方今世界에 그類例가 업는 道義國家의創設과 民族協和를 實現함으로써 建國目的達成을期하고 全國民이 꿀을向하여 邁進하고잇는中이다 歷史的 情勢를가지고 움지기는 國家가아니라 絶對로새로운 理想을가지고 成長을 마지안허야만 될國家인것이다 우리는 建國以來適正한 政治를通하여 着着그目的을達成하고잇는中이니 現代政治의 基底가 敎育에잇고 吾人社會生活의 根底가敎育에잇는것을 아는 우리가 어찌敎育을가지고 우리의大業成就의 根本을삼지 안흘수잇겟느냐 그럼으로 滿洲國政府는 그適否가 直接國家의 將來에影響을 끼치는것과 滿洲國이 複合民族으로된點等을 考慮하여 建國後의 最重要한事業을 敎育制度의 確立으로 認定하고 鋭意努力을 繼續하여 敎育方針을 樹立하고 學校敎育要綱을作成하고 이에即하는 學制改革을 斷行하고잇슴은 一言으로써 建國精神 그대로의 表現인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過去의 滿洲開發에對한 功績을 誇示할배 아니나 度外視할수업는것이며 現在情勢下에 國家가 要求하는바 朝鮮人의義務는크며 바야흐로 進展하는時局은 在滿朝鮮人의 國家貢獻에 對한 自覺을납도록 膨脹하게한다 따라서 이들朝鮮人子弟에게對하여 나아갈바 大義를 밝혀주고 旺盛한國民精神을 涵養시키는同時에 生活安定에 必要한知識을, 授與함으로써 忠良健全한 國民의 一員이되게하여 그責任을다하게할 敎育이 絶對必要한것은여기贅言이 不必要할가한다

開拓民再訓練必要

朝鮮과 滿洲當局間에 開拓民問題에 關한 이야기가나면 흔히滿洲國當局으로부터 開拓民의 選擇을 愼重히하여 그質的向上을 希望한다는 意見이 提起된다 그런데 이問題의 發生은即 現在의 朝鮮 開拓民의 質에不滿한點이 잇다는것을 意味한다고 볼수잇는바 이것은 勿論朝鮮側의 善處를 바랄수잇기는하지만 實際에잇서서는 亦是 朝鮮側으로서의 特殊事情도 잇슬것이며 滿洲國가튼 新興國家의 特色은 人民을 積極的으로 歡迎하고 扶植하는것을 本是로하고 그成果를 明日에 期待하는터잇다 할수잇스니 우리는 나아가서 이들開拓民을 指導하고 再訓練을 加하는同時에 明日의 中堅人民인 이들의子弟의 敎育을 完成하여야할것이다

오늘날 在滿朝鮮人 生活에잇서서 가장矛盾되고 不便을느끼는것 가운데는 國語를理解치못하는 까닭으로因한 大問題가伏在해잇다 어것만은 그子弟의敎育以外의 方法으로는 解決을못할것이며 또在滿朝鮮人中에는 이때까지 民籍도업섯고或은 아직도업는者가 大多數이란 事實을 考慮하면 實로敎育問題解決은 焦急의性質임을알수잇다 舊軍閥時代에 國家의 恩澤을 直接感得하여오지못한 在滿朝鮮人으로하여금新國家에對하여感謝의念을 抱持하게하는것은 오직 어린이에게 敎育을徹底實施할것이라고 생각되며 民族協和實現의 基礎精神이 여기잇슴가 생각된다。

朝鮮人敎育狀況

이때것의 在滿朝鮮人 敎育이라면 初等敎育이 그全體이엇다 移住五六十年 歷史에 어느뜻百萬을 算하게된 在滿朝鮮人은歐洲大戰以後의 東洋情勢의 轉變에 따라서 漸次敎育文化에對한 關心이 旺盛하여지고 그後總督府 滿鐵等의 補助로 全滿到處 朝鮮人[illegible] 設立되엇다

그리하여 昭和十一年 現在在滿朝鮮人 敎育狀況을보면

初等學校(書堂을包含)는七二一校 生徒數 六七、九七七人

中等學校 八校 一、六五一人

幼稚園 二七校 一、一三六人

夜學校 一九校 八五〇人

[illegible]學校入學者 三、七八三人

其外에在滿日本內地人學校入學者 一、〇二三人

을合하여 就學者計七六、四一九人을 算하고잇다 右總計中에서 小學校生徒數는 日本內地人學校及 [illegible]學校 在學者를全部小學生으로 算하여도 七二、七六二人밧게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學齡兒童 一五三、七二一人에 比例하여보면 就學率은 四七·三 퍼센트인것을 알수잇다

그러면 우리朝鮮人初等敎育機關은 어떠한가

治外法權의 撤廢와 함께在滿朝鮮人敎育이民生部에 委讓되게되지 [illegible]의 普通學校二十校中 六校를除한十四校外는 全部民生部에移管된것은 國家政策上 決定한바에 依하여 實行된것이나 여기에는, 敎科書問題等 남은 問題가만하서 在滿百萬朝鮮人이 함께關心하고 當局의對處를 期하는바이다

中等校設置의急務

初等敎育의 現狀으로보아서 그卒業生을 收容할 中等學校의必要는多言을 不要하는 切實喫緊의 問題인바 이에對한 實情이 너무나寒心한 狀態이므로 目下在滿朝鮮人의 最重要한 關心이 이에集中되고잇다

이미 新學制는 決定되엇다 新學制에 잇서서는 中等學校는 國民精神涵養은 勿論이나實際敎育을 基調로 하여國民必須의知識技能을 習得하고 。國民中堅分子를 養成한다는것이 明白히 나타낫스니 朝鮮人의中等學校設立問題는 今日當局과 在滿同胞와 함께 熟考하여 勇斷的建設을 斷行하야만될 命題이다

間島省의 入校가新學制實施後 認可問題로 或은 廢止하고或은 [illegible]하고잇스며 [illegible]이된 [illegible]大東光中學校가 아직財團法人完成을 보지못하고 잇는事實을 생각하면 滿洲國代表로 派遣하여 朝鮮總督府에 中等學校 九個所設立에對한 陳情을하게하고 同時에 滿洲國中央當局과 各地方當局에 緊密交涉을 하여온것極히 前途望洋之歎을 不禁할것이지만 事實이以上의 記述한바와가치 우리들의 中等學校誕生을延延시키고잇던 條件이 바야흐로 融解하여 機會完熟된것을 直感하지안홀수업스니 이제부터는在滿同胞의 熱意如何에 달렷다고 觀測되는바이다

그러므로今日의우리의中等學校設立問題도 오직우리自身의 問題그것이 一層의 遅延을不許하는 現實에對한認識을 徹底히하고 나아가서 問題의 緊急性이 주는바 切實한[illegible]感을 滿洲國全體에 以心傳心함으로써 解決을 期待할수잇는것이다

同胞의援助를渴望

그런데 이번에 在滿代表入京時에는 그具體的案을 提示하엿지만 總督府라고 할지어시 朝鮮全體의 援助업시 우리는 目的을 達할수업는것을 잘알고잇니 그理由는 우리 物心兩方面生活이 結局 아직은 母土에뿌리박고잇는것이 크게잇는事實에 비춰서도 그러커니와 이問題가 오래동안 積累되엇다가 一時에 우리와아며 出現하여 그解決을 强迫하고잇는 關係로 微弱한 우리가完全이 處理되어 極히 本能的으로 〃엄마〃하는 救援의 叫聲을發하게것임을생각해도그러라 以外에 方今進捗中인 中等校設立問題는 朝鮮人生徒만을 收容하는學校의 設立과日滿共學의 學校設立等 實際에잇서서의 許多한問題를 包含하고잇지만吾人은 어쩌던 오직우리의 熱誠의度에 依하여 好轉될것을 [illegible]하는同時에 中等校以上의 學校敎育問題에 對하여는 구라여[illegible]할 必要가잇다는 現實的見地에서 共鳴을喚起하는바이다 —完—

東亞協同體理論

自由主義克服과 新全體主義樹立

② 李甲燮

오늘의 世界事情은 過去의어느時代에 比하여서도 世界化하엿다 말하자면 世界主義時代라고 할것이다 그러나 近代的世界主義는 抽象的인때문에 한國民과 한國民과의 關係는 單純한 交涉關係에 不過하엿고 이것은다시 世界主義를 否定하는 契機로서의 國家主義를 誕生시키고 말엇다 다시말하면 近代的世界主義는 民族의固有性과 特殊性을 認定치 아니하는 自由主義우에 섯기때문에 世界는分裂되고잇다 所謂近代自由主義란 個人主義이다 個人이 먼저고 社會는 그다음이다 여기에는 全體를 말하되 그全體는 協同體的의것이아니고 한個의 單純한 集合體에 不過한다 그리고 個人은그集合體의 한個의 獨立한 〃아톰〃이다.

그러기때문에 從來의自由主義의全體우에선 世界主義는 아토미즘의 關系요 아토미즘의關系인 까닭에 分裂하지안흘수 업섯다 이에反하여 새로운 意味의 世界主義는 民族의 固有性과特殊性을 認識하면서 民族과民族을 超越한 全體를 豫想한다 그러기때문에 어떤境遇에잇서서의 分裂이란 世界主義를 否定하는契機로서가 아니라 도리켜 그것을 새로운 意味에서 肯定하는것이 아니면 안된다 假令 東亞協同體와가튼것을 全體社會에의 分裂이라고 볼수잇다 그러나 이것은 單純한分裂이 아니고 도리혀 새로운統一을 意한 分裂인것이며 또한 한層더 高次的인 世界主義에의 길을 여는것이다 이리하여 東亞協同體는 새로운世界秩序에對한 普遍的原理를 內在시키는것이며 그 原動力이 되는것이다.

◇——◇

오늘날 全體主義思想이 매우 高調되고잇다 그리고 이全體主義思想은 民族主義로서 나타낫다 이것이 抽象的인 近代世界主義를 否定하는 契機로서의 民族主義로 誕生하엿것은 歷史的으로보아 當然하엿다 그러나오늘의 民族主義가 世界史的으로보아 單純한民族主義 일수가 업는것이라고하면 그것은 民族을 超越하는것이 아니어서는안된다 더넓은範圍에의 擴大가必要하다 從來의 全體主義는 非合理的이다 그것은 血統과地域的要素를 强調한다 血統과地域은 한民族을얽어매는 紐帶엿다 그러나 結合의原理로서의 血統과 地域의神秘性은 民族과民族을 結合시키는때에는 아무런 所用도업다 이境遇의 結合의 原理는神秘性이 아니라 知性的인것이여야하고 合理的인것이어야한다 어떠케 從來의全體主義에서 非合理性을 除去함에 依하여서만 어떠한主義는 東西協同體思想의 內容일수잇다 다음으론 全體主義는·全體의 個體에 對한優位性을 主張한다 個體는 全體의 分節로서 또는部分으로서만 意義를가진다 그러기때문에 全體는 部分을 抑壓한다 따라서이런 社會는 個人의 獨立性과自主性을 抹殺한다 그러나 個體의 自主性과 獨立性은 못까지 認定되지 안흐면 안된다 卽東亞協同體에잇서 日支兩國의 獨立性과 自主性은 어데까지 認定되지 안흐면 안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全體主義는 個體는 全體속에包含되면서도 또한 어데까지個體의 獨立性을 主張하는 새로운 論理가 아니면안된다 從來의全體主義가 有機體論인데對하여 이理論은 正히辨證法的이다 어떤全體主義는 自由主義와對立하는것이 아니고 이것을 自己의속에 辨證法的으로서 止揚하는것이 아니면안된다 어려하므로써만 한民族의 內部에잇서서의 個人의 獨立性과 各民族의 協同體內에 잇서서의 各民族의 自主性이 살어오는것이다 이러하여 새로운 個體의 獨立性을 發見의속에 새로운 全體主義를 發見하므로써 東亞協同體의 原理가 될수잇스며 世界新秩序에 對한 普遍的原理일수 잇다는것이다。

◇——◇

氏는 이와가치 東亞協同體의原理이며 同時에 世界新秩序의普遍的原理인 東亞協同體 思想은 첫째世界的 歷史的 課題인 資本主義의矛盾을 解決하여야하고 둘째로는 그基本이되는 自由主義, 個人主義를 止揚하므로써新全體主義를 樹立하고 이새로운 全體主義의 辨證法的發展에依하여 一躍에民族主義問題를 解決지어가지고 一路東亞協同體에의 또는 世界主義에의 通路를開拓하려하엿다 그런데 氏는다시全體主義思想은그根底에 人倫的인 道德的要素를 包含하는것으로서 그것은 同時에 共同社會的文化 協同主義文化가 안되면 안된다 그러므로 東亞協同體의 新文化, 創設을말할때 그것은資本主義와 民族主義 또는 自由主義와 個人主義를 克服하는것이여야하고 그와 同時에 共同社會的의것協同主義的 思想을 基調로한것, 이 아니면 안된다는것이다 그러면 이런 文化는 果然어떠한것이며또한 어떠케 創造되어야 할것인가 ……계속……

丹城

山淸郡守 姜昌寅

山淸郡丹城面城內里 李靖相

山淸郡丹城面南沙里 鄭鍾和

山淸郡丹城面南沙里 崔載鶴

山淸郡丹城面砂防事務所 梶原武夫 康正吉 全九伊 鄭廷權 李圭醫 崔昌燮

山淸郡丹城面江樓里 權雲鉉

山淸郡丹城面虎里 鄭道時

賀正

山淸邑內 吳明鎭

山淸郡丹城面 職員一同

山淸郡丹城面南沙里 崔中煥

山淸郡丹城面召南里 趙在厦

山淸郡丹城面南沙里 李道午

山淸郡丹城面南沙里 李鏞圭

山淸郡新等面丹溪里 金昌銖

山淸郡新等面丹溪里 柳昌馨

山淸郡三壯面 職員一同

山淸郡丹城面虎里 鄭益時

山淸郡新安面 職員一同

山淸郡丹城面立石釀造場 主 鄭夏永

山淸郡丹城尋常小學校長 高橋不二

山淸郡丹城面堂山里 河侃

山淸郡丹城面虎里 鄭顯預

山淸郡丹城面倉村里 李漢龍

山淸郡丹城面堂山里 李會壽

山淸郡丹城面堂山里 閔台性

丹城金融組合

山淸郡丹城面[illegible]里 權泰根

山淸郡丹城面南沙里 崔載沂

山淸郡丹城面虎里砂防事務所 主 李文載

山淸郡丹城面虎里南沙里 李舜根商店

山淸郡丹城面南沙里 崔洛輝

山淸郡新等面 丹溪金融組合

山淸郡矢川面絲里 河晙源

丹城金融組合德山支所 理事 裵敬希

山淸郡德山市場通 德山醸造工場主 金泰萬

山淸郡矢川面絲里 白榮基

山淸郡三壯面大浦里 成煥穆

山淸郡三壯面坪村里 姜太守

山淸郡生比良面 職員一同

山淸郡生比良面濱川釀造場 主 金性在

山淸郡矢川面絲里 曺元相

山淸郡新等面丹溪市 魚鹽肥料雜貨商店主 金棟玟

山淸郡新等面丹溪里 李百祚

山淸郡今西面梅村里 李鍾潤

山淸郡矢川面絲里 曺彧煥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李佑燮

山淸郡丹城面默谷里 李大燮

山淸郡丹城面倉村里 孫權道

山淸郡丹城面案湯里 崔甲模

山淸郡丹城面案湯里 金宗鉉

山淸郡丹城面南沙里 崔友煥

山淸郡新安面新安里 李庸圭

山淸郡新安面新安里 權泰國

山淸郡新安面下丁里 卞相泰

山淸郡丹城面虎里 河啓渭

山淸郡丹城面召南里 趙龍來

山淸郡丹城面沙月里 金祜達

山淸郡丹城面[illegible]里 鄭昌時

河東郡玉宗面宗化里 閔明鎬

山淸郡丹城面城內里 孫儀鎬

山淸郡丹城市場通 朴師鐸

山淸郡丹城面城內里 朱相舜

山淸郡丹城面倉村里 白南佑

山淸郡丹城面虎里 鄭學成

山淸郡丹城面堂山里 閔珍鎬

山淸郡丹城面案湯里 崔尙鎬

山淸郡丹城面案湯里 黃龍根

山淸郡丹城面沙月里 李龍洙

山淸郡丹城面沙月里 李定根

山淸郡丹城面南沙里 崔奎煥

山淸郡丹城面南沙里 河仁洛

山淸郡丹城面南沙里 鄭昌和

山淸郡丹城面南沙里 李錫圭

山淸郡丹城面江樓里 無名氏

山淸郡新安面[illegible] 仁川[illegible] 電話[illegible]八二七四番 沈相鳳

山淸郡矢川面反川里 河相衡

山淸郡矢川面內公里 許在碩

山淸郡三壯面德下里 曺柱煥

山淸郡矢川面川坪里 李鎭杰

山淸郡 新等面長

晉州府西鳳町二三〇番地ノ一 李斗煥商店

山淸郡生比良面濱川里 沈相臣

山淸郡矢川面東堂里 崔尙敏

山淸郡三壯面石南里 孫榮秀

山淸郡矢川面絲里 鄭昞基

山淸郡德山市場通 黃龍雲商店

山淸郡矢川面絲里 李平山 (創名 元[illegible])

山淸郡矢川面中山里 成大石

山淸郡矢川面外公里 孔龍益

山淸郡矢川面外公里 許完立

山淸郡新等面丹溪里 權五鉉

山淸郡新等面丹溪里 權東赫

慶山

慶山郡廳

慶山郡農會

慶山水利組合

慶山酒造株式會社 社長 安炳圭

慶山邑 安周洪

慶山郡公立學校長一同

慶山邑 澤田耕治

朝鮮慶尙北道慶山郡慶山面中方洞 慶一精米株式會社

慶山警察署

慶山邑 慶山物産組合

慶山面職員一同

慶山邑三山 安印刷所

京釜線慶山驛前(慶山郡廳前) 慶山印刷所 李彩基

慶山邑 姜文佑

慶山 金敬之

慶山 松尾八五郎

慶山司法書士合同事務所

珍良面職員一同

慶北慈仁 龍城産業組合 電話 慈仁五番

慶北慈仁 李陽奉

慶北慈仁 石萬珠

慈仁 邊基允

慈仁面協議會員 金相坤

李鍾徹

[illegible] 鄭元植

靑松

靑松金融組合 朴潤相 吳相雲 李敬逵 尹命述 金麒煥 金商東 金振熙 池翼淳

靑松郡廳 職員一同

靑松郡 各面長一同

靑松郡公立小學校長一同

靑松郡府南面大前市 府南殖産組合

靑松郡米穀統制組合長 權重煥

大邱地方專賣局安東出張所 靑松販賣所 金載渭

靑松郡靑松面 協議會員 尹斗鎭

靑松郡靑松面 協議會員 尹商榮

慶北靑松邑 綢緞布木 洋品雜貨 食料品 德新商會 李昌洙 李泰淳

靑松邑橋前通 和洋料理 各種酒類 星州館 主 裵壽任

慶北靑松邑 和洋料理 各種酒類 豐山館 主 史明淑

慶北靑松邑本町通 義興旅館 主 朴鳳仙

靑松邑(金融組合前) 司法書士 代書士 金守用事務所

慶北靑松郡安德面 安德共榮組合

慶北靑松邑 時計眼鏡 貴金屬販賣 松池堂時計店 主 全漢[illegible]

地方의 特產

三神山의 不老草
高麗人蔘은 世界靈藥
江華花紋席도 海外로 進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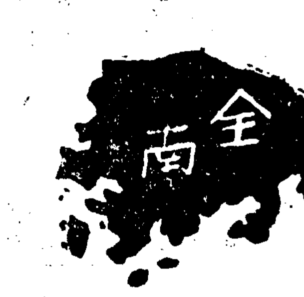
京畿道의 特產物이라면 第一로 人蔘을 칠것이다 人蔘은 栽培하는方法이 다른 一般農作物과는 달러 播種한後 採收하기까지에는 적어도 六個年間이나 만흔費用을 드리면서 管理하는것으로 그 元來의 價値도 잇거니와 耕作費用으로 보아서도 高價될만한것이 이다

高麗人蔘은 宣傳을 하지안어도 이미 驚異한 聲價를 가지고 잇다 內地는 勿論이오 滿洲에서도 蔘을 移入하여 栽培에 苦心하고 잇스며 米國에서도 注文이 오는等 생각하면 偶然치 안흔일이다 最近 藥業界에서 「蔘은 靈藥」의 發展이 이世界最高의 地位를 가지고 잇는 高麗人蔘에 注目하지 안흘수 업다 果然 우리는 三神山不老草를 가진 것이다 아직도 科學的으로 人蔘의 藥效를 究明하지 못하고 잇는만큼 [illegible] 楊州栗과 [illegible] 水原, 安養, 楊州等中心으로한 果의 年產額은 二萬石(產出面積八千町步)으로 金額으로는 七十二萬餘圓이나되고 道當局에서는 二十年後의 產額 二十五萬石을 目標로하는 增產計劃이 서잇서 그때에는 相當한 產額으로 激增될것은 事實이다

또 柿實은 抱川이 產地의 中心으로 이 一郡만의 年產額이 一千五百石이오 道內總產額은 二千石으로서 金額으로는 十六萬餘圓에 達한다

江華의 花紋席도 古來로부터 有名하다 開城을 中心으로 [illegible] 道內人蔘의 栽培面積은 開城府를 中心으로 長湍 開豐兩郡과 黃海道一部로서 黃海道의 分을 合한 數字로보면 耕作面積 約一百四十九萬五千坪 收穫約九十一萬斤 金額으로는 二百六十二萬七千圓의 巨額에 達하고 이것의 紅蔘化한 것이 支那에로 輸出되는것을 말하지 안허도 天下가 다아는바다

江華의 花紋席도 古來로부터 有名한 特產이다 原料는 莞草이나 他道의 所產과 全然다른 特質을 가지고잇서서 이 江華花紋席만은 제아무리 技工이 奇妙하드라도 模倣하지못하고잇고 前日에는 國內의 奢侈品으로만 使用되든것이 今日에와서 內地로 或은 海外로 濃厚한 朝鮮色을 자랑하고잇다. (寫眞은 高麗人蔘)



海苔
淺草海苔도 其實은 朝鮮產

「全南海苔發達과由來」 全南에잇서서 海苔業은 近年대단히發達을 遂하여 年產額七百八萬束에 六百十三萬圓이니 慶尙南道產額八十萬圓 黃海道產額五十萬圓 忠淸南道產額十萬圓等으로 全朝鮮海苔總產額 八百萬束에 七百五十萬圓인바 全南의產出額은 實로九割以上이며

「東洋」第一을자랑하는 東京灣產의 淺草海苔와 廣島產의 海苔等을壓倒하고 全國海苔生產額七割強을占有하여 一躍朝鮮重要物產의地位를獲得하는 同時에 蹶然大阪市場을 左右하는實力을 掌握하게되엇스나 將來에잇서서 더욱發達의素地가만히잇서 世人이다가치 注目하는바다

그런데 海苔業의經營은 何等 大資本을 要하지안코 農漁家의 副業으로 農閑期를利用하여 老少男女가 다가치 作業을容易히할 수가잇서서 海苔作業은

「沿岸」部落一般을 福利케하여 細民에게는 더말할수업는 조흔生產業이라고한다 口碑에 傳하는바에依하면 海苔業은 約三百餘年前에 이미創始되어 朝鮮에서 第一먼저 發祥地라하는곳이 全南光陽 即大仁島 高라稱하여 그다음高가 莞島 卽 助藥島라는바 改良製造方法이 朝鮮에 들어오기는 明治三十五、六年頃에 廣島縣人과 福岡縣人等의 漁業에依하여 처음으로 加工製造한바 잇섯스나 大槪가 在來式生產樣式이엇고 改良式은 僅少한것이엇서 全南道當局에서는 이에 着眼하여 光陽, 莞島兩郡內에

「恩賜」授產事業으로써 海苔傳習을 開始하고 其他의 獎勵施設을 하는同時에 大正三年에 光陽郡에 翌年에 莞島郡에 各一個所의 海苔改良水產組合을 組織하고 順次高興, 長興, 康津等各郡에 組合을 設立하며 製品檢査及 共同販賣를 開始하는 一方 養殖製造方法의 改善과 斯業의 發達에 努力하여온 結果 逐年好成績을 取得하고잇스나 制度上不便한點이 잇서 大正十一年 府令漁業組合規則에따라 郡單位의海苔漁業

「組合」으로 改正하고 前記事業外에 共同購入、資金貸付等諸事業을 加하여 斯業의 普及發展에 힘써온 結果 組合의 業績及 組合員收入이 增加하여 漸次海苔養殖은 沿岸民들에게 조흔生產業으로 알리게되어 其他各郡에서도 斯業에 從事하는者가 續出케되엇다 大正十三年 海南郡北平面과 大正十四年珍島郡 昭和五年務安郡 靈光郡 [illegible] 海南郡 [illegible] 面等에 各各漁業組合을

「設立」하고 現在 海苔關係漁業組合만 十七個組合에 達하며 組合人員數 一萬三百五十四名의 多數이나 全組合員은 어느누구고 다른業者와 가치 生業하고잇는데 只今까지 全南海苔는假面을쓰고 高飛 [illegible]

[illegible] 一販賣機關과 生產地一 [illegible]

「販路」[illegible]

「包裝」을고치여서 販賣하는 關係로 實파量에잇서 東洋一 [illegible]

「狹立」[illegible]

「淺海」는 [illegible]

(寫眞은 海苔養殖場)

꼬마 電球의 飛躍
戰亂中의 歐洲로

豆電球、裝飾電球等 慶尙南道의 輸出特產品으로서 最近外貨獲得의 花形으로 聲價가 놉고 優秀한것이라면 먼저 電球를 들게된다 이電球는 昭和十年부터 釜山에서 生產하엿다 비록年數로는 滿四年의 짧은期間이라할지라도 釜山電球는 全世界各處에 進出하여 빗내고잇다.

第一로 顧客이 亞米利加와 英國이다 亞米利加에는 主로裝飾電球가 歐洲에는 豆電球와 裝飾電球가 팔려간다

昭和十年에는 三千四百八十六萬六千六百九十六個가 英國 南米 北米 印度 濠洲 蘭印 滿洲等 世界各國에 시집을 갓는데 그 總價代(貿易額)는 六十六萬二千九百八十八圓에 達하고 翌年인 十一年에는 三千七百八千百十九個에 三十五萬八百七十二圓의 輸出로서 前年에 比하여 大激減이 되엇다 이 原因은 釜山 電球의 進出을 意味하는 數字이다

釜山에 電球工場이 생기게된 原因은 內地에서 電球檢査와 輸出統制때문에 內地組合外의 電球가 朝鮮에 移出하여 다시그것을 第三國으로 輸出하게된것이 嚆矢이다 이러는동에 그해 朝鮮에도 同業組合令에 依한 朝鮮輸出電球製造同業組合이 四月二十五日付로 設置하게 되는同時 輸出電球의 檢査를 시작하엿다 이러한 關係로 內地產電球의 流入이 自然막히지게 되고 따라서 純朝鮮產이 世界舞臺에 오르게 된것이다 이것이 十年보다 十一年의 輸出高가 激減된原因이다 그當時 組合員은 十名中 한名만이 道外인 京城에 잇고 其外는 모두 釜山業者엿다 十二年度의 電球

輸出 高는 다음과가치 四千八百五十三萬六百五十八個 그金額은 六十一萬五千四百二十四圓으로 初年度의 輸出額에 接近하엿다

	個數	金額
家庭球	[illegible]	[illegible]
大型裝形球	[illegible]	[illegible]
自動車球	[illegible]	[illegible]
豆電球	[illegible]	[illegible]
小型裝形球	[illegible]	[illegible]
돈가리球	[illegible]	[illegible]
크리스마스셋트	[illegible]	[illegible]
合計	[illegible]	[illegible]

輸出電球中 數量의 九割以上과 金額의 六割以上은 豆電球가 占領하엿다

이러케 飛躍의 態勢를 取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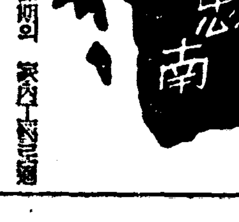
그러하여 十一月中에는 十四萬二千九百六十九圓의 輸出을보앗다 十四年一月부터 十一月까지의 累計는 七十七萬四千三百二十六圓으로서 다음과갓다

別	個數	金額
家庭電球	[illegible]	[illegible]
大型裝形球	[illegible]	[illegible]
自動車電球	[illegible]	[illegible]
豆電球	[illegible]	[illegible]
小型裝形球	[illegible]	[illegible]
돈가리球	[illegible]	[illegible]
크리스마스셋트	[illegible]	[illegible]
크리스마스球	[illegible]	[illegible]

釜山에있는 朝鮮電球

輸出電球는 支那事變의 影響을바다 昭和十三年度에는 多少減少되엇다 卽 四千二百七十七萬五千五百十一個에 五十五萬四千七百四十七圓으로 十二年度에 比하면 數量에잇서서 六萬四千五百十九個의 減少이다 그減少의 全部가 主로 英本國으로 가는 豆電球이고 다른것은 多少 增加를 보이엇다 [illegible] 反映하엿다

그러던것이 昭和十四年秋에勃發한 英佛의 對獨戰爭으로 말미암아 防空陣의 强化와 燈火管制下의 燈火管制用으로 新需用으로 豆電球의 需要가 激增하므로 더욱이 內地에서의 電球製造는 事變關係로 生產이 低下하게되니 朝鮮에서의 生產業은 向上擴大를 하게 되엇다 十四年十月부터는 漸 [illegible]



苧布의 將來

[illegible] 韓山細苧 [illegible]

淸風보다시원한 韓山細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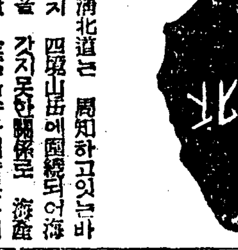
韓山細苧製品은 婦女子의손씨

苧草製品 [illegible]

發展 [illegible]

老幼 [illegible]

由來 [illegible]



山골에서 眞珠를
製造方法은 至極簡單

忠淸北道는 周知하고잇는바와가치 四圍山岳에 圍繞되어 海岸線을 갓지못한關係로 海產物이란 全然求해볼수가업는 것이 아니라 平野가 적어서 農產物도 自給自足의程度에不過하다 地理的으로나 또는 天然資源이 豐富하지못한等 여러가지로 惡條件을 가지고잇는 關係上 特產品이라고 世上에 자랑할만한것이 업다고 하여도 過言은 아니다 그러나 微微한產物中에 產額에잇서서는 얼마되지안는다하겟스나 他道에서 그리보지 못한 獨特한 輸移出特產品이 잇다

模造眞珠

模造眞珠는 我道唯一無二한 輸出工產品으로서 他道에서 그類를보지못하는 特產品이다 淸州郡管下淸州邑及 四州、玉山、江西、江內、江外、南二等 七個面內農家에서 農閑期를 利用하여 副業으로서 製造하고잇는바 製造家戶數 一千二百餘戶 從業人員 一千五百餘名에 達하고잇스며 年產 一百萬把 金額으로는 實로約百萬圓의 巨額에 達하고잇다 同眞珠는 主로 大阪方面에 移出되고 잇는바 大阪神戶地方의 加工業者가

加工하여 貿易商의 손을거쳐 米國、南洋等地로 輸出되고잇다 物質의 優秀함과 技術이 卓越한것은 自他가 共認하는 바로서 大阪方面의 商人側의 好評을 博할뿐아니라 朝鮮의 模造眞珠는 忠北에 限한다 라고까지 賞讚되고 잇는터이라고한다

上記한바 模造眞珠가 이 地方에서 이와가치 大規模적으로 製造되게된 由來를 調査하여보건대 大正十四年頃 淸州郡江西面 朴氏가 大阪에서 製造技術을 習得하고 돌아와서 이것을 製造하기 始作한데 비롯하게되엇는데 農家副業으로서 가장 有利하다는것으로 部落民의 好評을 박게되어 그 技術을 習得하고저하는者가 續出하여 隣接面各部落에까지 發展하게되엇는데 그後 製造에 從事하는者 相當한 數에 達하게 되엇는데 當時業者가 相謀하여 任意組合을 組織하여 斯業發展을 企圖하엿스나 얼마되지 안하서 解散되어 以前의 狀態에 陷하엿는데 이機會를 利用하여 貪利仲介商人이 跋扈하여 年數萬圓의 仲間利益을 取得하고 잇섯다한다 [illegible] 昭和十一年 [illegible]

指導

獎勵와 增產을 計劃하엿스나 不得已한 事情으로 實現을 보지 못하엿다가 昭和十四年三月十六日工業組合令에依한 統制機關으로 忠北人造眞珠工業組合을 設置하고 販賣統制, 仲介商의 排除, 原料의 共同購入等을 開始하여서 積極的으로 活動을 하여서 業者의 利益을 圖謀하게 되엇다 道當局의 斡旋에依하여 今年六月 神戶貿易商會社와 提携하여 同組合 製品은 最高價로 買入케하는同時에 原料는 最低價로 供給할것을 約하고 雙方의 圓滿한 發達을

圖謀

하기로 되엇섯다한다 同組合의 計畫을 들으면 現在 內地의 加工業者와 貿易商이 取得하고잇는 利益은 莫大한바 原料製造와 加工을 하기로하도록 [illegible] 明年度에는 原料呼子棒의 製造及 加工工場을 設置하고저 準備中으로서 萬若이것이 實現된다면 現在의年 一百萬把生產으로한다하여도 現在生產者手中에 떠러지는 收入보다는 얼마쯤 더 條件이 나은 질것으로서 技巧한 農家經濟에 커다란 潤澤을 보게될것은 말할것도 업는바이며 我道의 唯一한 輸出特產品으로서 世界에서 자랑하게 될것이다

東亞協同體의 黎明!

모든 經濟秩序는 새로운 編成을 進行하고잇다. 生產力擴充과 物動計劃의 두줄기 굴근線위에서 朝鮮의 物資는 躍動하고잇다 그中에서도 자랑할만한 곳곳의 特產物。 明媚한 朝鮮의 山海에서는 무엇이 產出되나? 朝鮮作民은 무엇을 產出하나? 特產物로서 外貨를獲得하는것도 重大한 責務이오 國內의 物資를 豐富케 하는것은 더말할것업는 所重한일이다 더구나 손재조가좃코 옛부터나려오는 傳統을 가지고 技能을 發揮하는 工藝品은 人類의힘으로 求하여도 엇지 못하는 特異한 產品이라 이 모두가 우리자랑이며 우리의 實力이다. 아래에 나타나는 朝鮮各地의 特產品도 되도록 이것을 더한다면 그것은 "기름진 우리의 特產"

興德

全北興德 全北道會議員 陳萬秀

高敞郡地方食糧配給統制組合 理事 吉田稔

全北興德 松場支店 主任 吉田稔 會計 李完洙 外交主務 崔萬順

全北興德 綢緞布木 陳興商會 電話七番 陳萬奉

全北興德 興德商會 朴柱燦

全北興德 精米業 陳斗銀

賀正

全北興德 朴壽吉

全北興德 陳奉均

全北興德 釀造組合

苗浦材木商 竹亭機械商會 李敬彩

全北高敞郡富安面洪海農場 場長 洪鍾轍 支配人 權彝哲

高敞郡富安面松峴里 金東淳

高敞郡富安面紫山里 李鳳淵

全北興德 權聖夏

全北興德 고무신商會 金福順

全北興德 三原醫院 三原義雄

朝鮮運送株式會社 後浦港取扱所 主任 李潤雨

高敞郡興德面 職員一同

高敞郡富安面 面長 鄭芝源

全北興德 安藤虎治

高敞郡新林面 職員一同

高敞郡[illegible] 蔡金童

高敞郡興德面[illegible] 釀造場

全北興德 光新商會 朴浣植

全北興德 [illegible] 沈甲植

高敞郡新林面[illegible] 金百洙

全北興德 郵便所長 淺野喜八郎

全北興德 金融組合理事 岡本茂夫

高敞郡星內面 職員一同

開原

知足農村 滿洲國開原縣第一區英台村馬圈子

滿洲國開原驛前 精米精粟 特產貿易 朝鮮商會 電話(長)三九番 [illegible]

滿洲國開原街 精米精粟 雜穀貿易 合資會社 永昌公司 電話六六番

滿洲國連京線開原長壽街二七 特產物 精白米業 精粟 合名會社 東亞精米所 電話五四四番 電略(ト)又ハ(トア)

滿洲國開原街福昌街八番地 精米精粟特產貿易委託買賣 合名會社 東興精米所 電話長二七〇番 [illegible]

滿洲國開原大街 白米酒類太陽牌粉 菓子食料雜貨 絹綢打直商 明治 廣信商會 主 桂禑淳 電話四三八番

滿洲國開原街富華街六八 特產物精米業 東泰今精米所 電話長七二番

滿洲國開原縣[illegible] 鄭冕儉

滿洲國奉天省開原街實山街二八 特產貿易 公益商會 電話長九八番 電略(コ)又ハ(コウ)

開原 三光醫院長 尹周源 電話二五三番

滿洲國開原大街四九 高級洋靴專門 [illegible] 朝日洋行 主 潘有權

滿洲國開原[illegible]大街 滿鮮布木和洋雜貨 昌源商店

開原[illegible] 義信商會

開原 白亨澈

滿洲國開原街小孫家台 回春醫院 院長 金熏璜

開原街東洋街一五 開原金融會 電話三六〇番

滿洲國開原[illegible] 崔國敬 電話三三五番

開原街[illegible]大街一四一 平壤麵屋 主 李[illegible]英 電話二九五番

開原 李善珩

開原 鄭元熙

開原大街四八 司法代書人 李相穆

滿洲國奉天省開原驛永興街八二 金成郁

開原街永興街八〇番地 滿洲肥料雜穀貿易 滿洲製油工業所

開原街永興街八二 同信精米所

西豐縣城內北豐街六二 開原金融會西豐支所

開原驛前開原大街六十五番地 平和洋服店 尹載重

開原街小孫家台 漢藥及賣藥 朝鮮藥局

開原縣開原街孫台街八十七號 漢藥各種有名賣藥 壽世藥房

滿洲國開原街實山街四〇 朝鮮日報社開原支局 鄭文源

楊口

合資會社 楊口酒類釀造商會 代表者 崔昉燮

楊口醫院長 李泰宗

鄭基鍾 高善子 鄭熙永

楊口金融組合長坪支所

司法代書士 文相龍

平田興助

司法書士 趙瑨載

內鮮雜貨食料品商 主 安榮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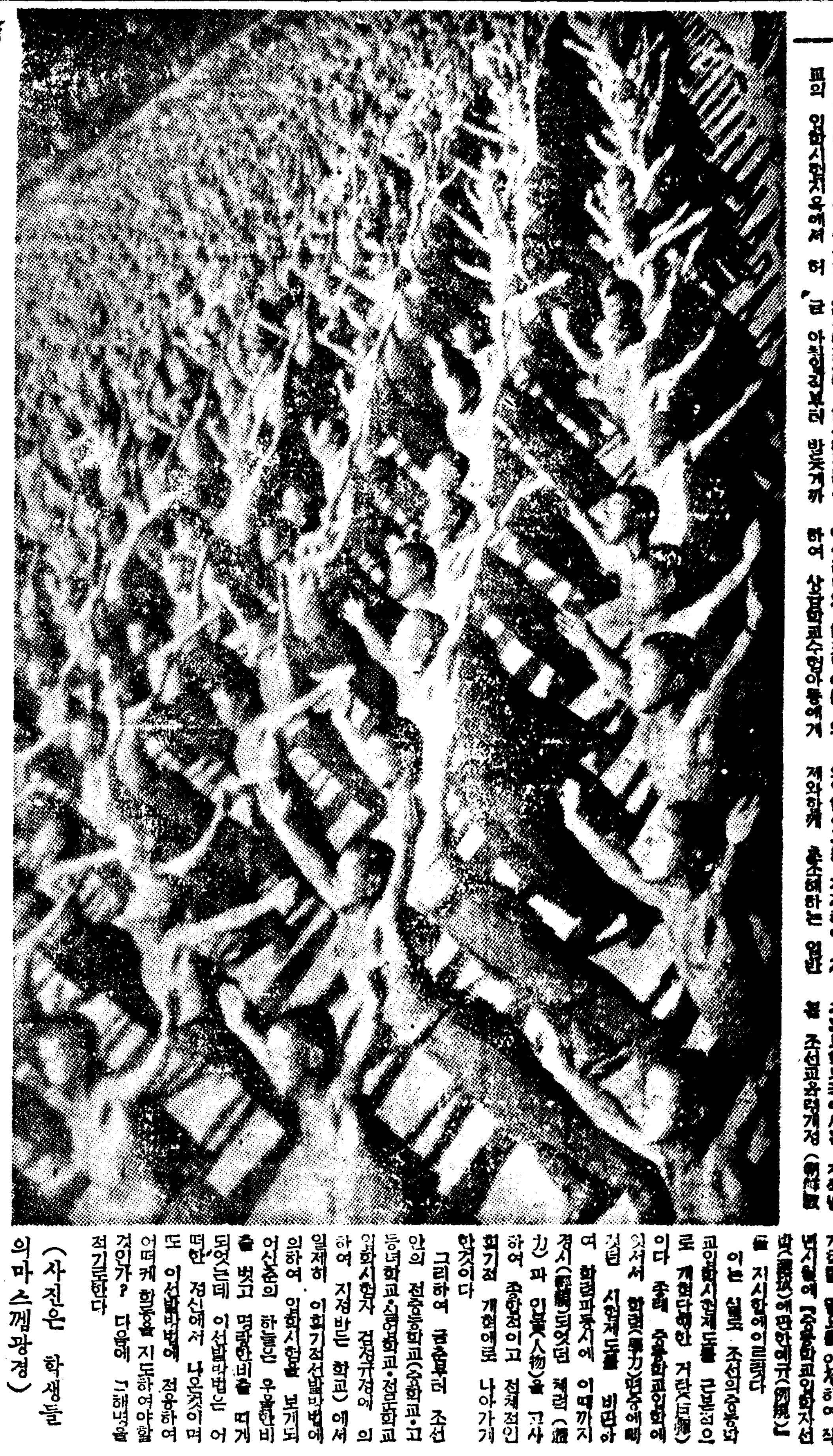
改正되는 中等學校 入學試驗

學力과함께體力을!

해마다 반가히 마지야할 히망의봄을 우울의 그림자로 떠버리는것은 중등학교의 입학시험지옥에서 허덕이는 수십만남녀아동의모양이엇다 아직 신체발육이 완전하지못한 학동들로하여금 아침일직부터 밤늦게까지 책상에 머리를 마수대고잇는가여운 그모양도 모양이러니와 학교명예를 위하여 상급학교수험아동에게 시험준비를 시키기에 정력하는 소학교당국자와 자제의입학여부를 걱정하여 자제와함께 초조해하는 엄만 가저야만다는 고초는 눈물겨운일이다 총독부학무국에서는 재작년봄 조선교육령개정(朝鮮敎育令改正)의시기에 이가티어떠케든지 시험지옥을 완화하여 수험학동의 부담을덜게할 방법은 업는가?고신중히 연구를 거듭한결과 중등학교를 확의증설하는한편 입학시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필요를 인정하여 작년시월에 「중등학교입학자선발(選拔)에관한예규(例規)」를 지시함에이르렀다

이는 실로 조선의중등학교입학시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단행한 거탄(巨彈)이다 종래 중등학교입학에 있어서 학력(學力)편중에 빠지엇든 시험제도를 비판하여 학력편중시에 이때까지 경시(輕視)되엇던 체력(體力)과 인물(人物)을 고사하여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회기적 개혁에로 나아가게 한것이다

그리하여 금춘부터 조선안의 전중등학교(중학교·고등녀학교·실업학교·전문학교입학시험자 검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받는 학교)에서 일제히 이회기적선발방법에 의하여 입학시험을 보게되어신춘의 하늘은 우울한비를 벗고 명랑한비를 띠게 되엇는데 이선발방법는 어떠한 정신에서 나온것이며 또 이선발방법에 적용하여 어떠케 학동을 지도하여야할것인가? 다음에 그해설을 적기로한다



(사진은 학생들의마스께광경)

"머리만커다란弱質"보다 新時代더멜體位로
學課偏重의弊害를一掃

「아는것이 힘!」「배워야산다!」는 표어미테 향학열이전조선에 팽창하여짐에따라 중등학교지원자는 연년팽창한수짜로 증가하나 중등학교수가 이와병행하여 증설되지못하므로 시험지옥은 학동들의 공포의 관문이되고 말엇다

그리하여 이 난관을 통과하려면 남보다 더학력이 우승해야하게되므로 자연 시험준비를 격렬이 하게된데다가 초등학교당국은 자기학교의 명예를위하여 학동의 과도한공부가 건강、신체발육에 미치는악영향을 고려하지안코 시험준비에 박차를 가하엿섯다 이때문에 소년들의 체위(體位)는 최근수년간 평장이 저하(低下)되고말엇다 나쁜 폐단에 대하여서는 당국에서도 일직부터 우려하여 수년전 초등학교상급생의 시험준비를 금하엿스나 이는 일방적처사에 불과하엿다 웨냐하면 초등학교측이 시험준비를 그만두엇스나 중등학교측에서는 종전대로 학력편중의 시험제도를 존속시켜왓던까닭이다 그것이 이번 새로운 제도로서로 교정(矯正)되고 말앗다 그러므로 시험제도의 개혁은 먼저 학력편중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체력과 인물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이른것이라고할것이다 금번지나사변발발이래 청소년의 체위향상문제가 가장긴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론의되어 최근의 청소년의 체위저하는 초등학교때의 중등학교시험준비에 전력하는것이 큰이유의 하나임을 알게되자입학지원학동의 집울더는한편 체련중강을 기하기로 되어내지에선 금번브터중등학교 입학시험에는 학과과목을빼게되엇고조선에서도학과과목으로는국어과목을넣엇을뿐다른일체의학과과목을빼버린것이다 즉신동아건설에 큰동력이될 제이세국민이 「머리만 크다란」약질의 국민이아니라 머리와함께 체력이 장대하고 또 씩[illegible] 인물됨이 동아맹주(盟主)의 모범국민될 자격을 가저야한다는노픈 견지에서 참으로중등 또는그이상학교에서 배울만하다고 인정되는학동을 선발하는것이다 이제종래와 다른 점으로보면 다음과갓다.

第一 總則

一、中等學校入學者選拔에 際하여서는 皇國臣民敎育의 本旨에 따라 嚴正公平하고 적어도 道義에 어그러지지안는限 朝鮮敎育令改正의 趣旨에 基하여 이의施行上遺憾이 업기를期할것.

二、中等學校入學者選拔은 身體檢査 口頭試問、筆答試問과 初等學校長의 所見成績을 綜合判定하여 이를行할것. 但 資格試驗合格에 依하여 入學資格을 엇는入學志願者의 選拔은 身體檢査口頭試問과 筆答試問의 成績을 綜合判定하여 이를行할것

第二 身體檢査

一、身體檢査는 體格 體質 體能에 對하여 嚴密周到하게 이를 行할것

二、體格은 身長、體重、胸圍에 對하여 이를測定하고 그採點은 別表에 基하여 算定할것.

三、體質은 全身狀態、脊柱、胸廓、眼、鼻、咽喉、皮膚、齒牙 呼吸器、循環器 其他에 對하여 疾患과 異常의 有無를 檢하고 그 程度를 判定할것. 但 身體檢査의 結果 다음各項의 어느것에나 該當하는者는 入學을許可하지안흘것.

(一)結核性諸症 其他結核의 諸症있는者

(二)修學上支障있을持久性疾患 또는 [illegible]있는者。

(三) 이외에 [illegible]가있는 疾患있는者。但 [illegible]이있는者는 此限에不在함。

(四) [illegible]「도라홈」을갖는者또는 眼鏡으로써 〇・一以上으로矯正할수업는 視力缺陷있는者。

四、體能은 走力 跳力 投力 懸垂屈臂力 [illegible]에 依하여 이를判定할것

(一) 走力=男子는 百米 女子는五十米에서이를檢査할것

(二) 跳力=立幅跳에依할것

(三)投力=手榴彈의 模型을 써서 自己가 잘쓰는 손으로 立投姿勢에서 이를檢査할것。

(四) 懸垂屈臂力=鐵棒또는 橫木使用의 正面懸垂屈臂 女子는 地床上臂 立伏臥屈臂에依함을得함。

(五) 體操=學校體操敎授要目第一表小學校의 敎材中에 對하여 適宜하게이를行할것

(六) 前揭外에 實施可能한데서는 될수있는대로 肺活量等의項目을加할것。

五、第三項 但書該當者以外에口頭試問 筆答試問 初等學校長의 所見의 成績이 特히優秀한者에限하여 身體檢査에 있어 特別한 詮議를 加할수있음 但特別한詮議를加한者는 詳細히 그事由를具申하여 이를[illegible]官廳에報告할것。

第三 口頭試問

一、口頭試問은 言語、常識、志操、性行에對하여 簡潔히 이를行할것。

二、言語는 言語의明否、發音의 正否、訛音、吃吶、[illegible]等에 對하여 이를判定할것。

三、常識은初等學校敎材中簡單近易한 事項에對하여 試問하여 이를判定할것。

四、志操는平素에 皇國臣民으로서의志操와實踐狀況을檢査할것

五、性行은 言語 行動 態度等을通하여 發現하는 一般心意傾向 素質 性向等을檢査할것。

第四 筆答試問

一、筆答試問은 國語의讀方 綴方 聽取에對하여 이를行할것。

二、讀方은 尋常小學校第六學年의 現行文部省編纂國語讀本中에있는 敎材에서 이를選定할것 但必要에依하여 當分間 昭和十四年三月以前에 尋常小學校 또는 普通學校를 卒業한 入學志願者에 對하여서는 本文에依하여 選定한것과 當該志願者 第六學年 在學中에 使用한 國語讀本中에있는 敎材中에서 選定한것 어느것이나 入學志願者로하여금 選擇受驗케함을得함。兒童普通學上의 負擔을 考慮하여 敎材應用의 出題는 이를考慮中止할것。『후리가나』의 文字는 書取에出題치말것

三、聽取는 普通의文章의 意味를 把捉하고 또 그要領을 記述케할것。

[illegible]은 [illegible] 平易하고 正確的인것을 選定하여 [illegible]以外의 敎材를 使用[illegible]나 平素의 [illegible]에 依한 實力으로 容易히 解答할수잇게할것。[illegible] 一定 一人으로하고 [illegible]하게하여 [illegible]가 업도록 [illegible]은 充分히 注意할것 [illegible]은 二回로할것

第五 所見表와學籍成績一覽表

一、初等學校長은 入學志願者에 對한 所見表와 學籍成績一覽表를 志願中學校長에게提出할것

二、所見表는 改正學籍簿의 記載에 據하여서 別紙第一號樣式에依하여 作成할것 所見表記入에 當하여서는 原簿인 學籍簿의 記載事項에 相違업게할것。但、學籍簿記載事項以外의 必要事項을 記入함은 此限에 不在함。所見表에 記入할 事項은 最近二學年間에限함 所見表에는 校長이 直接記名捺印할것。

三、學籍成績一覽表는 別紙第二號樣式에 依하여 入學志願者의 在籍한 最終學年의 成績[illegible]하여 [illegible]

四、[illegible]

五、所見表와 [illegible]

六、各中等學校[illegible] 모두 [illegible]서서도 [illegible]

第六 採點

採點은 다음 標準에依함

(一)身體檢査 體格 一〇〇點 體質 一〇〇點 體能 一〇〇點

(二)口頭試問 言語 五〇點 常識 五〇點 志操 五〇點 性行 五〇點

(三)筆答試問 讀方 一〇〇點 綴方 一〇〇點 聽取 一〇〇點

(四)初等學校長의所見 [illegible]

第七 [illegible] 適用

一、本要項은 中學校、高等女學校、實業學校와專門學校入學者檢定規程에依하여指定을받은學校의入學者選拔에關하여適用할것

二、師範學校에있어서는 本要項의趣旨를參酌하여適宜實施함。

入門의負擔輕減뿐 門前의亂戰은未免

별항 조선교육사상 획기적인 중등학교입학시험제도의 개혁은 입학지원학동으로하여금 쓸데업는 저력을 소모하여 신체발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막는 뜻기픈 처사인것은 물론이나 결국 이것은 「입학시험제도의 개혁」에 그친바 중등학교입학난을 완화하는 처사가 아니라는것은 알아두어야할 일이다 웨그런고하니 종래의 입학시험제도에 의하거나 새로운 제도에 의하거나 중등학교에 입학되는 학동수는 현재의 학교학급의 수용력의 한도까지이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금번의지원학동수효가 작년과 갓다면 경쟁률(競率)은 결국 가타서 경성과 가튼데는 『십대일(十對一)』이내리지안흘것이다 아니 금년에는 초등학교졸업생수효가 작년보다 더만흘것이므로 자연 중등학교 지원학동도 증가할것이니 입학연옥(煉獄)은 한층더 초열화(焦熱化)할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입학시험제도의 개혁을 구가(謳歌)하는것만으로는 해결되지안코 중등학교의 대증설이 요구된다 이제 당국의 중등교육확충안과 초등교육확충안을 비교하여 보기로한다

제이차초등교육확충안에 의하면 소화십사년부터 십칠년까지 사년동안에 일만사백이십삼학급을 증설하여 전취학연령아동의 육할을 수용하기로 되엇슴에 대하여 제이차 중등교육확충안은 가튼 연수동안에 칠백학급을 증설하기로 되엇다 그리고 확충계획삼년째인 작년에 칠백학급의 절반이 못되는 삼백십이학급이 증설되엇슬뿐이어서 금년에는 계획을 당겨올려서 이백학급을 증설하리라고한다 그리고 소화십팔년부터 칠개년계획으로 세워、제삼차 초등교육확충안을 보면 초등학교는 제삼차계획이 끗나는 다음해인 이십오년에 이르러 의무교육실시를 볼수잇는데에대하여 중등학교는 입학지원학동 (이것은 초등학교 졸업생 전부를 가르킴은 아니라는것을 주목하야한다)의 삼분의이 즉 육할육분강(弱)을 겨우 수용하게 될것이라고한다 그러므로 중등학교입학난이 실제에잇서서해소될날은 까마득한 앞날의일이다

학무당국에서는 이때문에 중등교육확충을 위하여 만방면을 개척하고저 금년부터 경성、평양、대구、부산의 다섯상업학교에대하여 야간수업을 실시하여 실학급의 증가를 꾀하고잇스며 중학교에 대하여서는 현행교육령이 허하는 한도안에서 주요도시에는 이부제(二部制)를 실시하고저 연구중이다 그러므로 이방면의 입안이 선다면 다소는 입학난이 완화될것이나 이에는 교유(敎諭)양성이 또 못마칠것이라 전조선에 이부제를 실시할수업슬것이며 그러한 한도안에서는 일부학교의 이부제 실시로는 시원할 정도가 못될것이다

指導는綜合的으로
兒童發育完全에特히힘쓰라
養正中學校長 安鍾元氏談

학무당국에서는 초등학교학동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일직소학교에 대하여 중등학교입학시험에대한 과외(課外)준비를 금하여섯스나 중등학교에대하여서는 종래의 학력중심의 시험제도를 고치지안헛섯기때문에 일방적개혁에 그첫섯다 그래서초등학교에서는 시험준비를 안시켜도 가정에서 시험준비를시키는 폐단이 잇섯는데 금년부터 학력중심의 중등학교 시험제도가 전반적으로 개혁된것은 대영단이엇다 특히종래 참고정도에 그치엇던 신체검사와 초등학교장의 소견이 채점에들게된것도 체위향상을 위한개혁보취지와 평소학교에서의 실력을존중하는 본의에 맞는일이라 당연하다고 할것이다 입학시험을 하는 중등학교측으로서 초등학교측과 가정에 대하여 특히디릴말슴은 채점요항에주의 하라는것입니다 즉신체검사와 필답시문이 각각 삼백점이요구두시문과 초등교장의 소견이이백점이라는것을 머리에너코 학동을종합적으로 지도해야 할것입니다 조목을따라 말씀을 디린다면신체검사는 체격과 체질, 체능에대하여 보는데 이제부터는 학동의 머리와함께 신체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해야하게되엇습니다 이는 머리가 암만조타해도 몸이 약해서는 장래를 촉망하기가 힘다든것을 국가가 명백히 말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발육완전에 힘쓰고 질병이나 이상이 업도록 주의해야할것은 물론 한거름 더나아가서 건전한 사람으로 가저야할 체능—다름질, 뜀질, 던지기질, 팔힘등을 기르기에 유의해야겟습니다 투력(投力)대대하여 당국의예규에 「수류탄(手榴彈)가튼것을써서 검사하라」고 지시한것은비상시국민으로서 만일의 경우에 전투할만한기능을 가지라고 가르친것이라 볼것입니다 다음필답시문에 잇서서는 읽는법 글짓는법은 종래와가트나 청취라는 새요항에 주의해야겟습니다 이것은 글이나 말의 의미를요령잇게 포착케하려는 것으로서 명석한머리를 만들어야 되겟다는견지에서 너흔것이라봅니다 셋재 구두시문에는 새로운말과 상식、지조、성행을 너헛는데 이것은 특히 지식이외의 인물됨을 보는것으로서 이것은 특히 가정에서 학동지도를 잘하여장래의 원만한 인물이되도록 힘쓰게한것입니다

마지막의 소견표는 학동이나 가정과 직접 관계가업고 초등학교교장의 판단에달렷다 이것은 당국에서도 그『작성에공정정확을 주지로하고 그취급에신중을 기하라』고 잇는만큼 초등교장이 격별히 공정정확하게 만들어야할것이다 소견이 조코 나쁜데 학동의 장래가 좌우되는바 큼을 느낀다면 책임잇는 작성을 하리라 기대된다

家庭의協力을
齊洞小學校長 朴勝斗氏談

총독부 학무국에서 이번에 중등학교입학시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한것은 단순히 중등교입학지원아동들을 시험지옥에서 구한다는 소승적(小乘的)견지에서가아니라 신동아(新東亞)건설에 절대로필요한 제이세국민은 학식만 아니라 체력과 인물에 잇서서도 탁월한 국민이 되어야 할것이라는 보다 노픈 견지에서 단행한 신교육방침이라고 봄니다. 즉 종래의 학력(學力)편중에서떠나 성행(性行)과 체력에도 중점을 두는것입니다

이러해석아래서 새로시행될입학시험제도를보면 초등학교당국과가정에서의 지도방침은 명료해진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의입학시험은 필답시문(筆答試問)과 구두(口頭)시문、신체검사의세가지인데 첫재학력에잇서서는본래부터 저는교원들에게 학년마다 그학년에서의 충분한실력이 붓도록 힘쓰라고 일러오므로 초등학교를졸업하는때에는 중등학교에 입학할수잇슬만한 학력을 가추게됩니다 그러므로 따로특별히시험준비를필요는업습니다 둘째로 신체검사는 금번처음으로 체격 체질 체능(體能)의 세가지로 나누어 검사하는데 그중 체능을검사하는것은 참으로 회기적의일입니다 아동의 신체에대하여서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여 소극적방면으로는 늘기생충(寄生蟲)이라든가『트라홈』위장병등이업는가、주의해서 조기(早期)진료를 하는한편 적극적방면으로는 규칙생활을하고 냉수마찰이나、건포(乾布)마찰가튼것을 시켜야 하겟습니다。종래 조선가정에서는 학교아동의 지도를 지식방면에만 편중하여 왓섯는데 인제부터는 체육방면에 더욱힘을 써야되겟습니다。저이학교에서는 상급생에게는 특히 방학때라도(겨울이면) 피구(避球)스케-트등을시켜 추위를 싸워이기도록 하고잇습니다。이러한 단련주의가 철저해지면자연 체격과 체질향상에 훌륭한 효과가 잇슬것입니다。체능시험에는주력(走力)조력(跳力)현수굴비력(懸垂屈臂力)투력(投力)등을 보는데이점도 늘지도해야겟습니다 셋째는아동의 인물평가인데 이것은 학교보다도 특히 가정에서 잘 지도해서 원기발랄한가운데도 인품이 고상하고 언행이 침착정숙하여서 훈일의 큰인물이될 밋바탕을 닥도록해야겟습니다。구두시문의일부와 초등학교장의 소견표(所見表)는이러한점을 보는것이므로 평소부터 이점을잘지도해야겟습니다。

이상을 종합어 말하면 종래는 지식만잇스면 입학되던것이 인제부터는 지식、체력、인품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조화하야만 입학되는것이라하겟습니다。

扶餘 扶餘郡敎育會 代表者 下居敏夫

扶餘尙武會

扶餘邑內 合名會社 扶餘酒造場

扶餘邑內 各種印刷 和洋紙物 諸帳簿 文化印刷所 電話三六番 振替京城三一〇九八番

扶餘邑 扶餘醫院 院長 金晋仙 產婆 金卿女 電話三七番

扶餘邑內 朝鮮料理 泰平館 主 尹貞明 妓生 洪善花 外七名

扶餘邑內 學務委員 禹壽萬

扶餘窺岩 朝鮮料理 蟻碧樓 妓生 李蘭珠 李錦紅 外六人

扶餘面舊衙里 學校評議員 黃治

扶餘邑內 開城旅館 主 崔錦仙

扶餘邑內 扶一旅館 主 金弘培

扶餘邑內 扶陽旅館 主 崔炳周

扶餘邑內 論山食堂 主 朴明仙 海中月

扶餘郡石城面石城里 金鍾午

扶餘 半島醫院 崔鳳煥

扶餘邑內 扶餘金融組合評議員 姜泰秉

扶餘邑內 司法書士 李圭益

扶餘邑內 朝鮮料理 賞春園

扶餘郡石城面 豐田組南山鑛山 鴻石製錬所 主任 李尙範

扶餘郡石城面石城里 面協議會員 兪甲植

扶餘邑內 姜秉河精米所

扶餘郡場岩面 面協議員 崔在鳳

論山 ◎交計店 丸大運送合資會社 電話一〇三番

論山月曜會

論山邑本町 撞球同志俱樂部

論山旭町 朝鮮料理 東洋館 電話四三番

海陸物產委託貿易 朴敬卓商店 店員 閔瀛圭 店員 許植

論山邑旭町 裵榮春 電話六五番

論山旭町 至誠醫院長 金憲植 電話一八番

論山邑旭町 尹虁炳 電話七五番

忠南自動車運輸株式會社 論山本町電話六〇二番

扶餘郡草村面草坪里 池在九

論山邑旭町 和洋料理 角松 李用珠

論山郡林業係 主任 黑岩實 外職員一同

論山旭町 天誠堂病院 院長 郭海鳳 副院長 李範洵 電話二五番

論山本町 吳淳根 電話一七番

論山邑本町 ペンキ塗看板業 朴來元

論山邑旭町 大興旅館 電話二番

論山邑本町 指定古物商 朴龍鎭

湖南線論山驛前通り(大田大船商會支店) 東一洋品店 主 姜泰鎬

扶餘郡場岩面紙土里 場岩警防團顧問 玄德圭

扶餘郡林川面店里 鞍峙金鑛事務所 洪承瑋

扶餘郡林川 林炳善

扶餘郡林川面 面長 千元根

扶餘郡林川面 金鎭哲

扶餘郡林川面塔山里 林川面協議員 黃仁喆

扶餘郡場岩面紙土里 南基天

論山邑旭町 石版活版 カーレンダ製造 李斗夏

論山旭町 論山劇場 金翊洙

湖南線論山驛前通り 論山ゴム工業所 主 鄭英煥

論山旭町 ㊂三和運送店 電話六五番

論山邑旭町 印刷製本 日新堂 主 周東國

論山本町 土木請負 任福淳

論山邑本町 洋雜貨店 裵榮度

忠南論山旭町 朝鮮精米株式會社論山支店 支店長 林田久仁男

論山旭町 錦江カーフェ 主 權榮植 電話五二番

論山郡新炭斡旋組合 裵一煥

論山邑旭町 昔判釗商店

朝鮮忠南扶餘郡林川 鬼頭五郎市

百貨商 三信商會 朴魯元 扶餘郡林川市

林川 扶川市 京城旅館 高錦東

扶餘郡良化面笠浦里 林川金融組合笠浦支所 理事 李鎭夏

扶餘郡林川 林川醫院 公醫 辛英善

扶餘郡場岩面紙土里 閔贊植

扶餘郡場岩面紙土里 閔夏植

謹賀新年

北 京

北京 明從雨

北京居留民團

居留民團參事議員 鄭錫鎔

居留民團議員 朴海雄

北新橋辛寺胡同二十四號 朴泳混 電東六〇五六番

前外少李紗帽胡同 裕昌號 安吉德 電南一七五三番

宣外丞相胡同六號 合資會社 朝日テント公司 電南 二〇八八 一九八〇 二三七三

東城東堂子胡同五四號 東業興業 金融組合 電東六二一一番

東城草廠小門十六號 崔元峻 電東七六五番

前外韓家潭二五 大同醫院 院長 李得載 電南二七八六番

宋百憲

居留民團議員 金碩訥

東四、十二條六號 鄭斗鉉 電東二七六八番

東單蘇州胡同 中嶋時計店 李圭禹 電東二三九六番

東內[illegible]胡同十五號 北京源氏 測量社 李源

崇外河泊廠一三九 申鉉祥

崇外河泊廠一三九 劉載順

前外大將家胡同一二八號 金明業

東城北鈴鐺胡同十一號 金貞秀 電東三四二四番

東城鮮魚巷四八號 申斗混 電東七七九番

東四北大街 日興商會 吳啓鎬

東四多福巷甲十八號 朝日テント公司社長 尹致衡 電東三八九三番

東城草廠小門三號 李青龍

東城三元菴二十六號紗門 金孝丁 電東一三四四番

前外西河沿 振聲飯店 金良鐸 電南 二七〇七 三六四七 三一四四 四〇四二番

前外手帕胡同二八號 華北戲院 主 崔鳳瑞

王府井大街 平山齒科醫院 院長 申仁澈 電東五八四四番

東城水磨胡同十號 東城齒科醫院 院長 李昌榮 電東四五七九番

東城東總布胡同十七號 齒科器械及材料 昭和齒科商會北京支店 代表 趙六萬 電東四七二五番

西城棉花胡同三十二號 李才奉 電西一四一九番

西四蘇蘿卜胡同七號 金華商會 文粲奎 電西二八五三番

東城王府大街六四 合資會社 昭和印刷社 電東 四二九一 四七七四番

前門外大川路二番 觀相師 白泰龍 電南三一二五番

西單捨飯寺十號 承信洋行 崔承龜 電西一〇六六番

西城武王侯胡同三十五號 利豐洋行 崔承南 電西二五二三番

北新橋細管胡同八號 大亞公司 張鉉泰 電東三四〇九番

東單蘇蓉線胡同六號 中和公司煉瓦工場 主 金文熙 電東一一三六番

東四、八條胡同五十七號 金孝鎭 電東三九二四

蕎麥精米製粉工場 泰昌商會 主 李禎泰 地內恭儉胡同四一號 電東三八四四

東四六條胡同七十五號 鴨江商會 徐丙鎬 電東二七七八番

鮮魚口南孝順胡同二十四號 張德三

北新橋船板胡同三十七號 金碩九 電東六〇七一番

東單棲鳳樓二十八號 東方洋服店 朴貞緒 電東四六六八

地內黃化門大街四四 朴奉連 電東六〇七九番

前外櫻桃斜街八十一號 張炳元

東四 西楊威胡同九號 崔昌成 電東四〇五八番

前外博興胡同二十號 保民醫院院長 李泰環 電南一五九三

前門外韓家潭 甲種料理 食道園 尹鳳秀 電南三四六八

東城燈市口 カフエー聚和 鄭玉敬 電東 五三七五 五九六〇番

東城燈市口 カフエー半島 電東二一二九二番

東城官帽胡同十二號 カフエ白駒 電東二七八一

カフエー上海 東單二條胡同

東單三元菴一號 甲種料理 紫樓 主 孫將鐵 電東三六八四

前外延旺廟街八號 崔基萬

和內松樹胡同十號 製鞄公司 尹瑞禎 電南三五八五番

和外後孫公園二號二十五號室 金基烈

前外蓄鐵路三十一號 朝鮮酒造場 李裕壬

前外呼兒路三號 新光商會 安元廷 電南四一六八番

前外大川路二巷一號 鄭海赫 電南二一八五

內科 小兒科 性病科 東華醫院院長 金英哉 西單報子街十八號 電西一九二五

西單北大街一四五號 大元運輸公司 電西 三二四〇 七三三 三三三

白米食料雜貨 三共商會 西長安街八八 電南二九八七

前外西河沿 食料雜貨 貿易商 中和公司 柳鎬 電南 四一一四 東三六八〇

東單八寶胡同 北鮮旅館 洪龍範 電東三二九七

東單蘇州胡同一〇七號 平壤旅館 朴仁淑 電東四一四五

東單二條西堂祿街乙一號 朝鮮旅館 孫順鳳 電東三〇一五

西城前鐵胡同二七號 天和製公司北京出張所 金秀 金東郁吉

宣外大川淀二十四號 黃宗洛

北新橋慧照寺甲三十六號 金希範 電東五九七七

和外後孫公園二號 淸風莊 崔用大 電南二四〇一

西城中毛家灣甲二十六號 白米商 喜道洋行 電西三四六八

前外陝西巷 鷄林號 電南三七六番

東四猪市大街五三 河明信

北新橋細管二十號 徐丙俊 電東一六六四

東四、錢糧胡同西花園七號 金景雲

前外粉房琉璃街十三號 日勝洋服店 申鶴壽

前外粉房琉璃街十三號 方之燮

東四 五條牛圈胡同九號 金得連

東單棲鳳樓六八號 各國時計 貴金屬 白金細工 藤本時計店 主 鄭世煥 電東三七一六

前外萬明路三十一號 食料雜貨製著 各種鮮服裁縫 泰昌號 電南四九四

前外百順胡同 料亭 振興館

前外萬佛寺灣 料亭 滿月樓

前外陝西巷 司法書士 沈昌先

前外達子營十二號 徐炳源 電南二四七七番

南池子菖蒲河九號 皮膚專門 永岩醫院院長 金永岩 電東五八二九番

東單八寶胡同乙十一號 婦人洋服專門 工稍價廉親切 順德洋服店 電東一一六〇番

朝內南水關四十七號 李鳳浩

前外下東河沿三號 京津裕華運輸公司 代表電南分一〇八番

崇外東[illegible]胡同卅二號 金用烈 電東六九三番

東單洗白[illegible]胡同十號 京城屋 崔英善 電東五三〇四番

前外分洲營九號 東信商會 李永祿 電南四一八六番

朝內南煤胡同十八號 韓志寬

東四 八條五十七號 李成浩

東單新開路四十一號 共榮疊店 朴成淳 電東三二七七番

地內水[illegible]灣[illegible]胡同甲九號 古物商 萬聚號 崔承[illegible]

東四六條流水溝十四號 安藤榮

東四、南大街報房胡同四十九號 朝鮮日報社北京支局 金碩寅 電東四三八九番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六

産業平北에 大衝擊
流筏問題는 樂觀不許
中小工業振興과 人的資源確保도 急先務
平北道篇

世紀的怪奇 水豊"땜"의 波紋

沈 지금부러 좌담회를열겟습니다 일기도칩고 더욱이 밥두한연말에 분주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이처럼 임석을 하여주셔서 대단이 감사합니다 약진도상에잇는 평북으로서도 신춘을마지함에잇서 교육 산업 교통에 이르기까지 활엄이 한두가지가 아닐뿐아니나 그중에서 무엇보다도 긴급한문제가잇다면 기탄업시 말씀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는 채경필씨에게 부탁을합니다

(사진은 좌담회)

蔡氏 주최자가 편의상 사회를 하라는 요구가잇서서 제가하겟습니다 위선 교육문제에대하여 어느분이 말슴하여주십시요

教育問題

沈 교육문제는 비단 평북만이 떠들문제가아니라 전조선적으로 중대한문제이니만치 일반론보다는 평북의특수성 예를들면 본도는 광산지대가만흐니 광산기술자양성이라던지 혹은커다란 공업지대가 조성되어잇스니만치 공업학교문제 혹은농경무역지대라 실업학교등이 필요할것가튼데 그러한 특수성을들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주섯스면 조켓습니다

鄭 본도는 초등교육은 다른도에 지지안케정비되엇스나 이졸을수용할중등정도 교육기관이 편부족합니다 신의주내에도 중학교상업학교가 한두개잇기는하나 부내 초등교졸업생을수용할수업다하고 잇스므로 중등학교증설이 무엇보다 긴급문제인데 재정이 문제입니다 광산방면이나 신공업기술자양성도 필요함은 물론입니다 현재 갑종상업졸업생은 각종 회사방면에서 끌어가는바람에 상점경영자들은 점원구인난으로 곤란한모양인데 야학정도로 실업학 광산、토목과가튼것을 소학교교사를 이용하여 경영하도 조흘것입니다

蔡 졸업생취직이 그러케 조흔가요

鄭 전부취직이됩니다

蔡 은행이나 회사는 생활보장을 할만한대우를 하니까 그리가는 모양이니 상점에서도 그와가튼 대우를 하여야 되겟군요

崔 고등교육보다는 실지에적용한 간이학교가튼것을 설립하엿스면 조흘뜻합니다 농업학교졸업생더러 자작농사를 짓는것이 어떠냐고물은 일이잇지만 역시 학교졸업생들은취직을조하하는 경향이 만흔것갓습니다 공업이나 상업을자영하는것이 월급보다 더 나은것을 모르고 월급생활에동경이 심한경향이잇는듯합니다

鄭 공업방면에 대해서는 도의 방침은 지금 직업학교를 장차전문정도로 승격시킬모양인대 현재수용은 얼마못하고잇서 상공방면학교는 우선 을종정도부터 순서를밟아 설립하여야만될줄압니다

白 저는 주로 상점개로 볼것을 말씀드리겟습니다 학교졸업생중 성적이 우수한학생은 모두 은행、회사급사는 희망하여도 개인상점은 희망치를 안습니다 그야상점에서도 봉급을 만히주면오겟지만 개인상점이 은행、회사가치 대우를할수는업는형편이므로 성적불량한 학생이 상점이나 그러치안흐면 북지(北支)방면으로 가게됩니다 국민경제력이풍부하자면 인제가만하야 될것이므로 강습소보다는 연한이길고 갑종상업보다는 연한이짧은 을종상업을 만히설치하여 상점에 적당한인물을 양성함이 필요할줄압니다 여자들에게도 어런교육을시켯스면합니다

崔 평북에는 선천(宣川)에만 상업보습학교가잇스니 그만한정도의학교를 각처에설치하엿스면 조켓습니다

鄭 먼저도말햇지만 야학이필요합니다

金 상공학교설립은 결국자본이 문제인데 유산계급이 출자를 하여야되겟지요 또한 점원이나 직공은 인격함양이필요할줄압니다 그러케하자면 역시 야학실시인데 현직공이나 점원을 중심으로어넌정도의 간이학교가조켓지요

李 공장직공중심은 가능하지만 상점점원은 어려울줄압니다 우리공장에서는 공장안에교실을맨들고 기술과학술에대한강습을실시중인데 지금가태서는 기술자양성은 현장에서 양성하는것이 급선무일줄압니다

金 그것은 개인개인이다 그러케할수업스니까 단체로하는것이어떨까요

李 그것은 직공의직무가 다르니까 불가능합니다

鄭 모-든것이 역시 재정이문제입니다 교육문제는 여론을환기할 필요가 잇지안흘까요

宋 교육에대해제가생각컨대 의무교육실시가당면문제가아닌가합니다 농촌에(農村)인재를 배출시키자면 간이학교등조흔정도학교확충이필요한데 어에는 다시 지도자를 양성할사범학교를 먼저설치하여야되겟지요

鄭 사범학교는명년에 설립될가망도잇는듯하다는데요

宋 되면조켓습니다

白 점원이나직공의 질을향상시키는것도 필요한데 그들을다라에서 구항은 그들개인은 물론 상공업전체를 구하는게될게얘요

蔡 그들에게 무엇보다 훈련시키고 발표할기회를 만히주도록하여야겟지요

蔡 그러면 교육문제는 그만하고 산업문제에대하여 말씀해주십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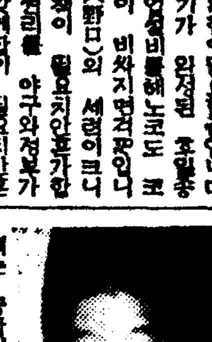
產業問題

沈-평북의 산업경제는 조래압록강을중심으로발전되어온것인데 수력전기개발의"땜"공사로 말미아마 산업에큰변동이 이러날것 갓습니다 압록강과 가장 인연기푼 조상옥씨와 송관섭씨께서 압록강을중심한 산업경제에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趙 신의주는 압록강연안의 물짜로 발전을보앗습니다 그러던것이 땜공사로인하여 목재문제에대한 근심은 이로말할수업고 어데마를 희생자로상당이 만흘줄 압니다 그러나 아프로는 풍부한전력이 생길것이므로 조금도 비관할것이 업습니다 전력이 풍부한외에 공업용수가 도한풍부 하므로 큰공장이 속속설치될줄 압니다 그러나큰공장이 설치된다고 상가에 그러한 혜택이 잇스리라고 밋지못할것이므로할

받은 중소공업에 주력을두고 그방면에 진출함이 필요치안흔가합니다 시국관계로 이것도용이하지 안흘줄압니다 물자와 인재부족이 극심하니까 그러점을 고려하여 착수하여야겟지요 물자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절실히 느끼는것은 이것을운용하는이들이 철저이연구하여 불평이 업도록해주엇스면 조켓고 통제문제 운용에잇서 잘못가튼것이 잇다면 귀지가튼분자에서도 지적하여 지(紙)상에 발표하여 주엇스면조켓습니다

宋 유벌에대해서 말슴드리면 상벌이안누계를보면 이백이십만체(締)가나려왓는데 안동으로 상류지역이 건너간것을제하고 신의주에만 삼천만원이란는생산고를보이고잇습니다 이에따라 생활하는이는 호수로삼천호약만여명이생계를하여오던것입니다 떼이생기면 삼사백리의호수가생기고 여름에는 동남풍이불어 배로떼목을 끈대도미기는어렵고 떼목을풀리구멍으로내보낸다니 신통치안흘것가태업자의 우려는큽니다、섯바가완비되엇다해도 잘못되면 할수업스니까 떼이잇는수풍(水豊)서신의주간에 철도를 부설함이 무엇보다필요합니다 또공업지대가 조성되어내지재벌이 공장을 설치한다고하여도 이지방인민에게는 개방치안코자 자기거를 끼리만하는것가트니 이것도 지방인과제휴할 필요할줄압니다



崔 수력전기가 완성된후 전력이 비싸지면 곤란합니다 야구(野口)의 세력이 크니만치 대책이 필요치안흘가합니다 즉권리를 야구와정부가 함께 갓게함이 필요치안흔가 생각한다

宋 야구가 발전(發電)권 송전(送電)권을 쥐고 가지것이라 저이지요 호수가 생기면 유벌에는 큰지장이고 야구계에서는 상류원목을 다른곳으로 만들생각을 한다는 소문이아니나 사변후겨우 경제회복이 된것이 도리허도는가 보군요

蔡 산업전환의 필요가잇겟지요

崔 신의주、다사도간에 공장지대가 조성되니까 조키는하나 공장유치로 토지갑시 헐해저서 걱정됩니다 어허생이 너머크니까 회사측은 지방민을 생각하고 회사를개방하도록해야될줄압니다

沈 공장유치에대해서는 당국에만 맛기지말고 민간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회사(주)를 자지개방도록 함이 어떨가요

崔 그러케하는것이 조흘줄압니다 그리고 공장의토지점령인데 멀이상의토지를 헐까로 사두는예가잇는데 이런것도생각할문제가아닐까요

鄭-민간에서 공장유치운동을할은 아직 업습니다 이런것은 지방민자체가 서들러야할문제이지요 그리고 수전땜문제는 비단유벌문제만이아닙니다 수운이막혀 생둔와의 경제로가 두절되어 경제계에 큰 압영이 생겻지요 그런데 전력공급을보면 전부이십사만키로중 야구계에서삼분의일 평남지방에서 삼분의일 평북이삼분의일이니까 겨우팔만키로와

게는 공급이 아니됩니다 그러니 전력도시설은 그리충분한것이아닙니다 도당국은 도에 신뢰만하라고하나 어대상을요구하여야 할줄압니다 공장유치도 민간도협력을 자진해서 하도록-

宋 도내로서 필요한것은 금정전(今井田)정무총감시대 산미증식계획으로 보조금을 주엇든것이 잇지만 애림(愛林)보조금가튼것이 잇섯스면합니다 평북은 산이다른데비해서 만흔데 이만흔산을 이용하여 식목대금을 박지말고 빨리성장하는 나무를 무상으로배부하여 주엇스면 조켓습니다 도가내공업을장려하는데 논이만흔곳은가마니、논업는곳은「가이팔후」혹은 목재를이용하는것을 도시외지방농촌부업에 적당토록 장려함이 조흘듯합니다

沈 농촌공업화란는말이 잇는데 이것은 농촌이 공장지대로화한다는말이 아니라 농촌에노동여력과 동한기를 이용하여 가내공업 즉수공업에 종사케하자는말이 아닌가 해석됩니다 그만한정도에 수공업은도시에만맛게 하지말고 농촌으로 주입시키는것도 조켓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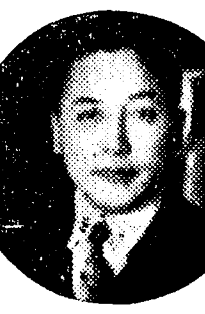
崔 농촌에부업을 줄이 필요하겟지요

沈 광산방면은 어떤가요

蔡 금갑시 다른곳보다 비하여 너무쌉니다 산금회사가 잇기는하나 이용하기가 곤란하므로 도에다 산금가튼것을 설치함이 조치안흘가생각합니다

沈 광산기계를 맨드는곳이만흔데 구매력이어떠합니까

李 광산기계는 평북서 자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내지제품을 쓰는곳이 만습니다 당국에서도 되도록 조선안품을 쓰도



록 장려를하고 잇스니까장차는 현지공급이되겟지요 중소광산에서는 기계설치등자금으로 큰 어려우니까 산금회사가 큰것이잇서 자금을 융통해주어야될줄압니다

交通問題

蔡 다음 교통에 대해서말슴해 주십시요

白 만포(滿浦)선 정삭(定朔)선이개통된후로 신의주는배후지경제지대를 일허 큰 타격입니다 상류와의수운도막혀고 하엿스니 강안척식철도(江岸拓殖鐵道) 부설이긴급하지 안흘가생각합니다 동계는 안동(安東)과 신의주사이에 기동차수를 늘려 국경연락을 지밀히 할필요가잇겟지요

宋 철도부설은 물론필요하겟지만 그러나 복선은 급속히 준공되어야할문제고 신의주도 나날이번성하여 교통이복잡하니만치 시내전차부설도 긴급문제이나 일시 물자난으로 어려울겟이고 빼쓰도 물론잇서야될겟습니다 도장두랑두(三頭浪頭)신의주간의발동기가튼것도잇서야겟지요

蔡 압록강에 도선장(渡船場)증설도필요하겟지요

鄭 교통은당국의 방침이 개인에게는허가를주지안코 공동단체에주기로 되어잇지요 빼쓰는신의주부내의 간선은사개변개회을 계획중이고 척식철도는기성회가 아직 나마잇스니까 촉진운동을할필요가잇겟지요

蔡-그러면 교통은 그만하시고 기타문제로 들어가겟습니다

其他問題

白-현재상인은 극히 곤란합니다 자유경제에서 통제경제로 들어가고보니 어쩌면 조흘는지 물건을파는데 공정가격 ―구일팔(九・一八)― 물가정지령으로 말미암아 극히곤란한데 당국[illegible]

에서도 적발수의보다 지도수의로 나감이 조치안흘가 생각합니다 참으로 상인은 방황하고 잇습니다

宋 유벌에지장이 잇스면 연료가 큰문제인데 연료문제를해결하려면 연료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국유림을 사서일변배면서 한편식 목을하면 조켓습니다 또그회사에서 존에서들어오는 나무를 사게하여가 격가튼것을 일률로 하게하엿스면조켓습니다

鄭 용천(龍川)지방에서 나는니탄(泥炭)을 대량생산시켯스면 신의주의연료난은해소되겟지요

沈 여러분대단히 고맙습니다 머는것스므로 이만그치겟습니다 다 (끗)

出席者 (順無)
- 趙尙鈺 (新義州商工會議所副會頭)
- 宋寬燮 (商工會議員)
- 白世彥 (〃)
- 鄭元燮 (新義州府會議員)
- 蔡廸翊 (〃)
- 金善株 (〃)
- 崔允鼎 (醫師)
- 李東洙 (商工會議所書記長)
- 本社側＝沈貞燮 (特派員)
- 李炳瑀 (平北支社記者)

咸北道私學界의 三大懸案解決에
일꾼은 純直、大膽、堅忍持久가 必要
咸北道篇

파란과 곡절을 만히격근 기묘년을 보내고 마지려는 경진년에는 무슨문제가 함경북도、건설도상의 함경북도에 나타나려는고 역시새해의주문이라 지난해의 남은숙제에 불과할것이요 또 지난해의 노력을 어떠케햇스면 새해에는 결실을 볼까하는 새로운방법등에 끄치지 안흘것을 미더도 조흘뜻하다. 무릇 지방을 따라또는 시기를 따라별스러운 대수현안이잇지만 여기서 들추고 시끄러운것은 역시누구나 보편적으로 부르짓는 교육문제를 첫손곱으려 한다 교육계중에서도 지난일년동안은 사회계를 회고하면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만헛다 청진에는 동명학교(東明學校)의 문제가 잇섯고 어랑(漁朗)에는 어랑중학(漁朗中學)문제가 잇섯스니 전자가 분규를 거듭하면서도 일치협력로 움지겻든 것은 (숨길)수업는일이엇고 후자가 천만에뜻도하지안튼 외부의 시청을집중시킨가운데 착착성과를어더 토대를 닥것다는 것은 이해의 크다란소득이요 동시에 교육함북에 둘도 업는 쾌소식이엇섯다 한편청진에 나타난철도학원(鐵道學院)의발전도 응당사회계의 숙제로 여기에열거할일이다

東明(泰成)學校問題

=지난 일년동안 혹은세상의 이목에 알리게 혹은모르게 학교관계자를 상중간에이러난모든 분규는 자라나는 교육계를 위하여 결과에잇서서 크다란치욕이요도장해가된점은 지적 안흘수업다 상세한 내정을 그릴것도업시모두가 학교를둘러싸고 학교당국자나일군들전부에 책임잇는 일이엇스니 시비곡절은 만들면 얼마던지밥굴될것이므로 이들의 모든구실과감정을 피차에포기하고한거름 더노픈곳에안저서 문제를본다면 수습을 못할일도 아니엇든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된다 이가튼 불찰때문에 대외적으로 호기를 노쳣다는것을 애석해하는데서 피차가 동감한다면 다시 순직한 교육가적 정열에 돌아가 선처할일이 아닌가—— 새해를 마지하는 동명학교(십이월에어르러 태성학교로 개명)의 문제는 피차가 책임을 느끼고 또 종래의 운동방법을재검토하는데서 인적요소의 개편을 보지안코는 파오를 되푸리하매 불과할것이다 요컨대 진영을 일신하여 소위 갱시일신(更始一新)할것이선결문제라 할수잇고 다음은 운동방법을 신중히 또유효적절하게전개시키지안흐면 안될것갓다

漁朗中學問題

=경성군 어랑면이라면 지도를 내여노코 차즈려야 차자내기어려우리만큼 세상에서는 숨어잇는 농촌이다 그러나 이곳에는 어꼿만이 가질수 잇는 특성을 가지고잇스니 일、꿋꿋한 단결력 이、희생적봉사심 삼、치렬한 교육열의세가지로 자고로 인근지방에서정평이잇섯다 그러타고 여기서 중학교를 세우자는 운동이 이러낫슬이야 누구라 아랑곳하리 업건만 지난봄에 돌연히 고함을치고 나선것이 어랑면을 중심으로 "우리의 힘을모아 중학을 세우자"하는 고함이엿섯다 그방법은 어미전해진바와가치 각종중재산(宗中財産)을 한데모아서 육십만원재단을세우게한것이다 문자그대로 남녀노소가 총동원햇고 관민일치의 미증유를남김업시발휘하여 일사천리로 운동은진전을보여 연말까지에는 정당한 평까로 사십여만원 즉오십만원에 가까운 거액의 거출에 성공하엿다하니 이얼마나반가운 일이며 거룩한 공적이랴 한번 발스길을 여기에드려노으면누구나 일군아닌사람이 업고 누구나 공동의목적달성아래 단결안된이업고 그열성이 또한놀라운데 놀라지안흘수업다 다행히 도학무당국에서도 여기에는 크게감동되는바잇서서 아프로 적극적지지를하게되엇다하니 이또한 순조로운발전을기필하거니와 이제 새삼스러운 편심처리는 최후의 한순간까지 일꾼은 순직하고 대담하고 또견인지구의정력으로 목적관철에 돌진하여야할것이고 한편면내는물론 인접한 여러면들로서도 이자랑스러운 운동을 방관햇다는 천주에 남을 치욕을사지안토록 분발할것이요 또인접한 어대진(漁大津)은 청진에버금가는 대어항으로 경제력이 풍족한곳이니 비단 종중재산에만 의뢰할것인가 특지가가 속출하여 거룩하고명예로운 이운동을 성공시켜야할책임이 잇는것이다

▲淸津鐵道學院問題=특수학교로서 출발한 동교는 태성학교나 어랑중학처럼 방대한 재단이 선결문제가 안된다 처드라도 여기도 상당한 재단은잇서야할것이다 학교당국자의 열성이 보답되는날을 기다려 좌우를 말할것이지만 설립자들의위용(偉容)에대해서 적막한 느낌을 숨길수업스니 설립자되는제씨의 좀더구체적인 발분이잇서야할것을 통감하는바이다

×

이리하여 태성학교나 어랑중학이나 또는철도학원이나 할것업시 이들세계의학교만은 제일먼저또전후하여 새해를 기약하여 꼴에돌진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함경북도 백만인의 소원이다

(咸北特派員吳快一)

京元線鐵原邑 鮮一百貨店 主 趙賢奎 電話二二七番

鐵原本町 高級洋服調製 洋服部 紳士淑女製靴洋靴部 德基商會 主 朴德基 電話二四〇番 電略(ト)又六(トク) 振替京城二四〇四三番 平康支店

京元線鐵原邑 セメント製造販賣、土木建築請負業 中山組 代表 中山佐二郎

鐵原邑 醫師俱樂部 救世醫院 邊基栢 協成醫院 李益秀 中央醫院 金麗潤 鐵道醫院 崔允梧

米穀類 御賣小買 京元線鐵原 新年モ一層御用命ヲ乞フ 東一信精米所 雨一釀造場 主 黃德文 電話三九 振替京城二二八六番

鐵原邑學校長會 鐵原高等女學校長 德田清克 鐵原尋常小學校長 神谷六三 鐵原南小學校長 吉尾勳 鐵原農民學校長 矢野次郎吉

鐵原倉庫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尹德昊 取締役支配人 李斗承

帝國生命保險株式會社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鐵原代理店 多田儀市郎 電話二〇三番

喪中欠禮 方應容 方應三 方應俊

鐵原邑 大橋組鐵原出張所 電話二〇九番 三友鐵工所

朝鮮料理 大成館 主 林光云 電話三三番

富國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 鐵原代理店 林榮一

京元線鐵原邑內 親切叮嚀 美麗第一 大成旅館 主 金元鎬 電話五七番

穀物貿易 精米製粉 大成精米所 主 崔濟東

中央水利組合

慶事應用 親切叮嚀 迅速賃廉 鐵原人力車 駐車場本部 理務 李健植 電話六二番

京元線鐵原驛前 (二)鐵原荷主組運送店 代表者 韓奎錫 電話一六四番

鐵原郡新西面寶蓋山 深源寺 住持 李鐘學

京元線鐵原邑內 建築請負 建具農具 和洋家具 神社專門 鐵原製作所 主 李在龍

京元線鐵原邑西門通 關東冷麵屋 朴奎薰 電話二一八番

鐵原邑內 東亞理髮館 主 李億石

金剛山電氣株式會社

朝鮮京元線鐵原邑內 高級洋服調縫 京屋洋服店 盧澤珠

朝鮮京元線鐵原驛前 倉庫運輸業 (同) 協同組運送本店 代表者 張成龍 宇拔承認店 交計加盟店 代表電話一四二番 取引銀行 殖銀鐵原支店

李德一 電話一四三番

鐵原警防團長 鐵原邑會議員 上坂宇八

鐵原邑會議員 朴顯洪

鐵原邑會議員 李炳龍

朝鮮中央無盡株式會社鐵原出張所 所長 申完徹

鐵原邑會議員 李炳奭

京元線鐵原邑 載坤鐵工所 主 劉載坤 電話一五三番 振京三一四七一番

鐵原郡農會

京元線鐵原邑官田里三三番地 三信商會 主 崔智淳 電話鐵原一二一番 電信略號サン又へ(三)

鐵原米穀統制組合

京元線鐵原邑內 シンガーミシン會社 主任 趙昌九 電話二三四番

鐵原和信運送店 朴澤 電話五〇番

辯護士 宋德烈事務所

鐵原稅務署

鐵原朝鮮酒酒造組合

京元線鐵原邑內 綿絲布木商 東亞商會 主 金奎鉉 電話二三番

朝鮮日報社鐵原支局員一同

撫順 朝鮮料理 海東園 撫順市西三條通十九番地 主 李大吉 曹女史

撫順驛前 天理教撫鮮教會

撫順市西三條通 金泰柱

撫順釀造場 徐相教

撫順市西三條通 金城旅館 具順書

辯護士 法學士 田口純男法律事務所 撫順市西十條通九六番地 本事務所 奉天市三經路 電話(2)二三五七・(2)四一二四番

撫順市西十條通八八 律師 尹鍾建法律事務所 趙殷默 姜子元

撫順市撫順街 馬郡郊村煙窩農場 主 嚴承連

撫順市撫順街 日滿農場 主 朴龍欽

撫順市撫順街四一番地 義順盛精米所 朴天欽

百貨商 和信商會 撫順市西一番町三 電話五〇二〇番

撫順市千金大街 滿鮮印刷所 李永錄 電話五五一八番

撫順驛前東一條通 精米及穀物委託賣買 協泰公司 電話三三〇三番 電略ケフ又〇ケ

撫順市東一條二六 滿鮮商會

撫順東一條通 朝鮮麵店 崔賢 長電五一七二

撫順撫順街二五番地 撫順昌精米所 鄭啓賢 長電話二二九四番

鐵原劇場 電話二二五番

鐵原金曜會

撫順市西二條通二十七番地 富川商店 主 金亨錫

撫順市敷樂園 丸三商店主 張晋道

撫順市敷樂園 金舜哲

撫順市西十條通 仁生堂 金準銓

撫順市東一條通三〇 撫順物產合資會社 電話二四五八番

新撫順大馬路二丁目 喜樂館 主 文秋月

撫順市西二番町四一 半島人唯一社交場 カフエーベルリン

撫順市永安大街一番地 布木雜貨 大昌洋行

撫順市大馬路五丁目六番地 司法代書 行政代書 李寬鳳事務所 電話五五〇九番

撫順市大馬路五丁目一 博愛醫院 徐錫正 電話五〇八九番

撫順市五條通二〇四 義州商會

撫順驛前西一番町 綢緞布木 和洋雜貨 各種海陸物產 皮貨貿易 新成洋行 主 崔京錫

撫順市撫順街 海產物專門 主 李華彰

撫順市西七條通 順天商會 崔紅奎

撫順西二條通八 丸美洋服店 電話二六〇五番

撫順市西四條通 天一館 朴德炫

撫順市東二條通り 金銀細工 權掘商店 主 李學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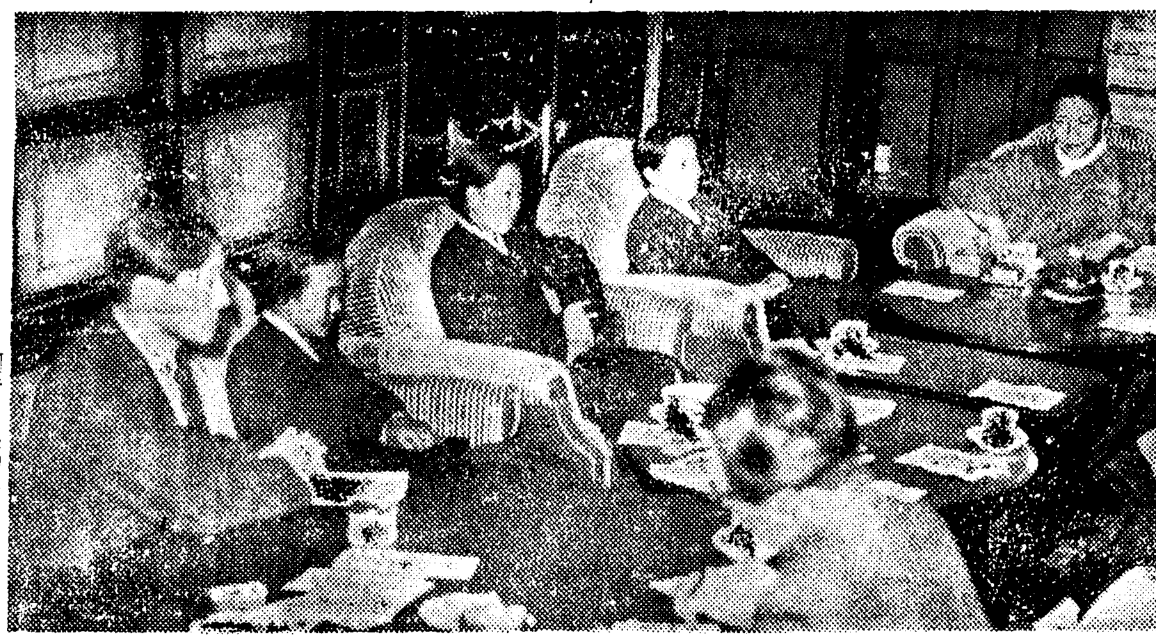
撫順市西民馬路四丁目二十二 興京縣五隻下村農場 主 韓炳根

撫順市新撫順西民馬路四丁目一四 木奇農場 主 桂進孝

撫順市東四條通六一 李泰成

시국의반영에압장서 "처녀부대"는명랑하다

새시대의여성미를비저내는 몸단장과마음의무장법



사진은아가씨 좌담회의광경

座談會出席者

眞明高女敎員 李恩徽孃
〃 金興一孃
舞踊家 權五鳳孃
피아니스트 李慶熙孃

＝本社側＝
學藝部長 李相昊
金起林
李軒求
上永壽
趙敬姬

所 本社貴賓室
日 昭和十三年十二月十一日午後五時

금비녀는업서도

李學藝部長 여러가지로 분망하신중에 이러케 오서주서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대한 이시국을 마지해서 문명히 우리생활에 있어서 각오를 가저야 하게되엇습니다 이때까지 호화하던 풍조도 재한할 바뿐아니라 이것을 극도로 절약해야할 그런때라고 보겟스며 또한우리생활...

金起 그러케 구식으로 꾸민다면 금가락지나 금비녀니 하는것이 필요하지 안흘까요

權五 그러케까지 순구식 취미가 있는것은 아니에요

金起 신여성편에서 금비녀가튼것은 작만합니까?

權 장차쓰게되니까 대개는 준비해 두는모양이드군요

걸음갑시빗싸젓다 금년유행은왕골구두?

金起 구두갑시 퍽올랏지요 아마 꾸절은 될걸요

權五 이십오원은 줘야돼요 그전은 구원이나 십원이엿는데

李學藝部長 그대로 구두신는사람은 내는 모양이지요

머리의치장은위생의한방식

"심프손부인형"은왜유행했나?

"이야기씨"는 무엇을 [illegible] 座談會

수난밧는각선미

이상하는"행복의문" 상대편의직업, 성격의표준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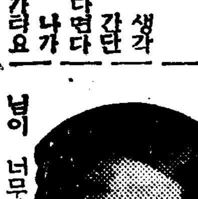
결혼의식은 어떠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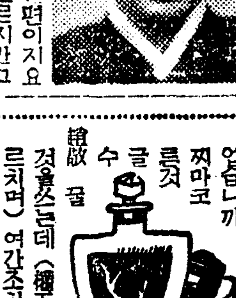
제복이된다면! 일색이질색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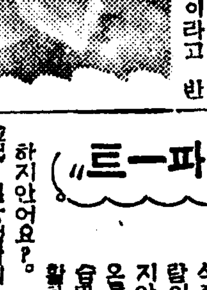
꿀을쓰는……새화장법

초가삼간과"아파-트"

핸드백은 실용성을띄게되여 모양이커지다







賀正

雄基 東富商會 吉雄洋行 德興商店 產業雄基 合名會社 金元商店 鄭鳳宇 安敬舜 雄基 華僑民會 朝鮮館 ミカド館 吉盛東

雄基邑雄尙港 三聖農園 宋元奎 水產業 鄭周鄭 水產業 金完順 水產業 金鳳延 水產業 禹濟彥

金益商洋行 協信商會 三和會社 共和變 金完邑 雄基院 中央組合 國際會 川合會 愛敬部 洪埠房 金頭厚 張醫所 會商番 雄運樓 德堂館 東昌旅館 平製旅舘 松日食堂 オリント

飮料及清涼飮料水製造業 富春商店 金容圭

法學士司法書士 金振熙事務所 電話三七番

秋葉寫眞館 丸中組 朝日運輸館 東洋旅館 金宇商會 大昌文會 全永商會 朝鮮麵店 北一皮革店 九元商會 長榮乾材局

成北雄基西水南洞 米穀 酒類 食料品 雜貨 星光羅商店 大星 電話一六二番
雄基港松坪洞 電氣鍛冶機械修理 第一鐵工所 南壽吉 電話四二九番
慶興郡雄基西面西水項 水產業 安東國
羅津府新安洞 水產業 孫元浩
雄基邑本町 ゴム靴 昂化粧品 洪龍浩商店 支店 羅津 灰岩市 電話五一番
雄基邑本町 製菓商 雄基堂製菓所 支店 清津浦項洞 電話三五八番
雄基本町 文化洋服店 尹明煥 電話三五五番
雄基本町 技術本位 信用第一 金原洋服店 洪相元
雄基港榮町 原木 杭木 鐵道枕木 新材 木炭 東一商店 小賣部 電話三六七番 三三四番
咸北雄基上本町 海產物 御問屋 統營丸德支店 本店 統營邑吉野町 黃鍾遠
合資會社 三輪商店 代表社員 張明均
雄基港 製油 肥料 製造業 金大元 工場 電話四六番
雄基西町 貿易商 天宮商會 朴麗俊 電話二三〇番
雄基邑日之出町 東富印刷所 金泰翼 電話一一九番 振替京城三〇五三五番
雄基港下松洞 食料品 雜貨 新木材 部販賣 滿春商會 李樂榮
咸北西水羅港 協順工場

京義線車輦館 料理 會席 東洋館
京義線車輦館驛前 天野要
京義線車輦館 永成釀酒商會 特電話二一番
京義線車輦館 喪中欠禮 崔秉漢
京義線車輦館 穀物貿易商 金允玗商店 電話十一番
京義線車輦館 大成木工所 主 李南斗
京義線車輦館 高等料理 隱香園 桂勳伯
宣川郡深川面 田東壽
京義線車輦館 東興泉

雄基港 時計貴金屬 レコード 吉會堂時計店
雄基港松坪洞 機械製作及修理 雄基鐵工所 李泳俊
雄基東市場 仲介人 崔日夏
雄基西町二丁目 古物商 徐龍鳳
朝鮮雄基市場通 既成服 メリヤス 松田商店
雄基本町 和洋雜貨 既製服 現代商店 朴寬彬
海產物 鐵道荷物取扱 金仁鉉
雄基港 米穀 木炭 委託販賣 德信旅舘 安秉烈
雄基港 製菓 平安商店 崔弘廣
雄基港醫院 朴陽信
雄基市場通 和洋菓子 卸賣 松月堂製菓所 池泉錫
製油 材木 谷川商店 金允保
雄基市場內 海產物 卓元灝
和洋百貨卸小賣商 李升福 咸北雄基港銀座通り
雄基邑銀座通 金生秋商店
雄基港 果物 卸賣 鮮一商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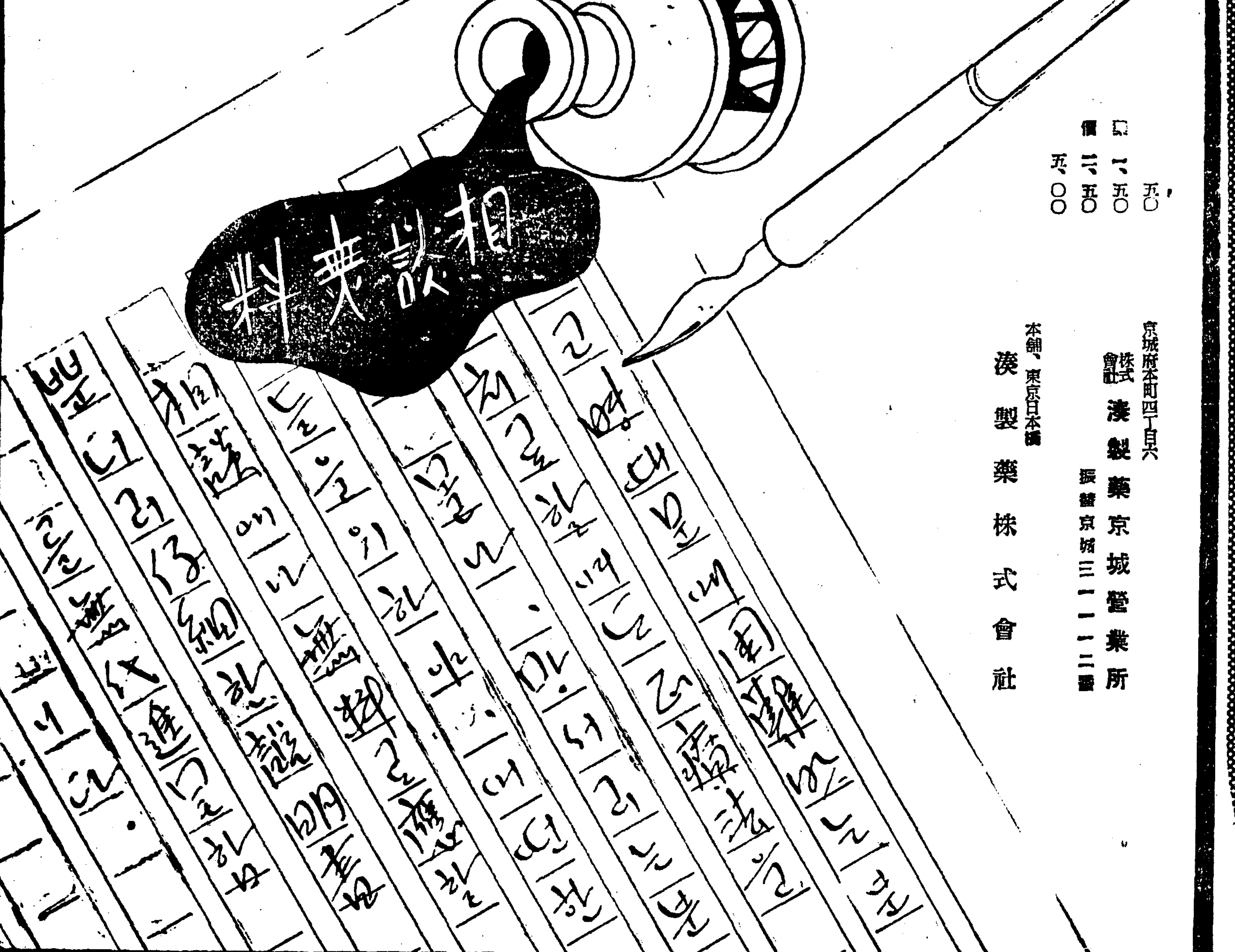
京義線車輦館 東亞精米所 李敏根 金炳錫 電話二六番
京義線車輦館驛前 穀物貿易商 平山商會
京義線車輦館 醫師 濟世醫院 金聖灝 電話二六番
京義線車輦館驛前 鐵山印刷社 主 金亨福
無名氏

海產物 委託販賣 金天用商店 電話四八番
京義線車輦館 新春舘
車輦館 藥種商 忠和藥房
京義線車輦館驛前 靑園理髮舘
車輦館 中央理髮舘
車輦舘 營業倉庫
粘面警防團
京義線車輦館驛前 黃廷秀 電話三二番
京義線車輦館驛前 兄弟綿打工場
京義線車輦館驛前 綿布商 金田商店 電話二九番
京義線車輦館驛前 新成洋服店 主 黃芝龍
京義線車輦館 穀物貿易 長德精米所 主 李壽根
京義線車輦館 布木商 信益商會
車輦館 石榮鑛種製造所 石榮昆
京義線車輦館驛前 三成商會 電話一八番
京義線車輦館驛前 日光商會 洪鄭秀 康應植
車輦館 西一時計店
鐵山郡站面事務所 職員一同
京義線車輦館 車輦館消防組長 吳憲殷
京義線車輦館本町 永興商會 鄭尙虞
平北車輦館 綿布 貿易商 大昌商會 電話十五番

코에操心하라

겨울에 病이라고하면 感氣를 聯想케되리만큼 몹시 류행된다 大개감기에걸니는사람은 呼吸器가弱한때문이다 코병알는사람이 決定的으로 만히잇다 即 코가늘매킨다든가 코물을흘닌다든가하는분은 急速히 코병을코처야합니다 이것은 코병때문에머리를못쓰게해서 나종에는 白痴가되는일이만흔까닭이다 그런대 從來感氣豫防法으로『마스코』를 만이햇스나 이것은 鼻粘膜에 低抗力을 弱하게해서 찬기운을 쏘이면 도로혀 조치못한 結果를나타내게햇든것이다 그러면 이코병에 直接原因이되는感氣의 積極的 豫防法은 무엇이냐하면 코안全體에 殺菌消毒液을 吸入시켜 코에故障을고치고 동시에 鼻粘膜을튼튼히 更生시키는 미나도式을 흡흡이하는것이 第一賢明한일입니다 이것은 그效力은 의심할餘地업고 어듸서나 簡單히쓸수잇는것이되여 가장進步된 合理的치료法입니다 나는이런意味에서 한사람이라도 患者를업시하겟다는 切實한생각미테서 新年에이것을권고합니다

發明者
湊謙治先生



定價 五〇 一、五〇 二、五〇 五、〇〇

京城府本町四丁目六 株式會社 湊製藥京城營業所 振替京城三一一一二番

本舖、東京日本橋 湊製藥株式會社

미나도式

賀正

世界初有의完成된鐵과肝油劑

肝油를실혀하는분•感氣에걸니기쉬운분•血行이조치못한분•虛弱한어린이들도

…꼭다른肝油와比較하여보심을…

運動不足의치운겨울에는 健康增進을爲하야 꼭肝油를服用함이 第一조흔方法이라고 醫師까지 勸告하고잇지만 在來의肝油가 全部가全部、아모리加工을하여도 服用함이困難한것으로 一般의常識으로 되여잇는만큼 服用함이 容易치안음으로 일껏服用하기始作하여도 病人이나 어린이들은 勿論이고 누구나다 到底히 永續치못하는缺點이잇섯는데、今番多年間苦心硏究한結果 完成된『鐵肝油』는 造血源코로이드鐵과活力根氣의基根濃厚肝油와를 綜合的으로 强化식키면서도 珈琲、牛乳等에 타면은 맛이一層훌륭하고 그우에 弱한胃腸이도라 容易하게 吸收될뿐만안이라 食慾까지 增進식임으로 服用하면 每日每日 元氣가 솟고 血을增生식여서 한겨을동안을 感氣라는것을 이저버리고 지낼수잇는 健康體가되여、大端히 幸福스럽게 活動할수가잇습니다。

十大特長

一、吸收가完全함
二、貧血恢復快速
三、細胞賦活作用
四、食慾增進
五、便通의促進
六、藥과飮用可能
七、게트룸아니남
八、抵抗力增進
九、疲勞恢復快速
十、美味服用容易

一個月分—一•八〇
德用瓶—四•八〇

代理店
京城南大門通 新井藥房
釜山辨天町 藤田藥舖
馬山府都町 石見屋

朝鮮文說明書 無料進呈

東京市深川區佐賀町
發賣 工藤商店藥品部

釜山

釜山府瀛州町 東山小兒科醫院 電話一九八〇番

釜山西部酒造株式會社
蓬萊酒造株式會社
釜山鎭酒造株式會社
牧島酒造株式會社

釜山府草梁町 海陸物産 魚油肥 貿易委託 株式會社 二和商會 電話一一六番

昭和銑鐵鑄造所 釜山府凡一町二三八番地 電話一一四四番

釜山府凡一町 朝鮮紡織株式會社

釜山府草梁町 濟生外科 郭在禧

釜山府瀛州町六六八 慶南醫院 院長 韓鎭杓

釜山府草梁町二三四 內科小兒科 海山醫院 李冕載 電話五二二番

釜山府凡一町 回生醫院 醫師 愼業粹 電話八六九

釜山府本町 釜山府會議員 立石良雄

釜山府本町 釜山府會議員 迫間房太郎

釜山府大橋通 金明五

金七星 釜山府瀛州町

慶尙南道廳 第一食堂員一同

慶尙南道 警察部

慶尙南道 農務課

釜山府大橋通り 朝鮮商船株式會社

朝鮮釜山府大橋通一丁目十三番地 朝鮮氣船株式會社

南鮮電氣株式會社 釜山支店

釜山府大橋通り 釜山水産株式會社

朝鮮金融組合聯合會慶尙南道支部 慶尙南道金融組合

釜山府釜田里 釜山釀造株式會社 河元俊

釜山府釜田里 寶生護謨工業所

釜山府釜田里 天一ゴム釜山工場

釜山府草梁町 藥種問屋 玉蒲乾材藥房 崔翊甲

釜山府草梁町 合名會社 鄭仁五商會 電話長二〇一二番

釜山府瀛州町 丸大商會 朴邦佑

釜山府草梁町 元益商店 李春玉

釜山府草梁町 福本洋襪製造工場 金成祐

釜山府草梁町 大陸商會 鄭采龍

釜山府佐川町 東明材木店 姜錫鎭

釜山府瀛州町 朝鮮料理 瀛春館 電話二五七八番

釜山府瀛州町 合資會社 蓬萊券番 電話二四二三番

釜山府佐川町 釜山府會議員 金璋泰

釜山府大倉町 金宗海

喪中欠禮 釜山府瀛州町 釜山府會議員 辯護士 金東炫

釜山府草梁町 金千壽

釜山府草梁町 釜山府會議員 李貴興

釜山府六橋通り 梁卿煥

釜山府大廳町 釜山府會議員 香椎源太郎

釜山府瀛仙町 普生醫院 李鍾奭

釜山府瀛仙町 釜山府會議員 宋根實

釜山府草梁町 東光醫院 金龍錫

釜山府伽師里 釜山府會議員 朴基鈺

釜山府佐川町 日光醫院 王致德

釜山府大新町 釜山府會議員 趙鳳璀

釜山府草梁町 金昌齒科 金昌奎

釜山府草梁町 釜山府會議員 金棟旻

釜山府草梁町 回春藥院 金奭鉉

釜山府水晶町 釜山府會議員 朴性俊

社團法人 釜山銀行集會所

釜山府瀛仙町 辛壽甲

株式會社 漢城銀行 釜山支店

釜山青果株式會社

釜山府大倉町 釜山海運業組合

株式會社 慶尙合同銀行 釜山支店

釜山府賈水町 興信商會 朴永周

釜山府大廳町 慶尙南道產業組合協會

釜山府本町 加藤商店 姜基欽

釜山朝鮮酒酒造組合

釜山府草梁町三丁目 東明印刷所 金丙壽

釜山府大橋通り 慶尙南道水產會

大成製材所

釜山府草梁町 南鮮倉庫株式會社 電話三〇三番

光明材木店 朴明守

釜山府釜田里三三九 朝鮮金屬工業株式會社

釜山府草梁町 興一社

釜山府草梁町 金泳珍

釜山府西町 上田耕一郎

釜山府佐川町 アサヒゴム株式會社

釜山府草梁町 太平精米所 申德均

釜山鮮牛仲介組合 組合員一同

釜山府瀛州町 朝鮮料理 金剛園 電話一七六番

釜山府草梁町五七五番地 三和商會 李鉉澤 テンワ七八二

興行劇團本部 釜山 太平館 釜山幸町一ノ九

汪淸

滿洲帝國協和分會常務員
協和靑年團副團長
汪淸消防隊副隊長
汪淸木材公司 回春堂藥房 吳敬煥 電話九番

汪淸旭町 鑛業 金龍鎬

大同生命汪淸事務所 所長 李福宰

汪淸縣大肚川米町 朝鮮料理 天興館 電話一〇五番
朴貞純、成五珍、林弄月
朴貞淑、李小玉、千山紅
安淑子、洪美花、文申仙
藤原ユキ子

汪淸旭町 自動車修繕 各種鑄物一切 瓦斯熔接 荒山鐵工所 主 姜鐵在 電話一一四番

汪淸榮町 朝鮮料理 松月樓 主 金月星

汪淸榮町 カフエー ミスカナリヤ
久子、キクエ、千鳥
松江、瞳美、淸見

汪淸榮町 三和洋行 木材業 金舜精

間島省汪淸縣大肚川 木材業 請負運輸 汪淸企業株式會社 電話 木材部一二二 運輸部三六番

汪淸榮町 尹克樹

建築材料 鐵物一式 丸金洋行 主 張漢傑 電話一〇九番

汪淸旭町 和洋雜貨 相模屋 電話六番

汪淸榮町 汪淸東滿商會 本店 汪淸縣百草溝 支店 汪淸縣大肚川

汪淸榮町 活版印刷 各種紙類 汪淸印刷所 電話一一五番

汪淸旭町 和成商會 鄭基洙

汪淸榮町 淸酒卸商 金光號 主 金鳳昌 金煥吉

汪淸旭町 福吉 主 吉田敬次 電話二七番

汪淸旭町 海龍旅館 主 金昌浩

滿洲國圖佳線汪淸旭町 汪淸縣公醫診療所 縣公醫 吳學駿 電話五五番

汪淸旭町 汪淸病院 院長 宋正龍 電話六七番

汪淸旭町 菅ヶ谷醫院 院長 菅ヶ谷良一 電話一〇四番

汪淸縣春明村廟溝驛前 丸井洋行 金在明

汪淸縣春明村十里坪驛前 北一旅館 主 朴春葉

迎春館 主 元鳳 金松子 朱花子 車山玉 金玉順 鄭英子 官

汪淸旭町 中橋組汪淸出張所

汪淸旭町 津山旅館 藤井初根

汪淸榮町 朝鮮料理 大一樓

布木雜貨 福柱商行 徐永福

既製洋服 和洋雜貨 阪神屋支店 主 陳淸浩 電話一〇六番

間島省汪淸旭町 林代書事務所 林昌烈

汪淸藥房 主 金海昌 電話四〇番

金昌源

任榮東

林泳紀

金瑞鳳

有名賣藥 內外藥種一切 延生堂藥房 主 李旭

汪淸縣春明村十里坪驛前 新炭商 松本商會

春明村公所 電話一番

汪淸縣春明村廟溝驛前 崔東烈

汪淸縣市街 東滿寫眞館 王義山

汪淸旭町 南鮮理髮館 張乙生

蔡錫南

汪淸旭町 玄龍吉

興產組合 電話一九番

安義

安義面職員一同

安義釀造株式會社 安義石川里

安義金融組合 理事 孟性雄 外職員一同

安義產業組合長 李珍彥

安義產業組合

全炳渭 西下面鳳田里

沙斤釀造合名會社 水東面花山里

金鍾洛

安義少年校後援會長 李瑞悅

水東面

下駄製造業 金永宵

朴以承

松下公福

金榮洙

卞洪錄

李容雨

姜大龍

朴鎭基商店

鄭然詩 新安里

韓琪守

河庠鉉 西下面鳳田里

盧俊植

朝鮮日報

新年號 其十七

學藝特輯

道義의 危機에 부치는 글 ❷

武士道와 尙武精神

朝鮮硏武館師範 李景錫

李景錫氏

柔道의 原理

日本에서는 古來로부터 柔術이라는 一種의 武術이 잇섯다. 柔術의 柔字는 相對의 힘에, 反抗치안코 順應하여 勝利를 엇는다는 뜻이다. 그런고로 그 이름만으로 판단한다면 柔術의 理論은 相對의 힘에 順應하여 行動하는것이라고 생각되나 그實際에 잇서서 치밀하게 생각하여 본다면 相對의 힘에 順應하여 行動한다는것은 단지 그一部의 技術에 그치지만, 相對가 가만이 잇슬때에 攻擊하는일도잇고 相對가 물러갈때에 그물러가는速度보다, 더빨리 追擊하는일도잇다. 要컨데, 柔術은 그目的을 達하기위하여 有效한技術이라면 그 技術을써도조타는것이다. 그런데 柔術을

(武術) 的이라는 見地에서, 흔때에는 攻擊防禦를目的하고, 心身의힘을 가장 有效하게, 쓰는術이라고 定義를내릴수잇다. 古來로부터 日本에서도 우에서말한 柔術이라는 武術이 傳來하여왓스나, 封建制度가 廢止되고, 明治初年頃에는 劍術槍術과가치 柔術도 衰頹하여, 一時에는 世上에서 돌아보지안헛스나 講道館創設者이며, 柔道界大功績者인 嘉納治五郞先生이 靑年時代에, 柔術을 至誠으로 硏究修行하여 그普及에 힘을써왓다. 約六十年間一貫한 非凡한 努力의結果로 日本國內뿐만아니라 널리 世界各國에 普及發展시켯다. 柔道는道, 即原理로써 柔術은 이原理를 應用한技術이다. 無力한者가 强한者를 이기며 적은사람이 큰사람을 抑壓함은 모두가 그心身의 精力을 有效하게 活用한 때문이다. 精力의有效한 活用, 即精力善用의 原理는 단지 攻擊防禦上뿐만아니라 體育上 智德의修養上 衣食住의生活上, 執務上 그밧게 一切의 社會生活上에 應用하게된다. 即

(人類) 社會生活의 存續發展의 要件인 自他共榮을 爲하여 우리의 精力을 最善으로 活用하여야할것이다. 그러므로 柔道는 心身의힘을 가장 有效하게 쓰는道이며 이修行은 攻擊防禦의 練習에依하여 身體精神을 鍛鍊修養하며 斯道의 참다운바를 體得하는것이다. 그러케 하여서 이道의 修養結果 自己를 完成시키는동시에, 人類社會를 위하여 有益된일을 한다는것이 柔道修行의 目的이다.

(一) 各個人에잇서서는 身體를 强健히하여 智德을 鍊磨하며 社會에 有力한 要素가될것을 期할것.

(二) 國家로써는 國體를 尊重하며 그隆昌을 圖謀하기 위하여 恒常必要한 改善을할것.

(三) 社會로써는 個人과團體모두가 서로相助相讓하여 徹底한 融和를 實現할것.

(四) 世界全般으로써는 人種的偏見을 버리고 文化의向上發展에 努力하여 人類의共存共榮을 圖謀할일.

(精力) 다면 柔道의 最善活用의 原理는 그應用의 範圍가 넓고 큼을 알것이다. 柔道의 精力最善活用의 原理를 人生各方面에 應用한것이다. 이가치보아온다면 柔道의 精力最善活用의 原理는 人生에 잇서서 尊重할 大道인것을 알것이며 同時에 이原理가 人生活動의 大綱이다.

柔道와 武士道

以上 柔術或은 柔道를 歷史的으로 생각하였을때에는 (柔道日本固有說에 依하면) 日本에 固有傳來한것으로 보아서 日本精神 日本文化와 關聯이잇다. 柔道는 本來 日本精神 日本文化의 精神的産物이므로 日本精神 日本文化가 그本質인것은 當然하다. 柔道其他 武術武道에 의하여 그心身을 修養鍛鍊하여 忠良剛健한 國民性을 陶冶시킬것이 武士道이다. 柔道 其他武術 武道는 單純한 武的技術뿐이아니라 그中에 日本精神, 日本文化를 固有하고잇다. 그러면 그日本精神은 어떠한것인가하면 敬神忠孝 大和一心 明道仁愛 勇武剛健 道義禮節 勤儉質素 進取寬容 優美廉恥의 精神道德이다. 이를 要約하면 敬神 忠孝 文武의 精神德性이다. 이러한

(精神) 德性을 修養鍛成하는것이 武術武道의 修行의 本義이다. 이것이 武士道의 理想이다. 武術武道 或은 武士道라도 文을 떠난 粗野한 武는아니다. 高尙한 日本文化의 精神道德의 眞髓가 武術武道이다. 即 武道의 內容은 文武로써 單純한 武가 아니다. 忠孝一本, 文武不岐는 日本傳來의 理想信念이다. 日本傳來의 武術武道를 修行하는者는 固有한 日本精神, 日本文化를 自然히 修養鍛成할것이다. 왜그러냐하면 武術武道의 主眼精神은 第一로 忠義이기때문이다. 武術武道를 修行하는 根本精神은 元來 忠義를 위한것이다. 武術武道는 根本的으로 神聖嚴肅한 精神이잇스며 따라서 그修行의 要領及 禮儀作法, 모든것이 참되고 道德的이 아닌것이 업스며 또는 이로因하여 心身의 修養鍛鍊이 되며 忠良한 臣民의 性格이 陶冶되는것이다. 이는 武術武道의 根本目的이 忠義에잇스며 本來 義勇奉公을 精神으로하고 참된 修行을 하므로 自然히 道德敎育은

(實踐) [illegible]

(氣風) [illegible]

朝鮮靑年과 尙武精神

우리朝鮮靑年들에게 必要한것은 尙武的精神을 養成하여 [illegible]

(理想) 이잇는限 어떠한 意味의 鬪爭은 永久히 그치지아니할것이다. 이鬪爭은 流血戰이라든지 經濟戰 外交戰 또는 一切事業의 鬪爭力戰 乃至 自己가 自我를 限하는것이 아니라 精神內部의 克己戰爭이어야할 것이다. 우리는 永久히 鬪爭하지아니하면 안된다. 鬪爭치안호면 勝利가업고 克己奮鬪하지 안호면 成功도 進步도 업슬것이다. [illegible]

(試鍊) [illegible]

(結論) 上述한바와가치 柔道는 理論 原理的으로 말하면 心身力 善用之道이다. 精力善用은 柔道의 原理이다. 即 精力善用者는 勝하며 精力濫用者는 敗한다. [illegible]

(武士) 的典型인 吉田松陰, 乃木大將等이 先師로 삼는 山鹿素行은 그士道論에잇서서 第一, 本分을 세울것, 第二, 心術을 밝히할것, 第三, 德을 鍊成하여 才를 다하는것, 第四, 自省, 第五, 威儀를 詳細히할것, 第六, 日用을 살피하는것等을 말하엿고 그武敎小學에 夙夜夙興, 言語應對, 行住坐臥, 衣食住, 財寶器物, 飮食色欲, 與受等의 細目에 이르기까지 日常生活의 心得과 生活法을 말하엿다. 嘉納先生의 理論도 精力善用의 柔道原理를 日常生活에 應用할바를 말하엿스며 山鹿素行도, 日本의 傳統的精神에서 日本武士道의 日常生活을 實踐的行할것을 말하엿다. 그時代의 相違上 表現方式의 差異는 잇스나 그精神要旨는 전혀 一致하다. 畢竟 柔道即士道의 精神本義가 日常生活에 實現되어야할것이다. 要컨데 柔道의 理論的은

(精力) 善用之道이며 歷史的으로는 日本精神 日本武士道의 修行이다. 그러므로 그歸結은 하나이다. 이를 綜合하여보면 柔道는 日本精神으로써 精力을 善用하는道이며 敬神忠孝의 精神을 大本으로하여 精神力及物質力을 善用하는것이 柔道修行의 本旨이다. 그러므로 柔道의 技術과 그理論의 理解는 外國人도 이를 習得할수잇스나 그中에잇는 日本精神은 日本國民이아니면 理解할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본다면 柔道는 日本特有의 士道이다. 士道라는것은 忠良剛健한 臣民道라는 意味이다. 日本精神의 眞髓라는 意味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忠良剛健한 臣民을 陶冶鍊成하는데는 日本傳來의 柔道의 修行이 必要하며 또한 이를 修行하므로써 日本精神 即 日本武士道가 養成된다.

一等當選時調

(題) 새봄

曺南嶺

날새자 눈이 개자 두부장사 종소리에
『두부!』 부르시며 어머니 나가신다
화로에 숫불은 일고 아침소른 재젓다

빨래 방망이로 어름살 깨트리고
김장에 메주에 검은 옷 시츠시는
어머니 머릿수건에 햇볏 새로비친다

쑥떡·나물국철 기다리기 겨울고나
들역 뫼뿌리는 아직도 얼어슬까
보리밧 검은 이랑은 노글노글 녹는다

新迎行 ——青汀 李如星 筆

李朝의 恥辱 黨爭의 禍

黃義敦

(一) 緒言

예로부터 東洋史上에잇서서는 때때로 黨爭의禍가 업지안헛다. 黨禁의禍는 東漢을 亡케하엿고 新舊法黨의 軋轢은 北宋을 어지럽게하엿다. 그러나 朝鮮의 過去와가치 三百餘年의 긴時日을두고 줄기차게 黨爭의禍가 계속하여온일은 아마 歷史上에 類例가 업슬것이다. 現在의 文明國인 歐米列强으로보면 英國에서도 保守, 自由, 勞働, 三黨이 鼎立하여잇고 米國에서도 共和民主兩大黨이 對立하여잇스며 그外에도 獨, 伊, 蘇等 少數의 一黨으로 組織된나라를 除하는外에는 거의다 悠久한 政黨의 對立史를 가저와섯다. 만은 그黨의 成立된 原因과 그黨의 鬪爭하는目的을 推究하여보면 어찌하여 『國利와民福을 增進시켜볼가』? 하는 一點이 거의다 그네의 共通된 焦點이 되어잇다. 그러므로 그네는 곳 國利民福을 위하여서는 對立도하고 鬪爭도하기를 辭讓치 안는다. 때로는 一切의 私利와 私慾을 超越하여 握手와 聯袂로 共通한 步調를 마처나가는 수도 잇는것이다. 그래서 그네의 存立하는 理由가 正當하고 鬪爭하는 方法이 分明할뿐아니라 그네의 慶讚과 競爭의 結果는 드디어는 그社會의 福利를 增進케되는것이다.

그러나 過去朝鮮의 黨爭은 純然히 私利私爭에서 起源된 파가치 三百年을두고 싸워온 原因도 目的이 오직 黨利私益에 끄첫을뿐이므로 따라서 그네의 鬪爭하는 方法도 또한 暗私하고 卑劣하엿다. 그래서 그 結果로는 國利와 民福에는 正反對로 오직 國家와 民衆에게 慘禍를 입혓을 뿐이엇섯다.

(二) 東、西人의 分裂

이제 朝鮮過去黨爭史의 槪要를 드러말하면 다음과갓다. 己卯士禍를 中心하여 趙光祖 이黨爭의 起因을 차즈면 遠南袞等의 派爭이 잇섯고 乙巳士禍를 前後하여 大尹小尹의 黨別이 잇섯스나 그는 곳 一時的 現狀에 끄치고 말엇다. 만은 宣祖初年에와서 처음으로 東人西人의 黨派가 열어나자 그의 餘派이 三百年間 一貫하여 왓다. 이제 그의 分裂하고 對立하여오던 黨派를 그려보면 다음과갓다.

四色: 東人 — 南人, 北人 (大北, 中北, 小北); 西人 — 老論, 少論

黃義敦氏

그러면 이黨爭의 起因을 차즈면 遠因과 近因의 二로 나누어 말하여야 될것이다. (一) 遠因은 그時代에 風靡하던 社會的 氣風으로서 年少한 官吏와 學者가 淸議를 同論하고 時政을 批評하며 同志者를 聯結하여 異己者를 排擊하는等의 風潮가 크게 流行하므로 經世的 老政治家로서 先見의 明이잇던 領相李浚慶은 『今人高談大言, 結爲朋比, 終必爲國家難拔之患』 이라하여 臨死에 遺疏로써, 宣祖께 朋黨의 弊를 豫防하자여주엇슴을보면 이러한 黨爭은 그時代와 環境의 自然的産物로서 發生치아니할수업게 되엇던것이다. (二) 近因은 沈義謙, 金孝元兩人의 私爭으로서 石潭日記에보면 『初明廟朝, 沈義謙爲舍人, 以公事到領相尹元衡家, 元衡之婿李肇敏, 與義謙相知, 引入書室, 多有寢具, 義謙歷問何人之寢具, 其一則金孝元臥具也, 孝元時未第, 有文名, 義謙心鄙之(中略)後孝元登魁科(中略)吳健欲以孝元爲銓郞, 義謙覩沮之(中略)孝元心短義謙常曰沈也心, 戇而氣粗不可柄用』 이라하엿고 荷潭錄에 『義謙爲吏曹, 引前過沮孝元銓郞, 其後孝元, 薦入銓郞而有用義謙弟忠謙, 爲銓望者, 孝元不許曰天官豈外戚家物而, 沈門必當之耶』 아하엿다. 이로부터보면 沈義謙은 金孝元의 前過를 追懷하여 그의 人格을 鄙劣하는 同時에 昇進의 榮途를 막엇고 金孝元은 그에 嫌怨하여 報復의 方便으로 沈의 人格을 毁言하는 同時에 義謙의 아우 忠謙의 進路를 拒絶하엿던것이다. 그래서 沈, 金兩人은 氷炭되가치 서로 容納치못하는 仇讐가되엇음 時에 沈을 右袒하는 前輩士類는 다 金의 人格을 疑心하는 同時에 小人으로 指目하는이도 잇섯고 金을 扶護하는 後輩靑年은 도리어 沈을 戚臣이라 指稱하엿섯다. 이 紛紜한 是非의 論爭은 沈金兩人의 私爭을 中心하여 일어낫스므로 西門內에 居住하는 沈의黨을 西人, 東部駱山下에 居住하는 金의黨을 東人이라 指稱케되엇섯다. 東人엔 許曄, 李潑, 柳成龍, 李山海等이 그代表者가되고 西人엔 朴淳, 鄭澈, 金繼輝, 尹斗壽等이 그의 主役이되어섯다. 처음엔 民間에서 暗流하던 그의 派爭이 宣祖八年(距今三六六前乙亥)七月에와서 東人領袖 許曄이 大司諫의 職權을 利用하여 當時에 左議政인 西人元老 朴淳의 按獄事件을 彈劾하므로부터 爆發이 되기 비롯하엿섯다. 東人許曄이 西人朴淳을 彈劾하자 西人金繼輝(大司憲) 鄭澈(正言)이 이어서 또 許曄을 攻擊하므로 東西人의 鬪爭이 이로부터 표면化하여 朝野가 크게 紛亂케되엇나니 이것이 곳 朝鮮黨爭의 起源이다.

—(續)—

海州

海州府 救世病院長 賀樂

海州府廳

海州府 中外鑛業株式會社

朝鮮火藥製造株式會社

海州府南本町 鍾路旅館 電話四四九番 高聯七

海州府 李京洙 電話三七五番

海州府 辛承禧

海州府南本町三 朝鮮海苔販賣株式會社海州支店 電話五四七番

海州府南本町三 大同江水産株式會社海州出張所 電話五四七番

賀正

海州府 朝鮮セメント株式會社

海州府 西鮮重工業株式會社

海州府北旭町四二五番地 劉琮鉉 電話四二四番

財團法人 海州救世療養院

海州府 金明燁

海州馬山自動車部 電話三〇六番 金榮浩

韓長玉

黃海道海州府南本町一四八番地 海州貨物自動車株式會社 電話一一四番

海州府南旭町 海州紹介營業組合 電話一八七番

海州府 合名會社 大東貿易社 電話四三五番 振替京城二二二番

海州府 府會議員 高在卿

西鮮合同電氣株式會社 海州支店

黃海道廳 食堂員一同

黃海道警察部長 一杉藤平

黃海道山林會

海州府內公立學校 職員一同

黃海無盡株式會社

海州穀物商組合

株式會社 海州券番

海州府 孫鎭彦

漢城銀行 海州支店

海州府 海州殖産株式會社 電話一〇一番

海州稅務署

海州酒造組合

朝鮮殖産銀行 海州支店 支店長 相良廿六

海州府 株式會社 中外製作所

海州金融組合

海州府 尾崎由馬

黃海道山林會

碧城郡廳

道立海州醫院 職員一同

海州驛前 海州タクシ 金光燁

海州懿昌尋常小學校

黃海道水産會

海州府南本町南門內 碧城旅館 主 玉女 電話四五四番

海州漢藥業組合

海州府南本町 百草堂藥局 申鎭永 李種學

海州府南本町 朝鮮料理 大正館 電話一四〇 四八五番

海州府南本町 濟蒼醫院 電話一四五番

普聖堂藥局 主 李康龍

海州府 三吾洋服店

海州府 府會議員 朴聲行

海州府 株式會社 同和藥房代理店 吾世映

海州府 朝日病院長 府會議員 裵秉斗

海州府南本町二〇 海産物貿易商 東一商會 電話五五七番

海産 青果 海州物産社 電話三四五番

海州府本町二丁目 金銀細工 天金堂 金昌周 電話本局六四番

海州府 更生堂藥局 電話二五三番

海州正內尋常小學校

海州府 天心堂藥局

海州府 黃海證券社 李昌鎭 電話五〇番

海州府 府會議員 李再善

海州府南本町 朝鮮旅館 趙昌成 電話三六八番

海州府 海龍自動車部 電話三〇〇番

海州府 府會議員 柳崑龍

海州府仙里一九一 チョコレート瓦 仁昌セメント瓦工業所 周坤淳

海州府南旭町 海州醫生會

海州府南旭町 百中醫院長 吳政柱

海州醫師會

海州懿貞尋常小學校 校長 盧快徹

時計眼鏡 大正時計店 海州府南門通り 洪性善 電話一七九番

海州府 韓長煥

海州商工會議所

前川 江界釀造株式會社 前川分工場 電話四番

前川鐵道驛前 崔學順

原木松丸太 鐵道枕木 製材各種 金基浩林業所 電話三一番

平壤板洋釘針金前川指定販賣店 土佐特産伐木道具販賣店 和洋金物·鑛山用品·各種農具 大工道具·硝子·塗料·カクブチ ペニヤ·畳地·席·各種ロープ 雜貨其他 義和金物店 滿浦線前川驛前 宋■ 電話九

滿浦線前川驛前 文化材木商會 文鐘麟

水産物生産擴充

⑧ 平北産業技師 鄭 文 茲

西海岸篇

鴨綠江口에서 木浦附近에 이르는 西海岸은 到處에 河口 灣洲(灣)와 海灣과 群島가 豊富하며 海岸線의 出入이 자못 甚하여 其延長이 約八千五百粁에 達하고 海底는 遠淺으로 黃海中心部에 이르러도 百米突以內이다. 그러나 潮汐의 干滿의 差가 甚大하여 十米突에 達하는 곳도 잇서서 그 性質이 東海岸과는 正反對이다. 따라서 西海岸에 棲息하는 魚族도 東海岸에 棲息하는 魚族과는 다르다. 西海에 棲息하는 魚族은 大部分이 春季부터 潮汐의 出入에따라 內陸灣洲(灣)에 群來하는 石首魚 民魚 刀魚 삼치 준치 江達魚 달재(達乙魚) 몽어(鯔魚)等 小雜魚가 多數多種인 同時에 廣大한 干潟地엔 반지락 백합(대합) 조개 맛 명주조개等 貝類가 無數히 蕃殖하고잇다. 그러나 以上에 紹介한 魚類와 貝類의 蕃殖場은 그大部分이 漁獲하기쉬운 干潟地 淺海와 島嶼 各處에잇서 沿岸島嶼 部落 部落이 各魚種別 漁場을 分擔或은 協同하여가지고 蕃殖保護策을 樹立實施하여야 될것이라고 밋는다. 西海의 重要漁源이라고하면 第一먼저 石首魚漁業을 들것이오 다음은 갈치 민어 달재 홍어 뱅어等이나 其中갈치漁業을 除한 以外의 諸漁業은 모조리 每年 減産의 傾向을보이고잇다.

石首魚

石首魚漁業은 古來로 發達된 漁業이라 朝鮮西半分 農山漁村民은 勿論이오 都市一般民의 食卓中 가장 重要한 役割을하여온 魚族은 石首魚라고 明言할수잇다. 生鮮그대로는 勿論이오 김장用의 젓갈이며 鹽乾物인 굴비等 現今도 아직 一般民衆日常生活에잇서서 記憶이 새로울줄밋는바이다. 朝鮮을 南北으로二分하여가지고보면 古來로 東半部 一般民은 明太魚肉으로 西半部 一般民은 石首魚肉으로 骨肉이 成長되엇다고도 생각할수잇다. 이러케 重要한 役割을하여온 石首魚가 最近에이르러 每年減少되어가는 問題는 當局으로서나 一般民으로서도 看過치못할 問題이라 昭和十三年度부터 總督府와 各道가 協力하여 石首魚蕃殖保護調査를 開始하여 不遠에 그對策이 樹立實施될것이라 그 對策은 반드시 府令或은道令으로 發表될줄믿는바 이제부터 一般同業者들의 石首魚蕃殖保護方法實施에 對한 準備가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其蕃殖保護策으로서는 먼저 아직 成體가 되지 못한 稚魚의 捕獲을 絕對로 禁止시킬것이며 産卵時期中 適當期間 禁止하여야 될것이라고밋는다. 이 禁止法에 따라서 必然的으로 생각하여야 될問題는 漁船數의 制限이다. 現今延坪島나 蝟島 大和島附近 石首魚場에 群集하는 漁船數는 一時에 數千隻에 達하는곳이잇서 自然濫獲을 未免하게되는지라 産卵期制限 體長制限等이 確立되면 收支가 相償치 못할漁船이 생길것이다. 如此漁船은 自然減少退去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如此히 收支가 相償치못하는 漁船은 現今도不少한 現狀이라 他種漁業을 經營하도록 當局에서 指導할必要가 잇다. 以上은 石首魚漁業에 關한 蕃殖保護이나 其他달재 貝類도 모두 蕃殖保護를 積極的으로 斷行하여야 될것이라고 밋는다. 달재는 西海特産魚族으로 往時엔 一大盛業을 이룬 魚族임을 外라 其蕃殖場亦 朝鮮西海平北沿海이라 朝鮮特히 平安北道에서 研究對策을 樹立할責任이잇다.

貝類

貝類에잇서서는 西海沿岸은 古來로有名한貝類蕃殖場이라 從來無制限으로 濫獲한까닭으로 減少되어 現今에와서는 沿岸島民의 生活에까지 威脅을 感하게되엇다. 當局[illegible] 蕃殖保護策을 하루바삐 樹立하여야되겟다. [illegible] 同時에 平行시킬수잇는 蕃殖計劃이라 [illegible] 自己所有로 하여가지고 [illegible] 同時에 彼此서로서로 蕃殖保護하여가는 制度의 必要를 느끼는바이다. 從來의 西海沿岸[illegible] 一箇所의 漁場이 發見되면 無制限으로 濫獲하게 放任하여버린 까닭으로 一年乃至 數年間에 絕種되고만 實例가 許多하다. 今後 貝類漁場이 發見될時엔 반드시 其部落을 單位로 漁業組合當局이 調査한後 蕃殖契等 組織시키어 가지고 輪採法等의 保護策을 樹立한후 採捕케 하여야 될줄믿는다. 그外에 人工으로 適地適種主義의 增殖方法을 獎勵하여야 될것이다. 西海干潟地利用에 對하여 總督府當局에서도 補助金을 支出하면서 積極的으로 貝類增殖에 努力하고잇는中이다. 一般漁村民들도 이에 余力을 傾注할 必要가 잇는時期라고 밋는다. 그러나 西海一帶를 一擧的으로 保護增殖獎勵할수는업는 事情이니 適地適種主義로 進行하여야 效果的이라고 생각한다. 于先現在에잇서서의 各道別로 이것을 생각하여보면 全北 忠南 黃海 三道는 地帶가비슷하야 海苔만 [illegible] 第一有望하고 [illegible]는 반지락 平南은 백합(대합)조개 平北은 반지락(바스락)養殖이 第一有望한 水産物이라고 밋는다. 昭和十四年度平北水産試驗場(圖島)調査報告를 紹介하면 養殖한지 滿二年만에 島附近의 반지락 蕃殖場이 생기엿다. 그리하여 每年 百石千餘圓의 收入을 보이게되엇다. 昨年一斗八升五合 反當五十五石五斗의 生産이라 이를 모조리 採捕한다면 反當 五百五十五圓이다 그러므로 採捕法에 依하여 其發生量의 三分之一만 採捕하여도 每年 百八十五圓의 收入이다. 그러나 如此히 有利한 반지락 蕃殖場이 되기까지는 여러가지의 當局과 島民의 苦心努力이 잇섯음을 記憶하여야되겟다. 其努力中에도 가장 重要한 點은 島嶼民의 努力이다. 貝類蕃殖場의 大部分이 交通不便한 島嶼附近인 同時에 平南北地方에잇서서는 冬節五個月間(十一月乃至三月)은 結氷과 流氷으로 陸地와의 交通이 杜絕되어버리는 關係로 無監視로 放置하면 無識한 沿岸島民의 習慣이라 增殖은 期必할수업는 形便이다. 어느道를 勿論하고 如此增殖計畫을 效果잇게하려면 반다시 道監視員의 配置가 必要함을 力說하는바이다. 如此한 方法으로 適地適種增殖을 勵行할진데 不遠한 將來에 西海水産業은 農業의 水田과 가치 一大飛躍을 期必할것이며 따라서 西海中小漁業者들의 生活安定의 百年大計는 確立될것이라고 밋는다.

南海岸篇

釜山港에서 木浦港에 이르는 南海는 大小島嶼가 散在하여 所謂 多島海라는 別名으로 널리알려잇는 沿海이다. 따라서 其沿岸은 犬牙錯綜의 格으로 岬灣이相交하여 海岸線의 延長이 約九千粁에 達하며 水深은 百八十米突以內로 大漁船의 出入과 漁具의 使用에 便利할뿐外라 黑潮와 慶南海流가 相通하는 까닭으로 魚族이 多種多樣인 同時에 또 豊富하다. 上述에 東海岸과 西海岸이 正反對의 性質을 가지엿다고 紹介하엿다. 이 三海 東海와 西海를 混合하여가지고 比較하여보면 南海는 마치 三分한 海岸이라고 볼수잇다. 따라서 南海에 棲息하는 魚族은 西海에서 多獲되는 石首魚、民魚、刀魚도 잡히고 東海에서多獲되는 정어리 大口魚 古登魚도多獲된다. 그리고 暖流性인 도미와 전광어도 多産하며 淺海干潟地의 漁場엔 海苔와 貝類이며 岩岸을 蕃殖場으로한 우무가사리、풀가사리及其外 海草도 多産한다.

海苔

海苔는 南海沿岸뿐아니라 朝鮮水産物中에도 重要産物이라 年産八百萬圓을 算하여 東京大阪等 市場을 左右하고잇는 水産物이다. 他漁獲物과는 其性質을 달리하여잇는 關係로 年年增産의 傾向을보이고잇는 水産物이라 現今에도그 南海岸 漁村民의 生活根據가될 海苔이다. 이海苔는 全部養殖業으로 生産하는 水産物이다. 他漁業과가치 破船風浪의 危險도업거니와 農業과가치 播種施肥할 手苦도업다. 反當平均百圓內外의 收入이잇스니까 一漁家가 三反만 經營하면 年三百圓의 收入이 된다. 그러나 이經營狀況을 저東京海苔養殖業者들에게 比較하면 아직 幼稚하다고볼수바게업다. 東京海苔業者들은 種子場과 養殖場을 區別하여가지고 移殖하는 技術이 發達되어잇스며 小量의 原藻로 多量의 製品을 製造하는 技術도 發達되엇다. 그리고 製造時엔 可及的 原藻를 너무細斷하지아니하는 習慣이잇다. 이는 原藻를 너무細斷時에는 斷切面에서 海苔滋味가 放散되어 眞味를 減少[illegible]다. 朝鮮改良海苔가 在來式海衣나 或은쪽대기에 比하여 不味함은 이런原因에서 생기는結果라 今後朝鮮海苔製造法의 改良할點이라고밋는다.

그리고 海苔消費者는 大部分이 內地人들이라 저有名한 東京海苔場이 都市計畫進行으로 縮少되어가는 點과 大陸發展에따라 內地朝鮮人의 北支滿洲移住가 漸增하여가는 現狀으로보아 海苔의 需用力은 增加될것이오 減少될念慮는 업슬것이라고생각된다. 廣大한 淺海干潟地에 마음것增産시키는同時에 上述한 製造法에 留意하여 東京海苔나 또는 朝鮮在來式海苔와가치 風味를 이저버리지아니하는 海衣를 生産하도록 努力하기를바란다. 이 海苔養殖業은 總督府及道當局에서도 벌써 其必要를 認識하고 昭和二年度부터 今日까지 國庫補助金을 支拂하여가면서 積極的으로 其增産에 邁進하고잇는지라 不遠에 年産一千萬圓生産을 보일줄로밋는다.

其外의海草

海苔外에 留意할 水産物은 톳나물、우무가사리(天草)풀가사리 미역及몰等海草의增殖業이다. 以上에紹介한 海草中 우무가사리 풀가사리及 미역等은 從來부터 有要海草로서 利用하여왓는지라 戰時가되어 그需用量이 增加되엇스므로 一層그必要를 感하게되엇다고 볼수가잇스나 톳나물과 몰가튼海草는 以往으로는 海岸漁村民들이 一部自家用食餐과 肥料로 利用하게되엇던것이다. 그러나 以上食餐이나 肥料에使用하여오던 數量은 極少額에不過하엿고 大部分은 每年發生한 그대로 腐蝕되고 말앗던것이다. 그러든것이 非常時를當하여 物利用의 研究가 進步됨을따라 此等海草는 하나도 버릴것이업슴을 알게되엇다. 톳나물은 乾하여 製品을만들어가지고 北支滿洲等 外地에서 活動하는本邦人士들의 不可缺할 營養食品이되고잇스며 우무가사리는 從來는 寒天(우무)을만드러 細菌培養 其他科學研究材料로 使用하던것인데 非常時가되면 [illegible]을 비저만드는데 有要한役割을 하는 水産物이다. 그리고 몰其[illegible] 物이니까 此等 海草蕃殖保護에 留意하기를 바라는바이다. 特히 [illegible] 全南과 慶南이 合하여 今年度에 七個所가 設立되어 [illegible]에 着手하고잇는 現狀이며 우무가사리에 對하여는 總督府에서 積極的으로 增殖獎勵코자 昭和十五年度부터 萬餘圓의 國庫補助金을 計上하여 [illegible] 一般業者들은 昭和十五年度부터 우무가사리와 톳나물 增産準備에 努力하기를 바란다. 이런 海草增殖事業은 南海岸漁村民의 生活安定의 百年大計라고밋는다. 이제까지는 海草增殖業에 關하여 言及하여왓거니와 多島海南朝鮮海에는 漁村民으로서 特히 留意할先務가 하나잇다.

漁族蕃殖策

南海는 구비구비島嶼이오 島嶼마다 漁場이라 往時에는 도미나 전광어가튼 有要魚群이 沿岸近海까지 來游하야 在來式固定한 漁法으로도 一時에 能히 滿載하는 大漁業이엇던것이다. 그러나 最近에와서는 打瀨及機船手繰網의 活動으로 濫獲을未免하여 [illegible] 多種多樣의 魚族이 蕃殖하는 寶庫인 多島海도 蕃殖保護策이업시 放任한다면 [illegible] 漁業者들의 留意할點이라고밋는다. 其對策으로는 南朝鮮多島海는 各種魚族의 蕃殖場인 까닭으로 [illegible]고잇는다. 그리하여 이蕃殖保護場近處에는 人工築礁를 築設하여 附近部落漁村民을 適當數로分別하여가지고 各其部落이 管理漁業(釣)케 하는制度가 必要하다. 築礁는 魚群이 잘集合하는 海底에 廢船에다 鯔粕이나 죽제其他魚餌가 될만한 食品과 石塊를 滿載시킨後 沈下시키어 魚族의 棲息場을 만들어주는法이다. 一個所에 三百圓乃至一千圓의 設置費를 要하면 每年千餘年의 漁獲을보기는 內地漁村實績을 보아 難事가아니다. 如此施設이 南海一帶에 實施되는날에야말로 其生産額은 數百萬圓에 達할줄밋는다. 同時에 東海정어리나 西海조기漁業과가치 豊凶도 그대지 甚하지아니할것이오 危險도업는 水産業이라 南朝鮮漁村民生活安定의 百年大計가 되는同時에 水産物需給均衡에도 貢獻할줄밋는다.

以上은 東西南三海漁村民生活의 百年大計의 一策을 紹介하엿거니와 이제 三沿海를 合치여가지고 共通되는點두어가지를 들어 結論코자한다.

結論

朝鮮東西南三海에 漁村民의 現行漁業과 將來有望한漁業即 漁村生活의 百年大計策의 一部를 紹介하엿거니와 이對策을 要約하면 朝鮮水産業者들은 現今東海岸에서 盛況의 極을 이루고잇는 정어리 명태等大水産業에만 醉하지말고 此等漁業의 根本問題인 蕃殖保護策樹立에 努力하는同時에 東西南三海를 通하여 小規模의 漁業이지만 沿岸淺海 干潟地의 利用上有要한 海草 貝類增殖漁業 獎勵에 留意하도록 力說하엿다. 그리고 南海岸에잇서서는 特히 多島海의 天惠를 살리는 意味에서 各種稚魚蕃殖場을 保護하는同時에 部落漁村民生活에 不可缺할 釣場即 築礁를 增設하여야 되겟다고 附言하여왓다.

그러나 如此蕃殖保護策을 樹立하야 實施하며 增殖獎勵를 力行할지라도 漁村民의 智識程度를 現今그대로 두어가지고는 完全한 成果를 볼수업슬것이다. 現在朝鮮各漁村民들은 너무나 無識하여 百年大計는 고사하고 明年之事도 생각업시 그날그날의 收入을 질기는 現狀이라 現[illegible] 아리 [illegible] 對策을 [illegible] 되고말것이라 十年之功이 一朝에 消失될것이라고 생각된다.

「水産教育必要」

[illegible] 水産教育機關을 充實하여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現在朝鮮內의 水産教育機關을 살펴보건대 너무나 貧弱하야 [illegible]바이다. 겨우 西湖津에 甲種中等水産學校가 一校, 慶南統營, 全南麗水、平北龍岩浦에 三年制中等水産學校가 各一校、[illegible]에 水産補習學校가 各一校 合五校가 잇슬뿐이다. 朝鮮漁村을 根本的으로 更生시키려면 적어도 朝鮮에 水産專門學校 一校는 設置되어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이學校로써 朝鮮이 研究하여야될 問題를 研究시키는同時에 專門學生으로하여금 實地漁村에 들어가 研究實施하면서 漁村指導者로 學校에서 드른바를 實際로 [illegible]가 되어야 할것이라고 생각한다. 現在 各漁村指導者들을 살펴보면 各種各樣의 學校出身이 水産으로 一生生業을 삼는 [illegible] 指導者가 만치못하다. 따라서 [illegible] 漁村指導를 하고잇는 現狀이라고 볼수가잇다. [illegible] 水産專門學校 設立을 [illegible] 數年前부터 提唱하여왓스나 今日까지 [illegible] 模樣이다. 如此重要한 問題는 官廳에다가만 一任할것이아니라 民間[illegible]의 힘으로도 如何히 成果시킬수가 잇슬것이라고밋는다. 現在東海岸에 盛況을 이루어잇는 [illegible] 業者間의 [illegible] 漁業者들과 明太漁業者 二百餘名과 정어리製造業者 고등어巾着網業者 海苔業者들을合치면 個人當 數千圓이면 二百萬圓의 學校設立費는 一年동안에 모흘수가잇슬것이다. 海苔만하여도 全朝鮮一年産額이 約一千萬束이니까 一束에 五錢式만加算하여도 五十萬圓의 金額이 생기게될것이다. 統中에도 漁業組合이 統制되어잇는지라 마음만잇스면 그다지어려운事業이아닐것이라고생각한다. 이러케 漁況이 조흔時代에 其利益金의 一部로 水産專門學校를 設立하여 漁村百年大計 實施의 中堅人物을 養成한다는것은 가장 意義잇는事業이라고 생각한다. 東海정어리漁業者 明太漁業者 南海海苔漁業者들의 一考를 要請하여마지아니하는바이다.

「魚采盛衰의理」

끝으로 以上全朝鮮漁業者들에게 報告할點은 朝鮮의 重要漁業인 古登魚 靑魚 정어리等大群으로 群來하는 魚群의 盛衰는 一定不變하는것이아니라 週期的으로 變遷하는것갓다. 約百二十年前에 黑山島에서 丁若銓氏가 記錄한 玆山魚譜에 依하면 靑魚와 古登魚는 木浦附近西海가 盛漁일時엔 釜山近海東海가 凶漁이고 反對로東海가 盛漁일時엔 西海가凶漁이엇다고 記錄하엿다. 現今靑魚가 西海에서 生産하지아니하나 約四十年前에는 東海에 比하여 大盛況을 이루엇다고 京城有識階級人士들과 黃海道龍湖島 忠南安興、平北圓島等地 漁夫들이 말하고잇다. 이말저말과 文獻을 相合하여가지고 생각하여보면 東西漁場盛衰의 週期가 約四、五十年쯤된다. 지금은東海가 大盛況을 이루어잇스나 不遠間에 其盛況이 西海로移動할는지도모르는 事이라 두고볼수밧게업다. 그런데 去年平北道水産試驗場에서 放流한 漂流瓶이 今年十一月에 南鮮多島海를지나 日本海北部、北海道에서 發見되엇다는 報告가잇다. 이제까지 東西海流가 南海를 相通하는 與否에잇서서 疑心을가지고오던바 今般이 漂流瓶으로 朝鮮東西海潮流가 相通함을 確認하엿다. 이로미루어 보건대 東西兩潮流의 盛衰에 따라 其魚群의 移動이 東盛西衰或은 西盛東衰한다는말이 [illegible]이엇음을 [illegible]다. (完)

洪原

咸鏡線前津驛前 北鮮精米所 洪原製繩工場

咸鏡線前津驛前 倉庫完備 ㊞交計加盟店 ⊙巡計加盟店 前 丸前運送店

洪原邑 遊仙閣

口腔外科 齒科一般 新星齒科醫院 院長 全柱雄 朴冕集

洪原精米所 主任 李鳳洙 / 德興精米所 主 都相麟 / 前津精米所 主 崔炯鍊

洪原和信百貨店 韓燕洙 電話三五番

咸南洪原郡 前津漁業場 組合長 朴東奎 理事 金秉熙

洪原邑內 一成組洋靴店 崔秉鏞

宇拔承認店 ㈱商工聯合通運社 電話六二番

丸宣式送風機 石油下向ランプ 特約店 浩興商店 崔浩禹

咸南洪原邑 洪原醫院 醫師 李鍾述 醫師 李鍾禧

咸南洪原郡 前津水産物製造輸移出組合

咸南肝油前津製造組合 電話五四番

朝鮮咸南前津港 委託業 大昌商會 主 洪大鏞 電話三九番

東海物産株式會社 電話一六番

洪原 雜貨商組合

合資會社 德興商店 電話一二番

海産業 申基柱

朝鮮日報洪原支局指定 白雲寫眞館 池文河

東亞商會

鄭忠鉉自轉車店

沃昌商店

前津發動機帆船 刺網業者組合

紫文閣書店

洪原繁榮會 會長 姜炯求

富吉旅館 電話六九番

咸南洪原邑 日光百貨店 都光燮

洪原撞球俱樂部

洪原郡前津市 三鶴酒造株式會社

ミドリ屋

洪原邑內 食料品 百貨 有名賣藥 廣信商會 金在斌 電話取次一〇九番

洪原邑魚市場通 丸永商店 鄭永國

曙屋

松山商店

咸鏡線前津驛前 東盛木材商會 洪原支店

貿易商 李昌鉉 電話三〇番

洪原邑內 三和商會 金熙雄

昭和水産工業株式會社 電話二三番

咸鏡線前津驛前 丸一運送店

春陽堂

海産物商 北島商店 明太卵製造部 電話洪原五九番

海産物貿易及委托業 申錫柔 電話六四番

前津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 前津營業所 電話四六番

金城鐵工造船所

劉鳳弼 / 洪一藥房 / 平海堂藥房 / 宋鼎和 / 金基炫 / 司法書士 金禎鎭 / 李楨夏 / 新川商店 電話三二番 / 間島運輸支店 / 洪原木炭協會 電話一〇八番 / 都曄洙 / 電光商會 / 徐明商店 / 朝日洋服店 / 金山表具店 / カナタヤ洋服店 / 北鮮商工運送本店 / 金貨組合 / 元海商店 / 津龍藥房漢藥部 / 牛車取扱所 / 金城商會 / 司法書士 朴來弘 / 高島屋 / 鄭德明 / 咸南洪原 金永台商店 電話四七番 / 李景在商店 電話三三番 / 咸信古物商 / 合同貿易 / 盧昇鉉商店 電話五六番 / 興盛屋 電話一一〇番 / ミヤコ商會 / 金潤鎬出張所 金世昌 電話三三番 / 金明瑄商店 / 金在漸商店 / 朴在珪商店 電話一〇九番 / 金山商店 / 都範洙商店 電話三八番 / 貿易商 林炳琡商店 / 咸南洪原邑 洪原藥房 電話一〇六番 / 洪原旅館 / 新珍屋 / 司法書士 朴在明 / 鄭鍾性商店 電話六番 / 咸興タクシー 洪原出張所 電話四五番 / 泰盛商店 / 滿洲屋 / 明時堂時計店 / 鐵田商會 / 金成玉商店

順德

慶應旅館 主 趙秉元 平北義州郡古津面仙下洞 北支京漢線邯鄲驛前

陸軍御用達 金澤洋行 主 金熙道

陸軍御用達 西岡商店 主 金昌

京漢線磁縣日本居留民會 朝鮮人會員 會長 李康壽 副會長 姜貴男 張瑾燦 獨孤文 白向夙 盧承都 朴逢雨 崔亨俊 朴守德 裵永順 全柱鴻 姜正幺 獨孤山 白向和

李光世 / 孔聖道 / 濟衆醫院 / 藤原商會 / 朝鮮日報分局 分局長 金昌烈 / 松山堂大藥房

藥種賣藥 各種雜貨商 委託販賣 三和洋行 文昌 劉昌 張泰 京漢線順德府南關北大街 電話一五〇番

大成商店 金興瑞 尹淑熙 順德府南關北大街五五號

カフェ曉 主 金梵龍 崔寶玉 康小姬 金春姬 北支順德府城內中山西大街二〇一號 電話一四二番

三菱寫眞館 三菱時計店 主 田基龍 朴潤載

東順商會 主 李東喆 北支順德府城內中山西大街二一 電話一六〇番

泰仁醫院 醫師 全鳳河 / 丸國洋行 主 金秀元 / 廣信號 主 白文明 / 崔國正 / 朴亨麟 / 邊道興 / 李成林 / 許日聖 / 第一商店 主 李興泰 / 大信商店

京城會館 / 又春館 / カフェ 半島 女給一同 / 吉本商店 / 春田公司 / 裕春當舖 / 成本大藥房 / 金安公司 / 光成洋行 / 鴨江商會 主 車長煥

日光商會 / 和信商會 / 日光號 / 金元碩

咸南新興郡東上面 元豐公友會

丸東運送店 / 中央寫眞館 / 三田商會 / 金弘天 / 李龍鎬 / 鄭國模

咸從

咸從面 職員一同 / 咸從公立尋常小學校 職員一同 / 咸從金融組合 職員一同

三省醫院 院長 金昌鎰 / 陽川醫院 院長 許珏 / 金命涉 / 咸從齒科專門院 / 吳龍珏 / 許琮

海岡大藥房 / 文長煥 / 昭和商會 / 西原公司 / 司法書士 丁義敎 / 崔景鉉 / 郭行鍵 / 李用根 / 張宗燮 / 尹在書 / 李潤益 / 李智煥 / 金昌世 / 金泰淵 / 金亨漸 / 金寬均 / 金鍾律 / 金泰河 / 郭泰鍵 / 郭啓濬 / 吳仁珏 / 鄭九恒 / 金致龍 / 金泰浩 / 司法書士 張瑞猷 / 新井釀造場 主 方秉洙 / 咸新商會

財界의 新春經濟展望

長期建設進行과 朝鮮經濟의 躍進

朝鮮銀行總裁 松原純一

一

皇紀二千六百年을 마지하는때當하여 聖戰第四年을 마지하는데當하여 皇室의御繁榮을 奉祝하는同時에 武勳을 세우고잇는 大陸作戰의 皇軍將兵에 感謝를表하는바이다. 支那事變의 善後措置는 漸次進捗되고잇스나 長期建設의 前途에는 去益切實하여야할 情勢에잇고 特히第二次 歐洲大戰이勃發되어 그長期複雜化에따라 國際政局은 與轉無極한것이 잇스므로 此間에處하여 我國所期의 理想인 東亞의新秩序를 樹立하는데는 官民協力一致하여國家總力의 發揮를期할수바게업다 바야흐로 國家總動員法은 거의全面的으로 發動되고 國力의 總動員體制는 完璧을 期하고 잇는데 經濟統制의 强化에 따라 經濟上의 過渡的摩擦은 難免이고 그 解消를 圖함은 戰時經濟의 運行을 確保하는데 잇서서 가장 必要하며 就中今後는 物資及物價의 調整에 關하여國民의 理解와 實踐的協力이 痛感된다 다시 我國戰時經濟力의 充實은 國際貿易과 密接한 關聯을가지는現狀에 鑑하여 帝國外交의 推移에深甚한關心을가지고 官民一體가되어 國際難局의 打開에 邁進할決意가 肝要하다

二

昨年에잇서서의 我國經濟界의 推移를槪觀하면 長期建設에 對應하여生産力擴充計畫及物資動員計畫은 確立되고 他面物價統制의新展開를보앗스며 加하여貿易振興施設의 整備와相俟하여時經濟는大槪良好한 實績을거두엇다 即內地外地共히 生産擴充을着着實効하고 生産活動은 年間을通하여 旺盛하엿는데 內地에서는 渴水에因한 電力의 不足及石炭의 增産難等이 생기고 加之生産擴充의 資材調達難이 發生하여이에따라 生産擴充과 物資調整과에所謂重點主義가採用되어時局主要産業의 發展은一層促進되고잇는것은特記할만하다 貿易은歐洲大戰의勃發에因하여 國際物價水準의昂騰과 海外需要의增加로 輸出貿易의振興은 顯著한것이잇는反面, 輸入貿易은 統制가效果를거두어 그增加는 僅少에그치고 出超는巨額에達하여 貿易收支는 頗히良好한것이잇섯다 十一月까지의 內外地貿易累計는 輸出卅四億五千九百餘萬圓 輸入卅七億九千六百餘萬圓으로 前年에比하여 前者는三四%, 後者는九%의增大이고 出超는 約七億圓을보이어 我國貿易史上의新記錄을樹立하엿다 勿論出超는 圓域向의出超로서 第三國은 도리어入超이므로 國際收支는 樂觀을不許하고 今後一層第三國貿易의伸展을 期하여야하겟다 그리고 對外爲替는 昨秋英磅에서 弗링크로轉換하엿는데 그貿易上의影響은 거의皆無이엇든것은多幸이다 起債界는 外地物을包含하여 年間廿五億四千八百萬圓에達하여 前年에比해서 七億七千萬圓의激增을告하고 企業發展의顯著함을말하고잇섯다 金融界는 低金利의浸潤과 그平準化가進行되엇는데 貯蓄의 獎勵는 普及되어 預金의增加는 顯著한것이잇섯다 그러나 貸出의增加도亦顯著하엿든것은 昨年의特色이고 또國債의消化는 大體好成績을내엿스나 後年에이르러 若干鈍化의傾向을 보인것은 關心할것이오 [illegible]

三

大陸의 建設狀況을보면 滿洲國에잇서서는 昨年은 産業五個年計畫의 第三年에當하여 드디어 本格的産業開發時代에들어오고 또內外多事多端에直面하엿스므로 修正五個年計畫을樹立하여 生産의擴充을增大해서 時局에資하는바잇섯는데 治安防備의緊急에 鑑하여 北邊振興政策을確立하고 그實行에邁進 다시開拓政策의 徹底를期코저 그機構의 擴充强化를 斷行하여 [illegible] 此等三大政策은 上述한事件의發生 歐洲大戰의勃發等 豫想外의 障碍가突發하엿스나 大槪所期하는 實績을 내인것은 [illegible] 即 近代的産業의 發達은 進行되는同時에 特産物의生産은 大槪順調롭고 따라서 貿易은 그分野에 變化가 잇섯스나 活況을呈하엿다 그리고戰時統制는 我國同樣으로 强化되고 [illegible]

[illegible]

四

이러케 內外時局多端한때에 [illegible] 兵站基地使命의 遂行에 邁進하여 [illegible]

[illegible] 大計畫을세우고 다시前進을期하여야한다 特히 物心兩面에 亘하여 一段의 努力을 期하고 時艱克服에邁進하는것이 肝要하다。

大旱災의 克服과 天候順調를 祈願

朝鮮殖産銀行頭取 林繁藏

皇紀二千六百年의 新春을마지하여 記念할 皇室의御繁榮을 奉祝하고 皇國臣民으로서의 感激을새롭게하여 淸新의 銳氣로써 東亞新秩序建設의 大業에邁進할수잇는것은 實로 感激하는 바이다。

回顧 하건데 昨昭和十四年은 매우 多事多難한해이엇다 即對外的으로는 [illegible]하여 將政權膺懲의 徹底를期한것은勿論、日蘇漁業問題、滿蘇國境問題、海南島問題、北支爲替問題、天津租界問題、日英會談、日米通商條約廢棄問題、第二次歐洲戰의 勃發等等의問題가 連續的으로 襲來하고 對內的으로는前後二回에亘하여 政變이잇섯고 中國、九州及中南朝鮮地方의旱魃로 農作物의被害가 不少하엿는데 愛國心에불타는 官民一致의努力은 能히 此等에對處하여一路國策遂行에 邁進하고 經濟方面에잇서서도 總額八十八億七千四百萬圓에達하는 政府의大豫算實施、國家總動員法의 全面的發動、生産力의擴充、物價統制强化等의 圓滑한遂行에 資하엿스며 이와相俟하여 드디어 國威를宣揚하는同時에 經濟的으로도 副期[illegible]

朝鮮 에잇서서도 農業方面에는 不少한 旱害를 바닷스나 時局下一般産業의 好調와 當局의 救濟施設의進行과 相伴하여 大體로順調로운推移를 거듭햇다고 볼수잇다。即 農業方面에 잇서서는 五月中旬以降、降雨不順으로 中部以南地方은 甚한 旱魃로되어 沓의灌水가 不能하게되어 稻作에 非常한惡影響을 주엇스므로 其收穫豫想高는 一千四百三十二萬石으로서 比前年 約一千萬石이나 減少되엇고 田作의 雜穀도 亦是若干減收되엇는데 他面各種의 代用作은 當局의督勵로相當한收穫을 어든外에 棉花養蠶等도 亦是 相當한 成績을거두어 前年秋의 米收穫高 二千四百十三萬石의 平年以上의 收穫高의뒤이어 昨夏의 麥類는 比前年一割一分强이나 增收되엇스므로 此等의 移輸出과 各種農産物의 市勢高와 相俟하여 農家經濟를 潤澤케한바 不少하엿다。

水産 方面에 잇서서도 鰯油는 依然히 盛況을이루어 前年以上의 豊漁가 豫想되엇고 其製品인 鰯油肥、魚粉等亦是 終始堅調를 維持하여 海苔、明太其他漁業의 好況과 相俟하여적지안케斯界를潤澤케하엿고 鑛業方面에잇서서도 産金事業의 發展은 다시 말할것도업고 鐵、마네샤이트、黑鉛、重石、[illegible]等의特殊鑛物의開發은 積極的으로되엇스며 [illegible] 工業方面에잇서서도 [illegible] 洋灰、製粉、[illegible] 等도 亦是 [illegible] 보게되엇다。

이것을 二、三의統計에 徵하여보면 昨年朝鮮貿易高는 一月부터 十月에이르는 期間에잇서서 輸移出入總額十九億五千九百萬圓을算하여 比前年二割六分을 增加하고 또同期間에잇서서 鐵道局線의貨物取扱高는 一千百五十二萬六千噸에達하여 比前年同期二割三分을 增加하여 兩者가 모두 經濟活動의相當한 活況이엇든것을 말하고잇다。그리고此期間에잇서서의 會社企業의 社數及 拂込資本金의純增加는 百二社二億百萬圓을 하엿는데 資金調整이强化되고잇는 現象이므로 此等新設擴充된事業의 大部分은 時局關係産業일것으로 보인다。

金融 界는 此等狀勢를 反映하여 同期間에잇서서의 全朝鮮手形交換高는 廿六億二千四百萬圓으로써 比前年同期四割三分이나 增加되고 全朝鮮銀行의 預金貸出은 十月末에잇서서 預金殘高七億六千五百萬圓 貸出金殘高十三億一千七百萬圓에 達하여 比前年同期、預金에 잇서서 三割五分、貸出金에 잇서서 三割六分의 各其增加이엇다 그리고 其所有有價證券은 前年十月末의 四億三千三百萬圓으로부터 昨年十月末의 六億六千四百萬圓으로 五割三分이나 增加되엇다 此等所持有價證券의 增加는 다시 말할것도업시 銀行業者가 當局의 方針을 體하여 公債類의 手持를 增加시킨 結果이라고 잇는다 이와가치 朝鮮의 經濟界는 農業方面에 잇서서의 旱害가 激甚함에도 不拘하고 全般을 通하여 相當한 活況裡에 無事히 越年하게된바이다。

도리켜서 以下朝鮮의 産業에 關하여 所懷의 一端을 말하려한다 朝鮮이 帝國의 大陸前進兵站基地로서의 重責을 負擔하고 其産業이 時局下에 잇서서 躍進되고 잇는것은 周知하는바와갓다。

兵站 基地의 內容에 關해서는 一、地理的에 對하여 [illegible] 鐵道貨車、自動車等의 輸送具를 먼저 提供한다 二、軍用糧食及軍用雜貨의 供出 三、農産水産物에 依하여 帝國의食糧安全感에 貢獻한다 四、地下資源을비롯하여 各種資源의 開發에 依하여 原材料를 供出한다 五、軍需工業을 朝鮮內에 일으키므로써 軍需生産基地로 하는等의 諸項에잇는것으로 생각되어 時局下 朝鮮産業의 進路도 이에 依하여 明示되고 今昭和十五年의 朝鮮産業界는 이線에沿하여 邁進해야될것이다 昨年의 旱害는 相當히 激甚한것이잇고 其影響이今後[illegible] 期에걸처서 深刻해질것으로생각되므로 一層官民一致協力하여 이難關을 突破하지아니하여서는 안될것이며 今年의 天候가順調롭기를바라마지안는다。

安城

朴弼秉
孔城産業株式會社取締役社長 / 安城三益社取締役社長 / 平澤自動車運輸株式會社取締役副社長 / [illegible]

積財鑛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李鍾權 / 專務取締役 李熙復 / 常務取締役 尹顯喆 / 常任監査役 李海泳 / 同 金鍾燮

京畿道會議員 / 安城物産株式會社取締役社長 / 京畿運送株式會社取締役社長 / 安城酒造株式會社專務取締役 / 平澤酒造株式會社專務取締役
睦頊相

安城邑 李海泳

安城邑 朴容復 電話一〇三番

安城市場通 和洋雜貨 大東百貨店 鄭殷薰 電話安城一七番 振替口座京城二一〇八番

安城物産株式會社
取締役社長 睦頊相 / 專務取締役 李丙夏 / 常務取締役 金東善 / 同 睦海均 / 常任監査役 朴容復

振安自動車運輸株式會社
取締役社長 市山直備 / 取締役副社長 朴弼秉 / 專務取締役 森田吉 / 常務取締役 尹在喆

安城酒造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朴弼秉 / 專務取締役 睦頊相 / 常務取締役 朴容復

京畿道安城邑 朝鮮料理 太平館 電話一〇八番

京畿道安城邑 朝鮮料理 海雲莊 電話四〇番

北信金鑛 吳星煥

東中欠礦 朴周秉

東光興業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朴[illegible] 專務取締役 李[illegible]秀

不二農村株式會社安城農場長 安城邑會議員 朝鮮産業組合安城支局長 朴容寅

株式會社 安城商會 社長 [illegible] 專務 [illegible] 支配人 [illegible]

安城邑 きくや食堂

孔道面長 南吉祐

絹紬布木 宋應泰商店

海産物委託販賣 共興社

京畿道安城市場通 各種穀子 李應龍商店

安城郡廳 郡守 安昌煥 外職員一同

安城警察署 署長 田邊信治 外職員一同

安城郡安城邑市場通 玄米白米精穀 大成商會 主 金容俊

京畿道安城郡安城邑 大榮精米所 曺圭鎬

京畿線安城邑 安城護謨商會 金興洙

朝鮮京畿線安城市場 絹紬布木 和洋紙物 光成商會 金是洪

安城邑東里 二和生命保險 [illegible] 李全龍 電話一〇二番

ヤンマー純ヂーゼル特約店 野田式農機特約店 中野式精麥機特約店 安城鐵工所

京畿道安城郵便所 所長 須藤松次郎 代理 朴性哲

安城郡安城邑事務所 邑長 徐相準 副邑長 李爽柱

京畿道立安城醫院

安城邑 李熙善

安城邑 朴承烈

安城邑內 大東醫院 院長 李鍾震 電話三五番

安城德濟醫院 院長 金龍雨 電話一一〇番

京畿線安城驛前 ◎朝鮮運送株式會社取引店 京畿運送株式會社 取締役社長 睦頊相 常務取締役 睦周相

安城鍮器製造株式會社 取締役社長 朴周秉 取締役支配人 尹喆周

合資會社 大東印刷所 代表社員 趙得衡 電話一七番

京畿道安城郡安城邑 南鮮合同電氣 株式會社天安支店 安城派出所

京畿道安城邑 ユアサランプ特約販賣店 乾電池 和洋紙物 文房具 百貨 メリヤス 帽子 流行品 化粧品 石油 石鹸 藥品 [illegible] 鄭華永商店 御小賣 電話五四番

綿布商 元行商會 主 黃泰淵

京畿道安城郡市場通 綢緞布木 太陽商會 電話一一八番

大東精米所 主 鄭圭薰 電話四七番

安城市場 自轉車及附屬品販賣 池榮得自轉車店 電話一〇九番

綢緞布木 正源商店 李有成 電話一二一番

朝鮮京畿道安城市 正屋百貨店 電話六七番 振替京城一三〇七九番

朝鮮京畿道安城邑內 農工鑛業用諸機械器具販賣 各種部分品 修繕製作 三井機械商會 振替二九七八二番 電話安城六六番

安城郡安城邑東里 三德葡萄園

綢緞布木 穀物肥料 合成商會 主 金鍾浩 電話二六番

京畿道安城邑內西里三七四 カフエー キング 電話六八番

東一銀行安城支店 支店長 徐廷[illegible]
安城金融組合 理事 東田臨次郎
安城第二金融組合 理事 森[illegible]雄

安城邑 李爽柱

孔道

安城郡孔道面龍頭里 穀物商 鄭鍾九

孔道市場 孔道理髮舘 主 李順男

京畿道安城郡孔道面龍頭里 自轉車及附屬品 各種修繕 大元自轉車店 主 白振成

安城郡孔道面關村 鄭周煥

安城郡孔道面關村 鄭雄模 鄭英模

安城郡孔道面兩基里 李正煥

安城郡孔道面 中央農場 閔泳完

安城郡孔道市 孔道郵便所 所長 冉敬浩

安城郡孔道市 東亞醫院 院長 趙壽奉

孔道面龍頭市 大元商店 絹布木 ゴム靴 肥料 セメント 日用雜貨 主 崔元鎬

安城郡孔道面熊橋里 崔鎭國

安城郡孔道面馬井里 尹雄模

安城郡孔道面佛堂里 徐光玉

安城郡孔道面關村 沈顯文

安城郡孔道面龍頭里 金仁淑

安城郡孔道面佛堂里 徐光三

安城郡孔道面佛堂里 文明載

安城郡孔道市 OK寫眞舘 主 朴晟均

忠南天安郡成歡面兩舍里 金鍾完

安城郡孔道面萬禮洞 李昌浩

安城郡孔道市 モートル 新製品一切 御用 安城共益社 尹相殷

安城郡大德面竹里 朴喜萬

安城郡元谷面外加川里 李弼柱

安城郡元谷面鄙耳里 金鎭泰

安城郡孔道面龍頭里 洪元杓

安城郡孔道面熊橋里 李周榮

安城郡孔道面葛井里 金壽童

安城郡孔道面熊橋里 朴錫和

安城郡孔道面熊橋里 薛德昌

安城郡孔道面珍沙里 徐光泰

安城郡孔道面馬井里 俞寅穆

孔道面熊橋里 車相珏

孔道面[illegible]里 李學鳳

孔道[illegible] 安龍工作所 主 金[illegible]大

孔道面[illegible]里 崔興甲

孔道面熊橋里 金俊玉

孔道面[illegible]里 吳春根

孔道面鄙川里 申喆雨

孔道面熊橋里 金世昌

孔道面關村里 金氏童

孔道面萬井里 李仁珪

孔道孔俛簡易學校 朴商俊

孔道面龍頭里 崔東熙

孔道面珍沙里 吳碩根

孔道面協議員 申世均

孔道面熊橋里 朴仁根

孔道警防團長 李謙在

安城郡孔道面珍沙里 李興載

孔道市場 吳淵豐

安城郡孔道面關村 金英培

安城郡孔道面龍頭里 [illegible]

元谷面龍耳里 鄭舜模

安城郡孔道警防副團長 尹起學

安城郡孔道市 李在成商店

安城郡陽城面東恒里 金顯甲

安城郡陽城面桃谷里 李榮增

安城郡元谷面[illegible]里 李義翼

安城郡孔道面新頭里 趙聖範

安城郡孔道面新頭里 金卜同

豐德農場

安城郡孔道面龍頭里 杉浦農場

安城郡孔道面萬井里 朴性漢

安城郡孔道面萬井里 金鍾煥

安城郡孔道面萬井里 冉觀浩

安城郡孔道面龍頭里 李壽昌

安城郡孔道面龍頭里 金明淑

安城郡孔道面龍頭里 鄭鎬植

利川

利川酒造株式會社
取締役社長 申鉉泰 / 專務取締役 俞琬植 / 常務取締役 李起昌 / 常務取締役 李仁載

[illegible] 李順興

[illegible] 池弘植

[illegible] 金泰雲

[illegible] 李顯煥

孔道産業會社 專務 朴性完

[illegible]

大衆宴會場 朝鮮料理 親和舘 電二八番
妓生(가나다順) 朴松竹 田錦紅 孫親和 崔鶴仙 安春子 崔小玉 曺雲仙 李小鳥

利川邑 東星醫院 醫師 柳舜鍚

利川稅務署

利川酒造組合

利川邑 朝鮮料理 明月舘 主 河相來 電三〇番

利川郡廳

利川郡農會

布木商 三益社 電一〇二番

利川穀物協會

東亞藥房 電六三番

利川商工會

利川邑 東一精米所 電四一番

金炳哲 電話一六番

利川邑 發動機 モビール油 印長出

利川邑 申鉉泰

時計修繕及販賣 金銀 百貨 永信商會 電一六番

利川邑 文道植 電二八番

京畿道利川 時岡齒科醫院 院長 齒科醫師 時岡良平 東洋齒科醫學士 松永靜枝

西山里 李下載

京畿道利川邑 池內印刷所 電一〇五番

株式會社 利川産業社 電二三番

利川邑 廣一商會 電一〇三番

京東ゴム商會 主 [illegible]